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2018.10.19/금 10:00-17:00

전곡선사박물관 강당

주최:  중부고고학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표지사진

바탕_연천 학곡리적석총(경기문화재연구원 제공)

유물_연천 무등리2보루 출토 찰갑, 철모, 철준(서울대박물관 제공)

2018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 일 시 : 2018. 10. 19.(금) 10:00~17:00
- 장 소 : 전국선사박물관 강당
- 주최·주관 :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일정]

사회_ 강병학 /한양문화재단연구원

10:00 ~ 10:20	접수
10:20 ~ 10:30	개회 개회사_ 김길식 중부고고학회 회장 환영사_ 김성명 경기문화재단연구원장
10:30 ~ 10:40	휴식(장내정리)
10:40 ~ 15:00	주제발표
10:40 ~ 11:20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발표_ 윤용구 인천도시공사 토론_ 김창석 강원대학교
11:20 ~ 12:00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재검토 발표_ 김성태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토론_ 심재연 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12:00 ~ 13:00	중식
13:00 ~ 13:40	임진강 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의 동향 발표_ 한지선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토론_ 박경신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3:40 ~ 14:20	임진강 유역 삼국의 성곽과 관방체계 발표_ 심광주 NH토지주택박물관 토론_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14:20 ~ 15:00	임진강 유역 교통로 발표_ 서영일 한백문화재단연구원 토론_ 김기섭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5:00 ~ 15:20	휴식(장내정리)
15:20 ~ 17:00	종합토론 좌장_ 김길식 용인대학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CONTENTS

2018년 경기문화재단 연구원
중 부 고 고 학 회
학 술 대 회

주제발표

발표 1.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윤용구 (인천도시공사)	7
발표 2.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재검토	김성태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2
발표 3.	임진강 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의 동향	한지선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45
발표 4.	임진강 유역 삼국의 성곽과 관방체계	심광주 (LH토지주택박물관)	74
발표 5.	임진강 유역 교통로	서영일 (한백문화재단연구원)	117
종합 토론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경신(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김기섭(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심재연(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백종오(한국교통대학교)	137

2018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중 부 고 고 학 회
학 술 대 회



주 제 발 표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

윤용구
(인천도시공사)

목차

- | | |
|------------------------|----------------------|
| I. 머리말 | IV. 《수서》 신라전의 '韓濊之地' |
| II. 《삼국지》 한전의 '韓濊' | V. 맺음말 |
| III. <광개토왕능비문>의 '新來韓濊' | |

I. 머리말

중부고고학회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는 「삼국 전야기의 임진강 유역」이다. 임진강 유역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고대사 복원에 있어서 문헌사 분야의 제반 문제를 통해 물질문화 해석의 다양성을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 것이다. 사실 임진강 유역은 인접한 한강 유역과 함께 남북 간 물류와 人流가 교차하는 곳이고, 기원 전후하여 뚜렷한 존재를 드러낸 馬韓과 고대국가로 성장한 백제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論題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내 연구자에 의한 마한백제사 연구의 토대가 만들어진¹⁾ 1980년대 이후 한반도 중부지역은 마한사회의 형성과 백제의 성장, 그리고 삼국간 쟁패의 무대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사회 내에서 伯濟國의 존재양태나, 百濟 건국의 시기, 주도세력의 실체나 문화의 계통 등 기초적인 문제조차 여전히 논란이다.

문헌과 물질자료 이해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한반도 중부지역의 고대사를 백제의 성장에 의해 지배된 무대로 이해하는 점이다. 『삼국지』와 『진서』 마한전에는 4세기 전 반까지도 백제의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의거 3세기 중엽 중부지역의 맹주가 백제였다는 이해에 따라 마한 정치체의 다양한 역사상이 사상되고 있는 것이다. 백제 고이왕 기록에 따라 만들어진 백제상은 실제 물질자료의 편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마한

1)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일조각.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사회 내에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한강유역이 차지하는 지역적 특색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혼란이다. 일찍이 한강유역을 馬韓과 구별되는 여러 流移民集團으로 구성된 辰韓이라거나(李丙燾 1936), ‘예계의 중도유형문화’가 마한계 문화와 구별되는 중부지방 기층문화하는 해석(朴淳發 1996)이 그것이다. 한강유역을 辰韓으로 보지 않으면서 문헌과 물질자료를 결합하여 해석하려는 것이 현재의 추세지만(尹善泰 2001 ; 宋滿榮 2003 ; 권오영 2009) 견해차를 좁힐 정도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중부지방 삼국 전야기연구의 문제로 제기한 것이 적절한지, 나아가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인가는 필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다 아는 대로 史書와 개별 사실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왔을 뿐이다. 담론에 의하지 않고 개별 사실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이의 연관성을 추구할 때, 해석의 다양성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기원 2세기 후반 처음 등장한 ‘韓濊’의 실체와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 아는 대로 ‘韓濊’는 후한 말 낙랑군의 지배력 이완에 따라 군현민이 韓國으로 대거 흘러 들어가고, 동시에 옥저·동예지역이 고구려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濊系住民들이 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한반도 중부지방의 경기북부와 북한강과 남한강에 걸치는 지역이 대상이다. 최근 10년간 이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축적되고 있지만(金昌錫 2008·2013·2014·2018) 『三國志』 韓傳에 처음 나타나는 ‘韓濊疆盛’의 用字 풀이로부터, 「광개토왕릉비」의 ‘新來韓濊’의 의미와 해석은 견해차이가 심하다. 또한 『수서』 신라전에 보이는 ‘韓濊之地’는 ‘韓濊’출현이후 ‘新來韓濊’를 거쳐 6세기 중엽이후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동안 주목하지 못하였다.

II. 『삼국지』 한전의 ‘韓濊’

1) ‘韓濊’: 並稱, 通稱, 連稱

【사료1】『삼국지』 30, 韓傳

- ①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②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為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사료1)은 후한 말 韓濊가 강성해져 군현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군현민이 韓國으로 유입되는 상황과(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대방군을 설치하고 韓濊를 정벌하여 흡수한 군현

민을 수습한 결과 韓이 다시 군현에 복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②)

여기서 두 차례 나오는 ‘韓濊’는 ‘한과 예(韓·濊)’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²⁾ 『후한서』 한전의 독법을 따른 것이다.³⁾ 그런데 ‘한과 예’로 따로 읽으면 위의 사료는 여러 모순이 생긴다. 곧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민 통제가 어려워져 발생한 流民이 韓國으로만 유입된 점, 그럼에도 군대를 일으켜 한과 濊까지 정벌하였지만 정작 대방군에 복속된 것은 濊가 빠진 韓만인 점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에서 韓濊를 韓과 韓濊를 通稱이거나(권오영 2009), 韓과 濊가 혼유(혼용?)된 정치체(송만영 2003·2010)로 존재하였다는 이해도 있다. 좀 더 부연하면 ‘韓 같은 濊’, 때로는 ‘韓과 濊’라는 의미에서 한예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추정하고, 그 범위는 동해안의 濊를 제외한 영서와 서울-경기, 강원 영서지역의 집단의 통칭으로 보았다.(권오영 2009 : 41~42) 통칭이라 하면서도 韓과 濊는 별개의 종족 표기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다면 ①과 ②에서 韓濊와 韓國이 구분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최근 사료의 ①과 ②에 모두 濊가 사건의 발단에 등장하지만, 결말에는 韓濊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과 예는 별개의 종족을 나타낸다는 견해(김재홍 2017)도 있다. 그러나 ②의 ‘興兵伐韓濊’는 사건의 발단이 아니라, ①의 ‘韓濊疆盛’에 따른 군현체제의 붕괴를 수습하고 군현민 귀환을 위한 해결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예와 한이 별개의 존재라면 군현민 유입도 없는데, 정벌의 대상이 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된다.

2) 韓濊 : ‘韓地 내의 濊’

‘韓濊’는 ‘韓地 내의 濊’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경우 韓은 지역명 韓國(韓地)으로, 濊는 그곳에 거주하는 濊民이다. 중국사서의 이민족 표기는 2가지 방식이 사용되었다.

【사료2】

- ① 東夷韓國人率衆詣樂浪內附，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詣樂浪內屬，東夷馬韓新彌諸國鮒出葦邪頭國，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降，樂浪外夷韓濊貊，各率其屬來朝貢
- ② 夫祖葦君，不耐濊侯(王)，狗邪韓國，臣瀆沽韓，嶺東濊(東濊)，小水貊，大水貊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一), 284~285쪽.

「桓帝·靈帝 末期에는 韓과 濊가 강성하여 (漢)의 郡·縣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군현의)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 建安 연간(AD196~220)에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고, 公孫模·張敏 등을 파견하여 漢의 遺民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서 韓과 濊를 정벌하자, (韓과 濊에 있던)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뒤에 倭와 韓은 드디어 帶方에 복속되었다.」

3) 「靈帝末，韓濊並盛，郡縣不能制，百姓苦亂，多流亡入韓者」(『후한서』 85, 동이열전 한)

①은 종족명이 지명(정치체) 앞에 오는 것으로 本紀의 기록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②는 지명(정치체) 다음에 종족명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列傳에 주로 사용된다. 嶺東濊(東濊)의 사례처럼 韓濊도 지명(정치체) 다음에 종족명을 쓴 유형이라 할 것이다. ‘夫祖濊君’, ‘不耐濊(國·侯·王)’의 경우를 비롯하여 ‘臣濊沽韓’, ‘狗耶韓國’, 小水貊, 大水貊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3) 韓濊의 범위 : 郡縣故地, 近郡諸國

【사료 3】『삼국지』 30, 韓傳

- ① 桓靈之末, 韓濊強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為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 ② 其北方近郡諸國 差曉禮俗, 其遠處, 直如囚徒奴婢相聚.

【사료 3】은 3세기 초 ‘韓濊疆盛’에 따른 ‘伐韓濊’의 대상이 된 범위는 우선 韓地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帶方郡이 설치된 곳과 가까운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① 대방군의 남쪽 경계는 과거 진번군의 廢縣 8곳이 연결된 곳이다. 한예는 진번군 退縮에 따른 郡縣故地와 그와 가까운 韓에 이르는 완충지대가 포함될 것이다. 군현에 가까운 마한의 近郡諸國이 ‘韓濊疆盛’에 따른 ‘伐韓濊’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韓濊는 본래 韓地가 아닌 곳도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2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낙랑군 남부지역의 荒地化가 급속히 진행되면서,⁴⁾ 韓과의 완충지대와 郡縣故地까지 韓國의 범위가 확장된 결과였다. 이는 韓의 지배력이 확장되었다기보다 군현 측에서 韓의 居住空間처럼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경기북부의 대방군 방면만이 아니라 북한강 상류의 옛 임둔군 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다. 그곳의 주민을 모두 먼 곳에서 이동해 온 流移民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濊民의 구성 분자도 실제로 동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삼국지』 예전의 서술 대상과는 다른 존재로 생각된다. 3세기 경기북부와 북한강 상류는 東濊의 일부가 아니라 ‘韓濊’라 불러야 할 것이다. 2세기 후반 군현지배의 후퇴에 따라 형성된 韓濊는 ‘한지 내의 예민’을 가리켰지만, 점차 군현에 인접한 마한의 ‘近郡諸國’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개념으로 변모해 갔다.

4) 후한 들어 2세기 중반까지 황해도 지역에는 거의 낙랑고분(귀틀무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 군현의 지배집단의 분묘가 다시 조영되는 것은 2세기 후반이다. (鄭昌熙, 2009, 「2~4세기 黃海道地域 古墳 分布 定型의 變化와 意義」, 『嶺南考古學』 48, 영남고고학회, 5~48쪽)

Ⅲ. 「광개토왕능비문」의 ‘新來韓濊’

「광개토왕능비」(이하 「능비」로 약함)에는 396년 광개토왕이 백제로의 親征을 감행하여 함락 시킨 58개성의 城名과 함께, 그 가운데 36곳의 복속민을 수묘인으로 차출한 기록이 적혀있다. 그리고 수묘인으로 차출된 백제주민을 ‘新來韓濊’로 표현하였다. 백제를 ‘百殘’이란 卑稱을 사용하는가 하면, 그 주민에 대하여 ‘韓濊’라는 漢代이래 중국인이 붙인 종족명으로 표기하였다. 백제 주민에 대한 백제 왕실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그 동안 수묘인으로 기록된 ‘新來韓濊’는 광개토왕의 유언에 따라 그가 친정한 396년에 함락한 58개성에서 차출하였다. 일부 다른 지역명이 보이지만, 대부분 58개 城名과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6곳 가운데 31곳이 ~城, 4곳이 ~韓, 기타 한 곳(勾牟客頭)이다. 31곳의 성명 가운데는 巴奴城韓, 舍蔦城韓濊 두 곳이 城名 뒤에 韓 혹은 韓濊를 덧붙였다. 대체로 성명이 붙은 것은 백제의 성 지배를 계승한 것으로, ~韓은 고구려가 새로 편제한 종족 지배의 모습이며, 성명 뒤에 붙은 종족명이 붙은 巴奴城韓, 舍蔦城韓濊는 城 지배와 함께 징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武田幸男 1977)

‘新來韓濊’ 36곳의 위치와 城名과 종족명을 부가한 차이를 통해 고구려의 백제지역 지배방식에 대해서는 수다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城名이 부가된 지역은 대부분 韓人이라 거나(武田幸男 1977), 반대로 예민도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라는 견해(金昌錫 2013·2018)로 나뉘어 있다. 또한 豆比鴨岑韓·求底韓·客賢韓·巴奴城韓·百殘南居韓의 경우는 58성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지명이다. 이 때문에 백제 영역 밖의 복속민이라거나(孔錫龜 2013) 광개토왕에게 백제왕이 항복하면서 받친 生口의 출신지(趙法宗 1995) 혹은 영산강유역의 복속민(李道學 2013)으로 보기도 한다. 舍蔦城韓濊의 경우 58성 가운데 古舍蔦城을 개편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성에 韓濊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처럼 新來韓濊의 지배방식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이들은 차출하게된 396년 광개토왕의 南征地域도 이견이 있다. 『삼국사기』 광개토왕조에 의거하여 임진강유역에서 한강 하류역에 미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되고 거기에 58성 중 하나인 ‘古牟婁城’이 확인되면서 남한강 중상류까지도 포함하는 견해가 우세해 지고 있다.(장창은 2014) 396년 신라로 통하는 내륙교통로의 주요 거점은 확보하였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능비」의 新來韓濊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북부와 한강, 남한강유역에 걸쳐있는 셈이다. 『삼국지』 한전의 ‘韓濊’보다 남한강유역이 늘어난 범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능비」의 수묘인과 특히 新來韓濊의 표기를 두고 고구려의 영역지배 방식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韓濊’를 種族 표기라 보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韓濊’라는 用字에서 종족의 의

미를 부정할 수 없으나, 지나친 해석도 없지 않다. 예컨대 韓 혹은 韓穢 표기와 관련 없이 그 전체를 新來韓穢라 표현하였음에도, ‘畚茀城韓穢’한 사례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가 그것이다.⁵⁾

「능비」의 新來韓穢는 고구려가 주변에 대한 공간인식, 곧 天下觀에 따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여호규 2009) 新來韓穢는 새로 확보한 종족과 그 人民이기 보다는 그들의 居住地域을 중시한 표현이다. 본래 韓穢는 한대의 樂浪郡, 후한 말 이래로는 帶方郡이 한반도 중부 이남의 동이족을 지칭하는 華夷論的 표현이다. 그런데 「능비」에는 韓穢 외에도 夫餘, 新羅, 加羅, 倭 등 남북의 東夷諸族 만이 아니라, 稗麗, 肅慎(肅慎?) 등 遠夷의 대명사처럼 회자되던 종족도 보인다.

이처럼 新來韓穢는 단지 백제의 卑稱으로만이 아니라, 낙랑군과 대방군을 매개로 韓穢의 朝貢을 받아온 중국 황제를 대신하여 고구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5세기는 광개토태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활발한 영토 확장과 함께 중국식 천하관념을 받아들여 왕권의 신성관념과 함께 주변 세계에 대한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었다.(노태돈 1999) 좁혀 말한다면, 魏晉代 東夷觀念을 고구려가 계승한 것이다.(여호규 2009·2017) 이는 한반도 중부이남 세계에 대하여 낙랑군과 대방군을 대신하여 고구려가 새로운 지배질서를 표방하는 것이라 하겠다.

IV. 『수서』 신라전의 ‘韓穢之地’

중국사서에 신라의 열전이 처음 입전된 것은 『梁書』 신라전이다. 521년 백제의 주선을 받아 남조 梁에 통교하며 전해진 정보가 수록된 것이다. 그러나 『양서』 신라전의 내용은 백제의 通譯을 거쳐 이루어 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제에서 가공하여 전달된 측면도 엿보인다. 신라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통교하여 史書에 입전된 것은 『수서』 신라전이 처음이다. 진평왕대 빈번한 入隋의 결과 전해진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사료 4】

- ①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之地, 或稱斯羅, 魏將毋丘儉討高麗破之, 奔沃沮, 其後復歸故國, 留者遂爲新羅焉. 故其人雜有華夏高麗百濟之屬, 兼有沃沮不耐韓穢之地, 其王本百濟人, 自海逃入新羅, 遂王. 其國傳祚至金眞平....其先附庸於百濟, 後因百濟征高麗, 高麗人不堪戎役, 相率歸之, 遂致強盛, 因襲百濟, 附庸於迦羅國」(『隋書』81, 新羅傳)

5) 王健群은 ‘畚茀城韓穢’의 ‘韓穢’ 2字는 비면의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된 것이라 보았다.(王健群,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314쪽 주4)

- ② 隋東藩風俗記云, 金姓相承三十餘代, 其先附庸於百濟, 征高驪, 驪人不堪役, 相率歸之, 遂致強盛. (『翰苑』蕃夷部 新羅)
- ③ 至隋文帝時遣使來貢, 其王姓金, 名真平 隋東蕃風俗記云 金姓相承三十餘葉 文帝拜為樂浪郡公新羅王其王至今亦姓金 其先附屬於百濟後因百濟征高麗人不堪戎役相率歸之遂致強盛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 並三韓之地 (『通典』185, 邊防 新羅傳)

이 때문에 『수서』 신라전은 『양서』 신라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수서』의 내용은 『翰苑』 신라조와 盛唐때 나온 杜佑 『通典』 신라전에 인용된 『隋東藩風俗記』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隋가 주변 이민족의 최신 정세보고서라 할 『諸蕃風俗』의 하나로 작성된 것은 분명한 듯 하고, 이것이 『수서』 신라전의 원자료로 이용된 것이다. 『수서』 신라전은 모두 『隋東藩風俗記』의 내용이라해도 틀리지 않다. 그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고, 신라의 입장이 잘 반영된 자료로 생각된다. 언급한대로 진평왕대 빈번한 신라 사절에 의해 전해진 정보에 의하였을 것이다.⁶⁾

【사료4】에 따르면 신라는 漢代 ‘樂浪之地’에 터를 잡고 있으며, 한때 백제에 附庸하였지만 점차 강성해져 백제를 깨트리고 백제에 예속되어 있던 任那加羅의 여러나라를 정복하였으며, 곁하여 “沃沮·不耐·韓獺之地”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하였다. “沃沮·不耐·韓獺之地”가 신라 영토라는 기록은 진흥왕이 553년부터 568년까지 확보한 한강유역과 함경남도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순행한 영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韓獺之地’는 신라가 새로 확보한 한강유역을 말한다. 『冊府元龜』(100, 外臣部)에는 이 모두를 본래 ‘朝鮮之地’라 표현하였다.

그런데 신라의 신영토는 본래 고구려의 영토였고, 신라가 이를 빼앗자 치열한 분쟁이 있었음은 다 아는 일이다. “沃沮·不耐·韓獺之地”로 표현되는 신영토는 진흥왕대 확보한 뒤 몇 차례 변동이 있었지만, 7세기 들어 隋가 고려와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급기야 전쟁에 돌입하던 틈을 타서 신라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수당과의 외교무대에서 신라의 신영토에 대하여 고구려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⁷⁾

【사료 5】

- ① 新羅國, 在高麗東南, 居漢時樂浪之地....兼有沃沮不耐韓獺之地. (『隋書』81, 新羅傳)
- ② 高驪記曰, 今高[驪]國兼有朝鮮·穢貊·沃沮之地也. (『翰苑』蕃夷部 高麗)

6) 李康來, 1998, 「7세기 이후 중국 사서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한국고대사학회, 212~220쪽.
 7) 「蓋蘇文謂玄獎曰 高麗新羅 怨隙已久 往者隋室相侵 新羅乘釁奪高麗五百里之地 城邑新羅皆據有之 自非反地還城 此兵恐未能已 玄獎曰 既往之事 焉可追論 蘇文竟不從」(구당서 199上 고려전)

【사료 5】는 “沃沮·不耐·韓獺之地”를 두고 고구려와 신라가 서로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이 사서에 그대로 남아있다. ①은 7세기 초 隋代에 사절에 의해 전해진 것이고, ②의 「高麗記」는 640년 당의 陳大德이 고구려에 사신 와서 傳聞한 내용이다. “沃沮·不耐·韓獺之地”가 자신의 소유임을 표명한 주장을 담고 있다.

‘韓獺之地’를 비롯한 옛 朝鮮(樂浪)의 땅에 대한 영토 표방은 단지 정복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신라가 고구려에 이어 韓獺之地와 함께 옛 朝鮮(樂浪)을 계승하였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고조선→한군현→고구려를 이어 신라가 동방의 새로운 지배자임을 자임한 동시에, 華夷論에 입각한 신라의 독자적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V. 맺음말

후한 말 ‘韓獺’의 출현으로부터 「광개토왕능비」의 ‘新來韓獺’ 그리고 『수서』에 신라가 표방한 ‘韓獺之地’까지 표현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삼국지』 한전의 ‘韓獺’는 일정 공간의 거주민을 지칭하는데서 시작되었지만, ‘韓獺之地’라는 지역 개념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도 한반도 중부 지방의 전략적 가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東夷세계의 支配者라는 명분의 실제적 증표로 기능하였다. 「광개토왕능비」와 『수서』 신라전의 ‘新來韓獺’와 ‘韓獺之地’의 획득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는 7세기 중엽 ‘韓獺之地’에 대한 확고한 지배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공간인식을 연출한 듯하다. 곧 강원도 영서지역에 해당하는 “竹嶺以北 高峴(鐵嶺)以內”의 10郡 지역과 동해안의 영동지역을 합쳐, 圖上 ‘穢貊國’으로 간주한 듯하다.⁸⁾

【보론 : ‘예맥’ 표기의 변화】

중국 주변 이민족 칭호의 하나인 獺와 貊은 중국 선진시기 고문헌에서 확인된다.⁹⁾ 貊(貉)은 춘추전기 『詩經』(魯頌 閟宮)에 보이는 ‘淮夷蠻貊’이 처음이다. 같은 시기 청동 金文에도 맥의 군장을 지칭하는 ‘貉子銘’이 보인다. 처음에는 방위 구분 없이 이민족의 범칭(胡貊·蠻貊·夷貊·越貊 등)으로 쓰였지만, 戰國期에 들어 조와 연의 북방진출에 따라 새로운 이민족의 존재를 알게

8) 「東見倉海君...括地志云, 穢貊, 在高麗南新羅北, 東至大海, 西」(『史記正義』55, 留侯世家)

9) 선진대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예맥에 대한 논고로는 다음의 것이 유용하다.

吉本道雅, 2008, 「中國先秦時代の貊」,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47, 京都大學文學部.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되면서 胡는 흉노의 專稱으로, 貉(貉)은 동북방 이민족(北貉)의 이름으로 고정되었다.¹⁰⁾ 전한이 전 저술로 알려진 『爾雅』(釋地, 八狄) 疏에 인용된 후한대 李巡의 설에 北方五狄의 하나로 흉노와 더불어 ‘濊貉’이 들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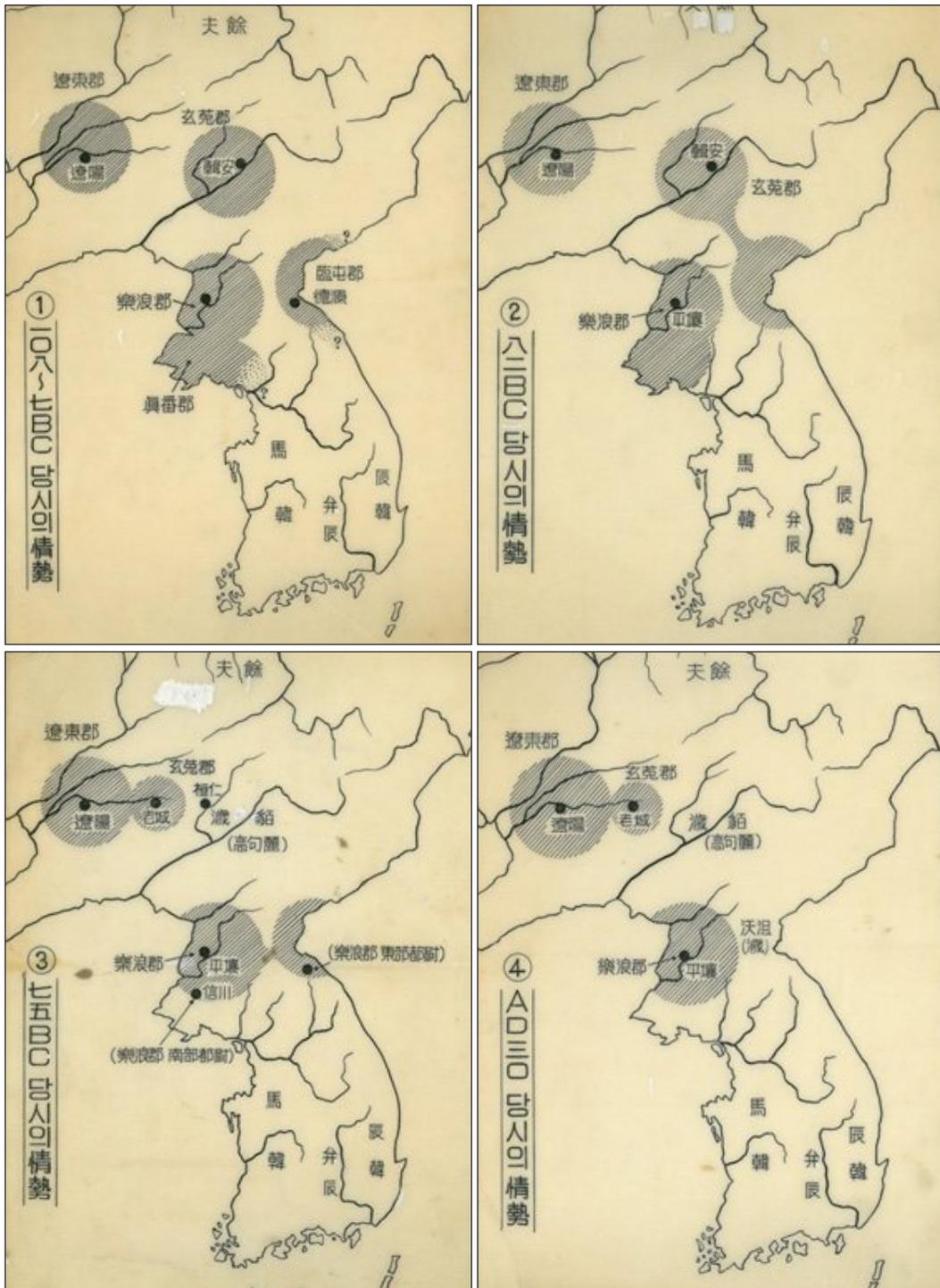
반면 濊(濊)는 맥보다 훨씬 늦은 戰國末에 나온 『呂氏春秋』의 ‘夷濊’, 전한초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逸周書』의 ‘濊人’이 전부일 정도로 제한적으로 확인되는데, 발해 동쪽의 주민집단을 가리키는 구체성을 보이고 있다.¹²⁾ 곧 夷濊의 경우, 그 위치를 북쪽 바닷가의 동쪽(北濱之東, 夷濊之鄉)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쪽 바닷가란 渤海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전한이후 동북방에 대한 중국왕조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맥에 대한 명칭과 표기도 달라진다. 우선 濊(濊)와 貉(貉)이 결합한 濊貉(濊貉)이란 표현이 보편화되었다. 예와 맥 어느 하나를 쓰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예맥의 줄임말에 지나지 않았다. 『三國志』에 夫餘의 창고에 ‘濊王之印’이 남아있고, 그 王城을 ‘濊城’이라 불렀음에도 ‘蓋本濊貉之地’라 하거나, 濊傳에 시중 濊民·嶺東濊·不耐濊侯(王)의 단칭만을 쓰고 있지만, 그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와 옥저의 지리지에서는 예를 모두 濊貉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본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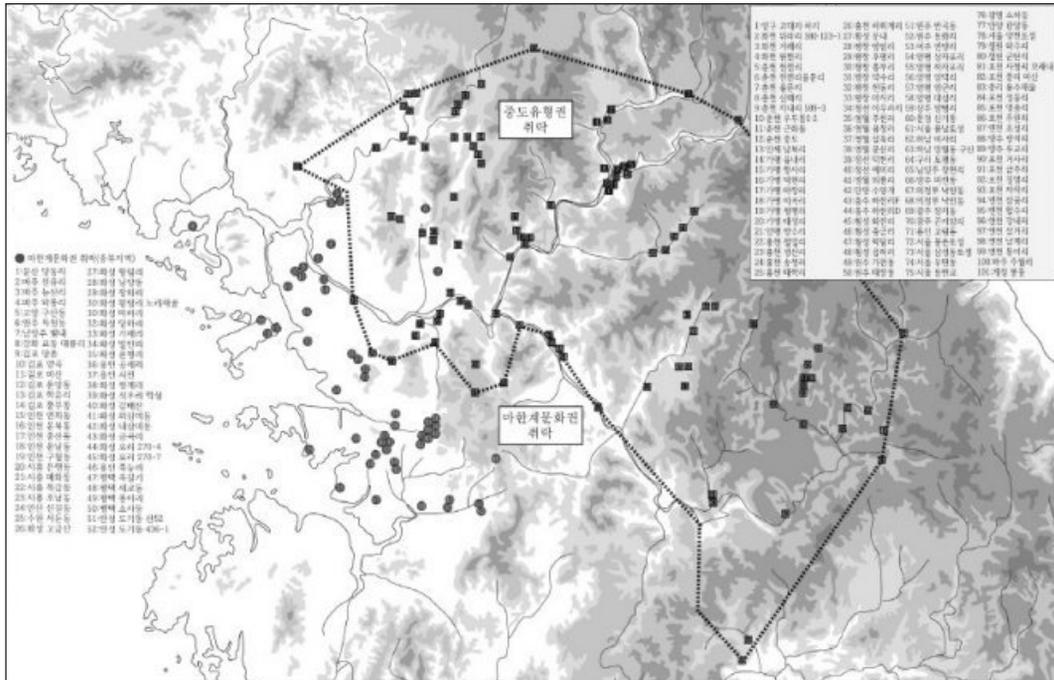
물론 부여·동옥저·동예의 경우 濊가 더 많이 쓰였고, 고구려의 경우 貉의 사용 빈도가 높다. 그렇다고 종족과 지역을 구분한 것이 아니었다. 부여의 ‘濊貉之地’나 고구려·옥저 남쪽으로 ‘濊貉’과 접해 있다는 표현처럼 지명으로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貉’字는 『한서』왕망전의 ‘貉人犯法’이나, 『삼국지』동옥저전의 ‘夷貉所侵’처럼 蔑稱의 의미가 강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맥계 주민집단 스스로도 貉(貉)의 사용을 忌避했다는 견해도 있다.¹⁴⁾ 이 때문에 한자 표기에서도 蔑·濊·獫 보다는 ‘濊’字를 선호한 듯하다. 곧 진한대 ‘蔑·濊’→ 위진대 ‘濊·獫·濊’→ 남북조 이후 ‘濊’字로 변하였으며, 連稱으로 쓸 때도 濊貉·蔑貉 → 獫貉 → 濊貉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구분	한대		위진남북조		당송	
	전한	후한	위진	남북조	당	송
蔑貉						
濊貉						
獫貉						
濊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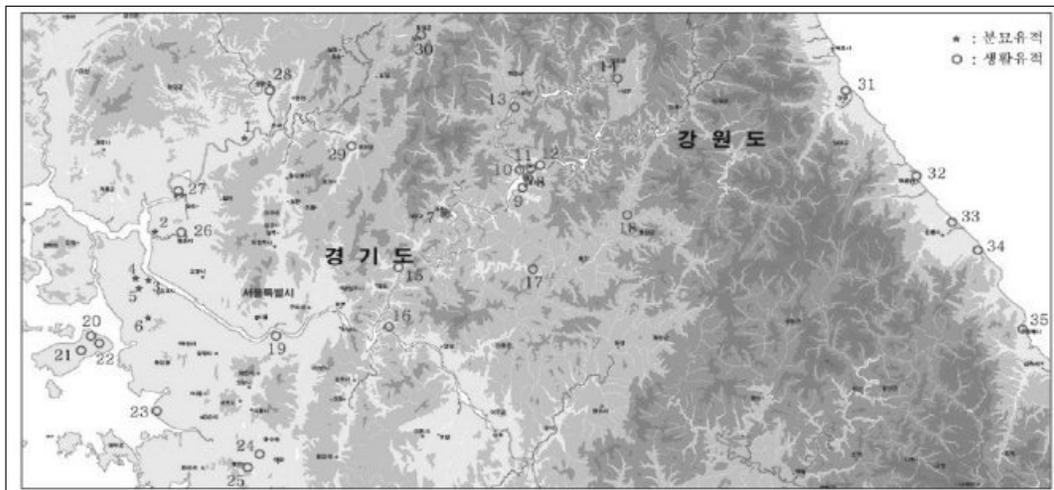
10) 吉本道雅, 2009, 「濊貉考」,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48, 京都大學文學部, 1쪽.
 11) 「九夷八狄七戎六蠻, 謂之四海者...狄者...其類有五, 李巡云, 一曰月支·二曰濊貉·三曰匈奴·四曰單于·五曰白屋, 案李巡所注爾雅, 本謂之四海下更三句云, 八蠻在南方, 六戎在西方, 五狄在北方...」(『爾雅注疏』6, 釋地 野疏)
 12) 박대재, 2013, 앞의 책, 199쪽.
 13) 「高句麗...南與朝鮮·濊貉,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東沃沮...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貉接」(『삼국지』30, 동이전)
 14) 吉本道雅, 2009, 위의 논문, 28쪽.



〈그림 1〉 한군현의 변천(BC108~AD30) (千寬宇 1972, 217쪽 圖 18)



<그림 4-1> 중도유형 및 마한계 취락분포도(박경신 2018, 51쪽 도면 3)



<그림 1> 중부지역 낙랑(계)유물 분포도

1. 연천 학곡리 2. 파주 갈현리 3. 김포 운양동 4. 김포 양곡 5. 김포 양촌 6. 인천 연회동 7. 가평 달천리 8. 춘천 우두동 9. 춘천 근화동 10. 춘천 신매리 11. 춘천 읍문리 12. 춘천 천전리 13. 화천 거례리 14. 양구 고대리 15. 가평 대성리 16. 양평 양수리 17. 홍천 하화계리 18. 홍천 철정리 19. 풍납도성 20. 인천 운북동 21. 인천 운남동 22. 인천 운서동 23. 시흥 오이도 24. 화성 기안리 25. 화성 당하리 26. 파주 와동리 27. 문산 당동리 28. 연천 강내리 29. 포천 급주리 30. 철원 와수리 31. 양양 가평리 32. 강릉 교항리 33. 강릉 초당동 34. 강릉 안인리 35. 동해 송정동

<그림 4-2> 중부지역 낙랑(계)유물 분포도(권도희 2017, 141쪽 그림 1)

참고문헌

- 金起燮, 1991, 「《三國史記》百濟本紀에 보이는 樂浪과 靺鞨의 位置에 대한 재검토」, 『淸溪史學』 8, 청계사학회.
- _____, 1997, 「4세기경 백제의 人口와 주민구성」, 『京畿史論』 8, 청계사학회, 9~33쪽.
- _____, 2005, 「百濟의 北方 經略과 郡縣故地」, 『한성백제 사료 연구』, 207~221쪽.
- 金俞禹, 1995, 「蓋馬大山과 單單大嶺에 관한 고찰-沃沮의 위치문제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18, 한국고전번역원, 150~197쪽.
- 김일규, 2009, 「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시대 전기 취락」, 『加平 大成里遺蹟(본문 2)』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학술조사보고 103, 163~170쪽.
- 余昊奎, 2009,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高句麗 天下의 공간범위와 주변 族屬에 대한 인식」, 『역사문화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3~48쪽.
- 金在弘, 2015,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한국고대사연구』 79, 97~132쪽.
- 金昌錫, 2008, 「古代 嶺西地域의 種族과 文化變遷」, 『한국고대사연구』 51, 5~47쪽.
- _____, 2013, 「예족의 분포와 문화양상」,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8~50쪽.
- _____, 2014, 「4세기 이전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체와 정치변동」, 『고고학』 13-2, 중부고고학회, 31~56쪽.
- _____, 2018, 「백족의 분포와 《삼국사기》 소전 ‘백국’에 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91, 125~156쪽.
- 孔錫龜, 2013, 「《광개토왕릉비》 守墓人 烟戶條의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7, 고구려발해학회, 33~59쪽.
- 권도희, 2017, 「중부지역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고고학』 16-3, 중부고고학회, 137~160쪽.
- 권오영, 2001, 「百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30~55쪽.
- _____, 2009, 「원삼국기 한강유역 정치체의 존재양태와 백제국가의 통합양상」, 『고고학』 8-2, 서울경기고고학회, 31~48쪽.
- 나유정, 2018, 「《三國志》 東夷傳에 나타난 대민지배방식과 民·下戶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90, 5~41쪽.
- 노태돈, 1999,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천하관」,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56~391쪽.
- _____, 2007, 「문헌상으로 본 백제의 주민 구성」, 『百濟의 起源과 建國』(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2),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43~160쪽; 2009,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131~150쪽 재수록.
- 武田幸男, 1979,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新來韓濊諸城の支配形態」, 『東洋文化研究所紀要』 78,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44~54쪽; 同수정개제, 1985, 「〈韓〉〈濊〉地域의 種族支配」,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68~74쪽 재수록.
- 박경신, 2018, 「북한강 상류역 원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 『고고학』 17-2, 중부고고학회, 45~79쪽.
- 朴淳發, 1996,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중도유형문화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1(同수정개제), 「한강유역 백제 기층문화의 전개과정」,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75~85쪽.
- 宋滿榮, 2003, 「中部地方 原三國文化의 展開過程과 韓濊 政治體의 動向」, 『한국고대사의 변경』 강좌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_____, 2010, 「漢城百濟의 成立과 韓濊政治體의 成長」, 『韓半島 中部地域 聚落의 發展과 政治體의 成長』,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2~164쪽.
- 안정준, 2009, 「4~5세기 고구려의 영역 지배」,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6, 「3~4세기 백제의 북방진출과 고구려」, 『근초고왕과 석천동고분군』, 한성백제박물관, 47~74쪽.
- 李道學, 2013, 「《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南方」, 『嶺南學』 2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7~37쪽.

- 李丙燾, 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 4回~5回: 馬韓及辰韓問題」, 『震檀學報』 5권 276~302쪽(4회), 6권 469~490쪽(5회).
- 이승호, 2015, 「〈田丘儉紀功碑〉의 해석과 高句麗·魏 전쟁의 재구성」, 『木簡과 文字』 15, 한국목간학회, 15~40쪽.
- 이정빈, 2017, 「崎離營을 통해 본 마한 諸國과 曹魏」, 『百濟學報』 22, 백제학회, 59~77쪽.
- 李賢惠, 1997, 「3세기 馬韓과 百濟國」,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7~32쪽.
- _____, 2011, 「마한에서 백제로-〈삼국사기〉 온조왕대 기록에 나타난 마한·백제에 대한 인식」, 『백제사람들, 서울 역사를 열다』 한성백제박물관 2011년도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65~89쪽.
-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진의 동방정책」,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33쪽.
- _____, 2005,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백제관련 기사의 검토」, 『한성백제 사료 연구』, 131~151쪽.
- 여호규, 2017, 「고구려와 중국 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한국고대사연구』 88, 165~208쪽.
- 유은식, 2014, 「한반도 북부지방 토기문화를 통해 본 중부지방 원삼국문화의 계통-소위 ‘중도유형문화’를 중심으로」, 『고고학』 13-3, 중부고고학회, 5~43쪽.
- 尹星鎬, 2017,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尹龍九, 1999, 「三韓의 對中交涉과 그 性格」, 『國史館論叢』 85, 국사편찬위원회, 99~126쪽.
- _____, 2005, 「《三國志》 韓傳에 보이는 馬韓國目」, 『漢城百濟 史料 研究』, 경기문화재단, 27~39쪽.
- _____, 2015, 「3세기 이전 마한백제의 성장과 중국」, 『백제의 성장과 중국』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V, 한성백제박물관, 11~65쪽.
- 尹善泰, 2001, 「馬韓의 辰王과 臣濱沽國」, 『百濟研究』 3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37쪽.
- _____, 2005, 「《三國史記》 百濟本紀 초기기사의 樂浪과 靺鞨」, 『한성백제 사료 연구』, 87~98쪽.
- 장창은, 2014, 「광개토왕의 南征과 그 범위」,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55~73쪽.
- 진진국, 2018, 「진한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45~85쪽.
- 鄭昌熙, 2009, 「2~4세기 黃海道地域 古墳 分布 定型의 變化와 意義」, 『嶺南考古學』 48, 영남고고학회, 5~48쪽.
- 趙法宗, 1995, 「廣開土王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4 新來韓滅의 의미와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8, 한국고대사연구회, 224~236쪽.
- 趙智濱, 2018, 「百濟北伐高句麗與北齊文宣帝營州之行」, 『地域文化研究』 2018-2, 吉林省社会科学院, 74~80쪽.
- 千寬宇, 1972, 「韓國史의 潮流: 4回(南北의 古代國家)」, 『新東亞』 97, 동아일보사, 210~244쪽.
- _____, 1973a, 「韓國史의 潮流: 9回(三國時代 5)」, 『新東亞』 103, 202~242쪽.
- _____, 1973b, 「韓國史의 潮流: 12回(統一新羅 下)」, 『新東亞』 108, 168~190쪽.
- _____, 1979, 「廣開土王陵碑文 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일조각; 同수정, 1991, 『加耶史研究』 일조각, 101~155쪽 재수록.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재검토

김 성 태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목 차

- | | |
|-------------------------|---------------------|
| I. 연천 삼곶리 적석총의 구조 문제 | V. 피장자의 종족 |
| II. 남한지역 적석총에 대한 기본적 이해 | VI. 임진강 유역 정치집단의 비정 |
| III. 남한지역 적석총의 계통 | VII. 맺음말 |
| IV. 용어의 문제 | |

최근 정선 아우라지와 광주 곤지암에서 적석총이 발굴되었다. 이들 적석총은 모두 집단묘로 기존에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적석총과는 형식을 달리하였다. 그럼에도 구조와 세부 속성에서 연천 학곡리 적석총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림 1, 2 참조). 어쨌든 적석총 관련 새로운 자료의 등장으로 남한지역 적석총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한편, 발표자는 1993년 연천 삼곶리 적석총을 현장책임자로 발굴을 직접 수행하였고, 2002년 연천 학곡리 적석총 발굴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발굴성과를 토대로 남한지역 적석총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을 시도하여 보고서 고찰 부분에 실었고, 이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렇듯 기존의 견해에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새로운 자료가 최근 발굴되었기에, 발표자의 기존의 견해를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겨났다.

I. 연천 삼곶리 적석총의 구조 문제

연천 삼곶리 적석총은 학술 목적의 발굴이었다. 또 기존의 남한지역 적석총 발굴에 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발굴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장주체부인 묘곽의 형태가 파악되었고 구조도 밝혀졌다. 그런데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또 다른 묘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비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의문은 평면상에 묘곽이 자리할 여유 공간이 있기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그림 4). 또한 최근 발굴된 정선 아우라지와 광주 곤지암 적석총에서 적석부 전체에 묘곽이 조성되었기에 누구나 한번쯤은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다.

그런데 연천 삼곶리에 비하여 묘곽의 윤곽이 잘 드러난 연천 학곡리 적석층에서도 상류 쪽 부분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묘곽이 조성되지 않았다. 즉 동반부의 절반 가량에서 묘곽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연천 삼곶리 적석층의 부가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있지 않을까하여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 어떤 유구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조사단은 일단 묘곽을 비롯한 그 어떤 유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임진강 유역의 적석층의 경우 적석부의 전면에 걸쳐 묘곽을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일단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임진강 유역 적석층의 모본(模本)인 고구려 적석층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이른 시기의 적석층으로 분류되는 집안(集安) 양민(良民) 168호분과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4지구 8호분 둘 다 전체 적석부에 비하여 묘곽이 설치된 부분은 중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 부석시설이 있는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4지구 6호분과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99호분에서도 전체 적석부 중에서 묘곽은 극히 일부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쌍분으로 별도의 묘곽을 조성한 자강도 자성군 송암리 2·3호분에서도 거대한 적석부에서 묘곽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이상의 검토로 연천 삼곶리 적석층이 다곽식일 가능성은 낮으며, 발굴단이 확인하지 못한 또 다른 묘곽이 존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적석부의 폭을 고려할 때 병렬식 묘곽이 존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때, 왜 필요 이상의 적석부를 쌓았는가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확한 답은 없다. 다만 연천 학곡리의 경우 묘곽 부분에 비하여 해당 부분의 적석에 사용된 강돌의 크기가 대형인 점, 적석의 두께도 매우 두텁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이 급류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류 쪽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층석과 마찬가지로 수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¹⁾

한편, 강현숙은 연천 삼곶리의 형식을 기단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한지역 적석층에서 기단적석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²⁾ 그런데 부석시설과 연결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단이 형성되어 있고,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부석시설과 묘곽 적석부 사이를 평탄하게 하고, 그 위에 대형의 석재를 놓은 다음, 그 위로 강돌을 쌓아 올려나간 흔적을 동분

1) 문제는 이런 판단에 도달할 때, 왜 전술한 정선 아우라지와 광주 곤지암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지리적 차이 때문이라 답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임진강은 현무암대지를 흐르는 하천이다. 그러므로 강폭이 좁아서 폭우 시 일순간에 강물이 불어나 배후습지는 물론 자연제방도 쉽게 침수된다. 이런 까닭에 적석층의 일부분을 두텁게 하여 강물에 의한 묘역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적석부의 중간 부분만 묘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 강현숙, 2005, 「서울 지역 적석층에 대하여」, 『향토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04쪽.

의 북변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뚜렷한 기단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석부 전체에 걸쳐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무너져내린 점을 감안할 때³⁾, 원래 기단식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연천 삼곶리 적석총의 경우, 경계부를 중심으로 동분과 서분으로 구별되는 양곽식으로 파악했는데, 이와 유사한 경계부가 학곡리 적석총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적석부 전체를 양분하는 중심축이 확인되었고 이를 경계로 상류쪽으로 1·2·3호가 조성되었고, 하류 쪽으로 4호와 기타 멸실된 유구들이 배치되었다. 또 광주 곤지암 적석총에서도 장축 중심축을 따라 무덤들이 양분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적석총의 축조 시 1/2 혹은 1/3 등과 같이 구획을 한 다음 묘역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연천 삼곶리 적석총과 연천 학곡리 적석총의 발굴 당시, 하천변에는 적석총의 무덤들과 동일한 석질과 크기의 강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에 적석총 축조를 위한 무덤들의 확보는 용이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발굴 이전에 적석부의 훼손이 심했던 이유는 군부대 등에서 공사용 석재를 채취해 간 까닭이라 추측된다.

II. 남한지역 적석총에 대한 기본적 이해⁴⁾

남한지역 적석총은 크게 임진강 유역권, 북한강 유역권, 남한강 유역권, 한강 하류권으로 대별된다. 이외에도 공주 송산리와 청양 벽천리에서도 적석총이 보고되었으나 주요 분포권에서 벗어나 있다.

임진강 유역권에는 연천 삼곶리 1기, 연천 학곡리 1기, 연천 우정리 2기, 연천 선곡리 1기, 연천 횡산리 1기, 연천 동이리 1기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북한의 개성시 장풍군 장학리에서 1기가 보고되었다.⁵⁾ 이 중에서 연천 삼곶리, 연천 학곡리, 연천 횡산리, 개풍 장학리 적석총만이 정식발굴조사를 거쳐 그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입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실은 하천 유역의 충적대지에 자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영남지방과 충청지역의 고분군이 대하천 유역뿐만 아니라, 그 지류인 소하천 유역의 구릉상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점과 대조된다. 그리고 군집형태로 밀집분포하는 한강 유역권을 제외하고는 강

3) 서쪽 부분이 특히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로에서 무덤으로 접근하는 진입로에 해당된다. 군부대에서 서분의 묘역은 물론 수행방지를 위한 적석부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동분이 서분보다 잘 보존되었다고 판단된다.

4) 편년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글을 약간 수정하여 옮겼다.

金性泰, 2002, 「백제적석총의 역사고고학적 성격과 그 의미」, 『기전고고』 2, 기전문화재연구원.

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6, 「장학리 적석무덤」, 『조선유적유물도감』 20.

안의 층적대지상에 전망이 탁월한 곳을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입지하는 특징이 있다.⁶⁾

현재까지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묘곽의 구조가 정확히 드러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천 학곡리 적석총·연천 삼곶리 적석총·개성 장학리 적석총 등에서 하천석을 이용하여 묘곽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벽체를 축조할 때에 중간 중간에 세운돌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이며, 학곡리 적석총의 경우에는 벽체의 하단부에 보강석을 덧대거나 세운 흔적이 확인된다.

한편, 외형구조에서는 층석과 부석시설이 주목된다. 층석은 자연사구 전체에 걸쳐 시설되지 않고, 강쪽에만 한두겹으로 천석을 깔아 돌린 점으로 미루어 수해방지용 시설로 파악된다. 부석시설은 연천 삼곶리에서 확인된 것으로 묘곽의 바닥면과 비슷한 레벨에 한두 겹의 돌을 편평하게 깔아서 만든 것으로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진 제의공간으로 파악된다.⁷⁾ 이런 부석시설은 고구려 적석총에서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⁸⁾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형식은 외형에 따라 무기단식·기단식·방단계단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부구조에 따라 다곽식·양곽식·단곽식으로 구분된다. 외형과 내부구조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무기단식은 다곽식, 기단식은 양곽식, 방단계단식은 단곽식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정식발굴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일반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식발굴이 이루어진 연천 학곡리 적석총이 무기단 다곽식, 연천 삼곶리 적석총이 기단 양곽식, 개성 장학리 적석총이 방단 단곽식이어서 크게 3가지 형식이 존재했고, 무기단식 다곽식→기단 양곽식→방단 단곽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은 임진강 적석총의 모본인 고구려 적석총의 형식 발전과 일반적인 묘제의 발전 양상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 생각된다(그림 7, 8, 9).

연대는 대략 무기단식은 2세기대, 기단식은 3세기대, 방단계단식은 4-5세기대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무기단식과 기단식의 편년은 가평 대성리유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설정하겠다. 가평 대성리유적은 원삼국후기의 주거지 43기가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었고, 상대편년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절대연대도 제시되어 있다. 어쨌든 보고서에서는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를 공반하지 않는 주거지는 3세기 전반, 그렇지 않은 모든 원삼국시기 주거지는 2세기대로 편년하였다. 한편, 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철촉은 모두 무경식으로, 후속 형식인 단경유엽형은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가평 대성리유적의 편년을 참고하여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편년을 대략적으로 설정해

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연천 삼곶리 백제 적석총』, 53-61쪽.

7) 위의 보고서

8) 이동희, 1995, 「남한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적석총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51-52쪽.

보자. 우선 학곡리 적석총의 편년과 관련해서는 1호묘 출토 호형의 낙랑토기(그림 11)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호형토기는 동벽 아래 중앙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였는데, 동체 외면에는 상위와 중위에 각각 9조와 6조의 횡침선이 둘러져 있으며, 중위 아래에는 세승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흡사한 토기가 대성리 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그림 12). 상위에 10조, 중위에 5조 횡침선을 돌리고 하위에 중위와 하위에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승문타날을 하였다. 이렇듯 상기 두 토기는 문양 구성이 매우 흡사하므로 제작 연대를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성리 5호 주거지의 연대가 2세기 3/3분기로 편년된 사실에 의거할 때, 학곡리 1호묘의 편년은 일단 2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겠다.

기단식의 편년은 삼꽃리 적석총에서 출토된 단경유엽형 철축 2점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그림 10). 이들 화살촉은 모두 단경(短頸)의 유엽형 철축으로 축두가 납작하고 그 단면이 다소 편평하며, 목과 축두의 구별이 가능하기는 하나 뚜렷하지는 않다. 이런 철축 형식은 단경유엽형 철축 중에서도 이른 형식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전형적인 단경유엽형의 철축은 일반적으로 독사머리형이라 일컫는 형식으로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릉형·블록렌즈형으로 되어 있어 축두가 두텁고 무게가 상대적으로 납작형에 비하여 무겁다. 또한 목도 축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좀더 발전한 형태이다. 이런 사실은 연천 삼꽃리 적석총에서 확인된 2점의 철축이 적어도 4세기대의 고분시대 철축보다는 선행하는 형식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그 제작시기 역시 적어도 3세기 전반 혹은 후반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가평 대성리유적의 2세기대 주거지에서 무경축만이 출토된 점을 감안하면, 위의 편년 설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계단식은 개성 장학리 적석총의 구조를 통하여 대략적인 편년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 적석총의 축조에 강돌과 함께 막돌을 사용한 점, 평면형태가 4각형으로 비교적 정연한 점, 기단 부분에 판석을 세워 둔 점 등으로 미루어 삼꽃리 적석총보다는 후대에 조성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승석문 토기가 출토된 사실은 5세기 후반을 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심연대는 일단 4세기대로 설정해 둘 수 있다.

이런 분포와 형식 발전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임진강의 상류로 가면서 늦은 시기의 형식이 출현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분석대상이 단지 3기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역사고고학적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발표자는 백제의 영역 확대와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Ⅲ. 남한지역 적석총의 계통⁹⁾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백제의 건국주체를 고구려계로 보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부여계로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런 한편, 남한지역 적석총의 축조집단을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갈(靺鞨), 즉 예계(濊系)집단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¹¹⁾

이런 상반된 주장들에 대하여, 발표자는 남한지역 적석총의 계통을 고구려 적석총으로 파악하고, 그 축조세력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기록을 신뢰하여 고구려유이민 집단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주장의 고고학적, 문헌사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한지역 적석총은 유적의 입지에서 대하천의 중상류에 발달한 충적대지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구려 적석총이 압록강 중하류 및 혼강 본류와 지류에 집중 분포하는 점과 상통한다.¹²⁾ 그리고 이런 입지적 특성은 동시기의 영남지역과 충청지역의 토광묘의 입지와는 극명히 대조되는 점일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역의 주구토광묘의 입지와도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둘째로, 무덤의 축조재료로 나무가 아닌 강가의 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소위 원삼국시기로 일컬어지는 삼국시대 전기에 돌을 재료로 하여 묘곽과 봉분을 만든 묘제는 고구려적석총이 유일하다. 이런 묘제가 한반도 중부와 남부지역 중에서 중부지역에서만 나타나고, 그것도 한강·임진강 유역에서만 확인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역시 동 시기 낙랑의 고분이 귀틀무덤과 전축분이 기본이고, 부여를 비롯한 신라·가야, 그리고 마한의 무덤이 목관묘와 목곽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할 때, 백제지역에서 적석총의 축조는 특기할 만한 사실이며, 이는 그 계통을 고구려적석총에 돌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셋째로, 매장주체부의 위치이다. 매장주체부를 지상에 두느냐, 지하에 두느냐는 기능적인 배려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축조집단의 신화와 매장풍습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지상식 매장풍습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부여-고구려계의 풍습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지역 적석총에 나타나는 지상식 매장주체부는 고구려의 매장풍습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축조집단의 종족적 배경이 고구려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시사해 준다.¹³⁾

9) 아래의 글을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옮겼다.

金性泰, 2002, 앞의 글.

10)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1) 朴淳發, 2001,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137-139쪽.

12) 이는 고구려의 지명에 주로 등장하는 那가 강가와 계곡에 자리잡은 지역집단을 의미한다는 언급과 무관하지 않다. 여호규, 2000,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한국고대사연구』17, 서경문화사, 139쪽.

13) 고구려와 동일한 예맥계에 속하는 부여지역의 묘제가 지상식이 아닌 지하식의 목곽묘인 사실은 부여가 정치·문화적으로 이미 漢문화에 동화되어, 고유의 매장풍습이 변질된 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장법(葬法)에서 집단묘의 한 형태인 연접묘(連接墓)가 확인되는 사실이다.¹⁴⁾ 연천 학곡리 적석총에서 적어도 최소한 4기의 묘곽이 연접하고 있는 사실은 우산하 3233호를 비롯한 고구려적석총의 묘제에서 그 아이디어를 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의 만들어진 묘곽의 벽체 외면에 덧대어 묘곽을 조성하는 속성마저도 고구려적석총의 그것을 충실히 답습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연천 삼곡리 적석총과 연천 학곡리 적석총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로, 백제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의 아류임을 확실히 입증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로, 후장(厚葬)보다는 박장(薄葬)을 기본으로 하고, 묘곽뿐만 아니라 적석부와 그 주변에 유물을 매납하는 방식도 고구려적석총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는 묘곽 내에만 유물을 집중 매납하고 후장을 기본으로 삼는 부여, 낙랑, 마한 및 신라·가야의 매납 풍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점이다.

여섯째로, 무덤양식의 변천과정 또한 동일한 사실이다. 즉 무기단→기단→방단계단식으로 이어지는 외형의 축조방식 역시 양 지역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동일한 구조형식을 보인다는 사실은 남한지역 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축조되었으며, 그 아이디어의 수용 역시 지속적이었다고 판단케 한다.

일곱째로, 제의공간으로 추정되는 부석시설의 존재이다. 부석시설은 연천 삼곡리 적석총에서 확인되었는데, 고구려지역에서는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제4지구 6호분을 비롯하여 송암리 제 1호분, 송암리 1지구 33호, 45호, 56호, 88호, 106호 등의 적석총에서 확인되었다.¹⁵⁾ 이런 제의공간의 존재 역시 남한지역 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의 부대시설까지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덟째로, 한 묘곽 내부와 묘역에 깨뜨린 토기나 구슬이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도¹⁶⁾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종족의 습속과 연결될 수 있다.¹⁷⁾ 고구려적석총의 경우에도 유물이 묘곽 내보다는 묘역에서 발견되는 예가 일반적이고, 또 유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매납하는 풍습이 보고되어 있는 바, 이 역시 남한지역 적석총의 유물부장풍습과도 연결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속성에서, 남한지역 적석총의 계통

14) 강현숙, 2000, 「고구려고분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38-39쪽.

15) 이동희, 1995, 앞의 글, 51-52쪽.

16) 학곡리적석총에서는 묘곽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모두 완형이 아니었고, 묘역주변에서 구연부편들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특히 이들 구연부편들이 갈색마연으로 고구려계 토기의 영향이 인정된다. 그리고 삼곡리적석총에서는 적석부와 묘역주변에서 구슬이 산발적으로 수습되었다.

17) 강현숙, 2003, 「고고학에서 본 4·5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성장(토론요지)」, 『가야와 광개토대왕』, 제9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토론 요지문, 김해시, 80쪽.

이 고구려적석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¹⁸⁾ 이와 같은 결론을 유물을 통하여 더욱 보강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으로, 임진강·한강유역의 적석총이 고구려적석총에 그 계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런 고고학적 분석은 비류국 송양왕이 주몽과의 투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정치적 갈등을 겪은 온조계집단이 졸본지역에서 남하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¹⁹⁾ 또한 『양서(梁書)』 백제조에 백제의 언어와 법속이 대체적으로 고구려와 같다는²⁰⁾ 문헌기록과, 남한지역 적석총이 분포하는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 흘계지명(忽系地名)이 많고, 이런 ‘홀(忽)’은 고구려 지명의 특징적인 어미(語尾)라는 연구 결과²¹⁾ 역시 남한지역 적석총의 고구려적석총기원론을 더욱 방증해 준다.

주지하듯이 문화요소에서 가장 보수성이 강하고 종족적 색채가 강한 것이 묘제와 언어이다. 이런 두 가지 요소에서 일치점이 확인되므로 양 지역사이의 문화적·종족적 동일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임진강·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적석총의 피장자는 고구려유이민이라는 견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백제건국의 주체가 온조집단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유이민이라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남한지역 적석총의 계보가 고구려 적석총에 있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이들 적석총의 축조집단이 “말갈”로 표기된 예계(濊系)이고, 그들이 활동영역을 임진강유역과 한강 중상류로 파악하는 견해²²⁾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말갈과 예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삼국지』에는 중국 후한대의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치하에 한(韓)과 예(濊)가 강성해져서 낙랑군이 능히 통제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²³⁾ 즉 기원후 146년에서 188년까지 한과 예가 낙랑군이 쇠약해 진 틈을 타서 강성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이 시기의 말갈은 그 군사활동이 가장 침

18) 물론, 백제적석총이 고립적으로 분포하는 점, 단구성층적지의 모래언덕 위에 축조된 점, 그 축조재료가 자연석인 강돌인 점, 묘곽의 바닥면의 위치가 기단의 상면에 있지 않고 지표면에 있는 점 등은 고구려적석총의 속성들과 차이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유이민 집단이 갖는 정치사회사적 특수한 상황, 자연환경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변형된 속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일부 속성에서의 차이가 백제적석총의 고구려적석총 기원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19)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61쪽.

20) 『梁書』卷54 百濟條
“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21) 金芳漢, 1983,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110-114쪽.

22) 박순발, 2001, 앞의 책, 137-139쪽.

23) 『三國志』卷30 馬韓條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제한 시기이다.²⁴⁾ 만약 예=말갈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이 시기에 말갈의 군사활동은 가장 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 시기에 말갈은 신라와 백제에 대한 침략을 전혀 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말갈은 예와는 다른 실체임을 분명하게 입증한다.²⁵⁾ 오히려 상기 기록은 낙랑 주변의 한과 예가 강성해지니, 바로 말갈의 군사활동이 정지된 사실을 전한다. 따라서 『삼국지』의 예는 말갈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정치세력으로 파악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삼국사기』에 말갈은 기동력을 지닌 군사집단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지』 예조(濊條)에서 그들의 성질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진실하며 욕심이 적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보전에 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⁶⁾ 이는 비호전적이며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전에 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동력을 장기로 하는 말갈이 예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정치체의 성격에 대한 양 기록 사이의 모순도 지적할 수 있다. 『삼국지』에 예에는 대군장(大君長)이 없다고 하였으며 위(魏)로부터 불내예왕(不耐濊王)으로 책봉 받은 군장이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았다고 하는데,²⁷⁾ 과연 예의 군장이 기리영 공격시 주도적인 위치를 지닐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²⁸⁾ 이런 사실 역시 예를 말갈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만약 말갈이 경기북부지역을 그들의 영역으로 삼았다고 하면, 임진강 유역으로 비정되는 칠중하(七重河)를²⁹⁾ 말갈이 공격한다는 일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 즉 말갈이 자기영역인 임진강 유역의 칠중하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활동영역을 임진강유역과 한강중상류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우선 예가 경기북부지역을 그들의 영역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역이 서쪽으로는 바다(海)를 경계로 삼았다고 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³⁰⁾ 있는데, 이 역시 임진강 유역을 예의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또 예가 경기북부지역을 차지하였다고 한다면, 『삼국지』에서 한이 대방의 남에 위치한다거나 『후한서』에 북으로 낙랑과 접하고 있다는 기록도 문제가 된다. 결국 예의 영역을 경기북부지역으로 획정하면, 동이전의 기본적 구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24) 말갈은 祇摩尼師今 49년(125년)부터 逸聖尼師今 9년(142년)에 신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을 마지막으로 2세기대에는 백제와 신라에 대한 어떤 침략도 감행하지 않고 있다.

이강래, 1985,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군사활동, 『영토문제연구』2.

25) 『삼국유사』 권1 제1 기이 마한 조의 기록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 즉 “해동안흥기(海東安弘記)에 이르기를 ‘9한이란 것은 1. 일본(日本), 2. 중화(中華), 3. 오월(吳越), 4. 탁라(毛羅), 5. 응유(鷹遊), 6. 말갈(靺鞨), 7. 단국(丹國), 8. 여진(女眞), 9. 예맥(濊貊)이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말갈과 예는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26) 『삼국지』 권30 예조.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其人性慤慤少嗜欲…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27) 『삼국지』 권30, 예조.

“無大君長…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28) 김병곤, 2002, 『임진강유역 적석총의 제문제』, 『임진강유역의 고대사회』, 57쪽.

29) 이강래, 1985, 앞의 글.

30) 김병곤, 2002, 앞의 발표문, 57쪽.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조에서는 춘천의 위치를 《古今郡國志(고금군국지)》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동남쪽, 동예의 서쪽에 위치하며 옛날의 맥(貊)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³¹⁾ 여기서 고구려의 동남쪽에 맥(貊)이라는 정치세력이 있었고, 그 영역은 예(濊)의 서쪽이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삼국지』에서의 예의 강역은 동해안 일대의 영동지역에 한정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예계를 말갈로 보는 시각은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부정된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적석총을 예계의 무덤으로 볼 때에, 예의 본거지인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동해안지역에서 적석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중대한 모순이 노출된다. 더욱이 『삼국지』 예전에서 예는 주옥(珠玉)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³²⁾ 적석총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장신구는 구슬이다. 이 사실 역시 경기북부지역의 적석총을 예계의 무덤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요컨대, 경기북부지역을 예의 영역으로 보고, 그 예의 구체적인 실체가 말갈이라는 견해는 전면적으로 재고를 요한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의 적석총을 예계의 무덤양식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

IV. 용어의 문제

이쯤에서 잠시 남한지역 적석총의 용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 분야연구자들은 서울 석촌동고분군은 적석총이라 부르면서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는 즈석묘, 즈석총, 즈석식 적석묘, 적석묘, 적석분구묘 등이라 하면서 석촌동 고분군과는 구별코자 하는 경향이 짙다.

여기서 즈석(葺石)이란 용어의 부적합성은 발표자가 일찍이 지적하였다. 연천 삼곶리 발굴을 통하여 즈석 자체가 수해방지용일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최근 발굴된 정선아우라지 적석총과 광주 곤지암 적석총에서 즈석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즈석식’이란 용어가 남한지역 적석총을 통칭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한편, 분구묘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남한지역 적석총의 대부분은 자연사구를 이용하여 그 상면을 정면하고 그 위에 적석하여 무덤주체부를 만들었다.³³⁾ 또 한국 고고학에서 분구란 개념에는 인위적

31)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조.

"朔州 賈耽 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32) 『삼국지』 권30 예조.

"不以珠玉爲寶."

33) 연천 횡산리 적석총은 발굴 전 적석부가 거의 완전히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 때문에 제대로 된 유구와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자연사구의 상면을 평탄하게 처리하고 그 위에 적석부를 조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으로 조성한 무덤의 봉분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분구묘’로는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적석총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

아울러 굳이 적석총 대신 적석묘로 불어야 할 당위성도 약하다. 조선시대를 포함한 한국의 묘제에서 ‘묘(墓)’는 피장자가 밝혀진 사대부와 일반인의 무덤을 가르킨다. 이에 비하여 피장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분(墳)이라 일반적으로 부른다. 따라서 적석묘보다는 적석분이 더 적합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어는 사회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할 때, 지금까지 줄곧 사용해 온 적석총을 적석분으로 꼭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편, 앞에서 살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남한지역 적석총은 고구려 적석총에서 파생한 것이다. 그렇다고 고구려계 적석총이라 명명함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리라면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은 한성기의 타날문토기를 낙랑계토기로 불려야 하고, 중국의 벽화석실분에 기원을 둔 고구려벽화고분은 한식계 벽화고분으로 해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은 용어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등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기 ‘고구려계 적석총’이란 용어가 유용하려면, 계통론을 목적으로 형식 분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즉 백제계 적석총, 신라계 적석총 등이 있을 때 그나마 형식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고고학에서 고구려계 적석총이 확인되는 지역은 남한지역의 임진강·남한강·북한강 유역에서만 확인된다. 이에 굳이 고구려계적석총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백제의 묘제를 논의하면서 적석총이라는 묘제 한 형식을 차지하고, 그 계통이 고구려 적석총에 있다고 서술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굳이 하나의 형식명칭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원칙상 형식은 하나의 분류 체계 내에 포섭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기본 원칙에 입각할 때 ‘고구려계 적석총’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필자는 임진강·북한강·남한강에서 확인된 고구려계 적석총을 ‘백제 적석총’이라 명명한 기존의 견해를 견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최성기 한성백제의 영역과 기본적으로 겹치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도 고고학적으로 백제문화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입장은 백제적석총이 전형적인 백제주거지인 여자형·철자형 주거지와 함께 확인되는 사실로도 옹호된다. 그리고 상기 주장은 연천 삼곶리 유적과 광주 곤지암 적석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 지역내에서 적석총과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는 백제주거지이고 무덤은 말갈무덤, 예계 무덤, 혹은 고구려계 무덤일 수 없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더 나아가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이 말갈 무덤이라면 그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말갈토기 혹은 예계토기여야 하는데,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백제고고학의 기존 용어와의 충돌을 피하고 통일성을 도모하려면, 남한지역 적석총을 ‘백제적석총’이라 명명(命名)함이 옳다고 본다. 이럴 경우 백제적석총은 우리나라 위로는 ‘한국의 적석총’의 한 형식이 되고, 그 아래 하위

형식으로는 예컨대 한강본류형, 임진강유역형, 북한강유역형, 남한강유역형 등을 둘 수 있고, 또 계통이 서기 때문이다. 또 백제고고학의 하위형식으로 백제주거지, 백제토기, 백제가마 등과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2세기 후반 이후 임진강 유역의 소국은 한강본류의 백제국과 정치적 연대를 맺거나, 그들 중심의 백제연맹체에 속했고 결국에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에 자리했던 마한 소국들도 백제 초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만을 백제 고고학에서 제외시켜 별도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을 비롯한 남한지역 적석총을 백제적석총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V. 피장자의 종족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을 비롯하여 남한지역이 적석총의 피장자를 예인(말갈족)으로 본 견해는, 예인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동예 지역에서 현재까지 적석총이 1기도 발굴 보고된 바 없고, 또 3-5세기 대 말갈의 무덤으로 보고된 적도 없는 점으로 부정될 수 있다. 즉 근본적인 전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본질이 없는 파생’인 것이다.

그럼 그 피장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고구려계의 맥인(貊人)으로 보고자 한다. 이런 결론은 다음의 순차적인 검토로 설명된다.

우선, 남한지역의 적석총의 계통이 고구려 적석총에 기원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살폈듯이 토광묘의 목관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석재로 묘곽을 축조한 점, 매장주체부가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자리하는 점, 무덤의 입지가 구릉이 아니라 충적대지의 자연제방의 최고점에 자리하는 점, 초기형식이 무기단식에서 연접식 다곽식인 점 등으로 쉽게 입증한다. 특히 최근 발굴조사된 정선 아우라지 유적과, 광주 곤지암 유적에서 연접식의 집단묘가 확인되고 이런 형식이 고구려적석총의 조형이라 할 수 있는 강상·누상의 무덤형식과 유사한 사실로도 방증된다. 따라서 남한지역 적석총의 기원이 고구려적석총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기원 이후에 편찬된 중국 사서에서 고구려를 일반적으로 ‘맥(貊)’이라 표현한 점이다.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서 ‘고구려후 추(高句驪侯 騶)’의 집단을 ‘맥(貊)’ 혹은 ‘예맥(穢貊)’이라 칭한 이래, 『삼국지』·『후한서』등에서 기원전 75년 현도군의 퇴축(退逐)을 ‘夷貊(이맥)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기록하여 句驪(구려)와 貊(맥)을 관련시키고 있다. 또 『삼국지』에는 “대수(大水) 유역에 나라를 세운 구려는 대수맥(大水貊), 서안평으로 흘러드는 小水(소수)에 사는 句麗別種(구려별종)은 소수맥(小水貊)”이라 하여 고구려를 명확하게 맥족(貊族)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북방의 돌궐인도 고구려를 ‘매크리(Mökli)’ 곧 맥구려(貂句麗)라고 불렀다.³⁴⁾

셋째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춘천지역을 맥국(貂國)으로 비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당나라 사람 가탐(賈耽)이 쓴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를 인용해 “고구려의 남동쪽 예의 서쪽이 옛 맥의 땅인데 지금 신라의 북쪽이 삭주(朔州: 지금의 강원도 춘천)이며, 선덕여왕(善德女王) 6년(637)에 우수주(牛首州)로 삼아 군주(軍主)를 두었다”고 하였다.³⁵⁾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명주(溟州)는 옛날 예국(穢國)이다. 야인(野人)이 밭을 갈다가 예왕(穢王)의 인장을 얻어 나라에 바쳤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춘주(春州)는 옛날의 우수주(牛首州)로 옛적의 맥국(貂國)이다.”³⁶⁾라고 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현재 춘천 지역에 맥족의 지파(혹은 별종)들이 세운 맥국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고구려의 후예들이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강 유역에서 발굴된 유일한 묘제가 적석총뿐이라는 사실과 연결하면 북한강 유역 적석총의 피장자는 자연스럽게 맥인 즉 고구려의 후손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남한지역 적석총의 피장자의 출자를 맥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삼국유사』 권1 제1 마한 조에서 4이(四夷)는 9이(九夷)와 9한(九韓)과 예(穢)와 맥(貂)이다”라고 적시한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여기서 크게 볼 때 4夷가 夷, 韓, 貂, 穢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한지역에 크게 한, 맥, 예의 세 종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삼국유사』 편자의 시각을 남한지역의 고분 발굴 결과와 연결해 보면, 주구토광묘의 축조자인 한인, 적석총의 축조자인 맥인, 무관곽(無棺槨)의 예인³⁷⁾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맥지의 범위는 남한지역 적석총의 범위와 일치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제 문헌기록들을 통하여 이를 검증해 보자. 우선,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고구려재요동지동천리), 南與朝鮮濊貊(남여조선예맥) 東與沃沮(동여옥저), 北與夫餘挾(북여부여접)”이란 기록이 주목된다. 여기서 ‘南與朝鮮濊貊’이란 부분을 ‘남쪽으로는 조선, 예, 맥과

34) 여호규, 2000, 「고구려의 기원」, 『신편 한국사』 5권, 국사편찬위원회.

35) 『삼국사기』 권35 잡지 제4 지리지

朔州, 賈耽校勘 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貂地. 盖今新羅北朔州.’

36) 『삼국유사』 권1 제1 마한

“三國史云 “溟州古穢國. 野人耕田得穢王印獻之.” 又 “春州古牛首州古貂國.”

37) 『신당서』 북적열전 흑수말갈 조에는 “그들은 죽은 자를 묻을 적에는 관곽(棺槨)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런 기록을 말갈과 예족은 동일한 문화적 기반을 지녔다는 통념과 연결하고, 다시 그런 사실을 현재 강원도 북부와 함경도 지역에서 뚜렷한 묘제가 확인된 바 없다는 고고학적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에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할 때 예인은 장례는 하되 직장(直葬)하였던 것으로 일단 유추할 수 있다.

접하다'라고 해석하면³⁸⁾, 앞에서의 『삼국사기』 지리지와 부합하는데, 과거 고조선의 후예인 조선인과 함께 맥인(貊人)과 예인(濊人)이 『삼국지』 편찬 즈음에 고구려의 남쪽에 존재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삼국사기』 백제본기2 책계왕(責稽王) 13년의 기사로 “十三年 秋九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 爲敵兵所害薨(13년 가을 9월에 한(漢)이 貊人을 이끌고 와서 침략하였다. 왕이 직접 나가서 방어하다가 적병에게 살해되었다)”라는 기사이다. 여기서 한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맥인은 동예와 낙랑군(혹은 대방군) 사이에 있던 고구려의 후손들로 볼 수 있다. 이에 춘천을 중심으로 맥국의 영역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貊地 즉 고구려의 지파들인 맥인들이 거주하는 문화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 유리나사금 17년 조의 “十七年 秋九月 華麗·不耐二縣人連謀 率騎兵犯北境 貊國渠帥 以兵要曲河西 敗之 王喜 與貊國結好(17년 가을 9월 화려(華麗), 불내(不耐) 2현(縣) 사람들이 함께 모의해 기병을 이끌고 북쪽 변경을 침범했다. 맥국(貊國)의 거수(渠帥, 우두머리)가 군사들로 하여금 곡하(曲河) 서쪽을 막아 물리치게 했다. 왕이 기뻐하여 맥국과 우호를 맺었다.”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동예가 신라의 북변을 공격하자 맥국이 이를 방어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예와 구별되는 맥국이 있었고, 그들의 활동 영역이 신라의 북변 즉 소백산맥 일대까지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정리해 보자. (1) 남한지역의 백제적석총은 형식과 속성에서 고구려 적석총을 따르고 있다. (2) 고구려인은 맥족이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칭하였다. (3) 그런 맥인이 동예의 서쪽 낙랑의 남쪽에 살았다. (4) 이런 맥인의 거주지와 남한지역 적석총은 서로 겹치고 있다.³⁹⁾ (5) 또 적석총 분포지역에서는 다른 묘제가 집단적, 집중적으로 발견된 바 없다. (6) 따라서 남한지역은 적석총은 맥인의 무덤이라 할 수 있다.

Ⅶ. 임진강 유역 정치집단의 비정⁴⁰⁾

일찍이 김병근은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임진강 중류역의 적석총 조영 집단은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한 마한 소국으로서, 보수적인 속성

38) 윤무병은 『삼국지』와 『후한서』에서 예족을 예맥으로 칭하여 맥족과 혼동하고 있으나 이는 후대 사가의 오류이며 예족은 貊이나 濊貊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윤무병, 1966, 『예맥고』, 『백산학보』, 백산학회, 22-25쪽.

39) 이런 결론에 도달할 때 원주 법천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토광묘가 문제된다. 그런데 원주 법천리 고분군의 입지가 구릉이 아니라 충적대지의 자연제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입지 선정은 적석총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주구토광묘 집단과는 다른 계통으로 볼 수 있겠다.

40) 아래의 글을 일부 다듬어 그대로 옮겼다.

김성태, 2016, 『삼국사기 북한산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북한산성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의 묘제를 통해 볼 때 그들의 민족적 연원은 고구려에 있었다. 그런데 한사군 설치 이후 남하하여 이곳에 정착한 이들 집단은 남쪽의 마한 제국과 상호 교류 등을 통해 문화적 동질화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임진강 유역의 정치체에 문화 변동이 일어났는데, 보수적인 무덤 양식은 북방의 고구려식 적석총의 모습을, 반면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할 수 있는 토기 문화 등은 백제적인 특징을 가지는 일종의 문화 접목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한군현을 매개로 당시를 바라보던 중국인들에게 임진강 유역의 소국들을 마한 제국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백제와 같은 민족적 연원을 가진 집단으로 백제와 연맹체적인 모습을 지녔으며, 3세기 초중반에는 대방군의 기리영 공격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3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서히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삼국사기에 백제의 북부로 등장하게 되었다.”이다.

발표자는 김병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임진강 유역에 존재했던 마한 소국이 大石索國(대석색국)이라는 견해를 최근 피력한 바 있다.⁴¹⁾ 이를 그대로 일부 문장을 다듬어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육계토성은 풍납토성을 제외하고 대하천 유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백제토성이며 문헌기록을 토대로 할 때 『삼국사기』의 북한성(北漢城(북한성))으로 비정되는 유적이다. 따라서 한성(漢城(한성))에 버금가는 제2의 도성으로 볼 수 있다.⁴²⁾ 이럴 경우 육계토성 일대가 396년 광개토대왕의 남정시 정벌한 58성 중에서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58성에는 북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한성의 또 다른 이름 즉 異名(이명)을 탐색해 봄도 필요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광개토대왕이 점령한 58개 성 중에서 구모로성(臼模盧城), 각모로성(各模盧城), 한저리성(幹氏利城) 등이 임진강 유역에 있었다고 견해가 주목되는데⁴³⁾, 기본적으로 58성을 기록함에 있어서 평양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할 때 설득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육계토성이 위치한 적성 일대는 상기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모로성과 각모로성이 서술상 2번째와 3번째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모로성(模盧城) 앞에 각각 구(臼)와 각(各)이라는 접두어(接頭語)가 붙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마한 54개국을 서술하면서 소석색국(小石索國), 대석색국(大石索國)을 4번째와 5번째로 연결하여 배치한 점과 상통한다.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을 때, 모로성과 석색국은 동일

41) 김성태, 2016, 앞의 글, 435~436쪽.

42) 이런 견해는 “육계토성의 현치소로부터 7리에 있고 둘레는 7,692척이다. 성내에 礎石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옛날 궁궐터가 있었던 자리라고 지적하는데 고려의 離宮이 아닌가 생각된다. 『輿地圖書』 補遺篇(京畿道) 積城縣誌目錄 古蹟”라는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어쨌든 육계토성 일대가 임진강유역에서 행정적,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43) 임기환, 2005,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百濟 관련 記事의 檢討』, 『漢城百濟 史料研究』, 경기문화재단, 148쪽.

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석색국에 대한 비정이 이루어지면, 모로성에 대한 비정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다.

그럼 석색국을 비정해 보자. 마한 54국의 서술이 중국 군현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8번째에 한강중류의 백제국(伯濟國)이 나오고 14번째에 금강유역의 목지국(目支國)이 나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대 중국어에서의 외래어 표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고유지명을 유사한 중국발음으로 옮겼거나 아니면 특정지역의 특기할 만한 요소를 택하여 그 의미를 한어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⁴⁴⁾ 상기 두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신분고국(臣濱沽國, chen/fen/gu)이 『三國史記(삼국사기)』에서 교하(交河)로 비정한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의 ‘천정구’와 그 발음이 절묘하게 일치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백제국 바로 앞에 나오는 신분고국(臣濱沽國)을 지금의 한강 하류로 볼 수 있고, 그에 앞서 있는 소석색국(小石索國), 대석색국(大石索國), 우수모탁국(優休牟涿國)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소국으로 비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임진강 하류부터 올라가면서 우휴모탁국은 파주, 대석색국은 적성, 소석색국은 연천 일대로 비정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비정은 임진강 적성과 연천 일대에 현무암 단애가 발달해 있는 지형적 특징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성일대의 현무암 단애는 ‘임진강 적벽’으로 불릴 정도로 다른 단애에 비하여 뛰어난 절경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적성일대가 소석색국보다는 대석색국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지금의 육계토성이 있는 적성일대가 3세기 무렵에는 대석색국으로 불렸다고 일단 볼 수 있다. 이처럼 마한 54개국의 대석색국을 적성일대로 비정할 때, 구모로성과 각모로성 둘 중 하나가 적성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적성일대는 구모로성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억지스럽지만 ‘구(臼)’가 ‘각(各)’보다는 우리말 ‘큰’과 음이 더 잘 통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임진강 유역 적석총이 분포하는 지역의 정치체는 마한소국의 하나로서 대석색국, 소석색국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구모로성(臼模盧城), 각모로성(各模盧城)이라 하였고, 백제에서는 북부(北部) 또는 북한성(北漢城)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44) 전자는 코카콜라를 可口可樂(가구가락)으로 표기한 것이 한 예이며, 후자는 나폴레옹을 法國大將軍(법국대장군)이라 부르는 것이 한 예이다.

VII. 맺음말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을 비롯하여 남한지역의 적석총은 토광묘의 목관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석재로 묘곽을 축조한 점, 매장주체부가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자리하는 점, 무덤의 입지가 구릉이 아니라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점, 연접식의 다곽묘가 확인되는 점, 매장주체부인 묘곽 내부뿐만 아니라 적석부에서도 유물이 확인되는 점, 일부에서 제사공간으로 추정되는 부석시설이 확인되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이런 남한지역 적석총의 속성은 고구려 적석총의 그것과 상통하는 반면에 한강 이남의 주구토광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남한지역 적석총의 기원은 고구려 적석총에 둘 수 있고, 그 피장자는 고구려유이민이며 종족상으로는 맥인(貊人)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인은 한강 이남의 주구토광묘를 묘제로 사용했던 한인(韓人), 무덤에 관곽을 설치하지 않았던 예인과는 종족상 달랐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남한지역에서 적석총의 분포권과 주구토광묘의 분포권이 겹치지 않는 사실로 입증된다. 또 예국(濊國)으로 비정된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에서 아직까지 적석총은 물론 토광묘도 발굴되지 않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그리고 이는 문헌상으로 고구려 이남에 한, 예, 맥이 있었다는 중국 사서에서의 기록과, 춘천에 맥국, 강릉에 예국이 있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방증된다. 아울러 맥(貊)이 예(濊)의 서쪽에 자리했다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으로도 입증된다.

이들 맥인들은 현재 적석총이 확인되는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유역에 산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 대하여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한(韓) 조에서 다루었지만, 원양국(爰襄國) 백제국(伯濟國)까지의 8개의 나라 즉 원양국(爰襄國)·모수국(牟水國)·상외국(桑外國)·소석색국(小石索國)·대석색국(大石索國)·우수모탁국(優休牟涿國)·신분고국(臣濱沽國)·백제국(伯濟國)은 사실상 맥족의 나라였다고 생각되며, 이 중에서 대석색국과 소석색국이 임진강 유역에 자리했던 소국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개토태왕 비문의 58성 중에서 2, 3번째의 구모로성(白模盧城), 각모로성(各模盧城)이 상기의 대석색국, 소석색국과 짝이 맞는다는 사실에 착안할 때, 400년 경 임진강 유역에 구모로성과 각모로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이들을 북한성으로 불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1〉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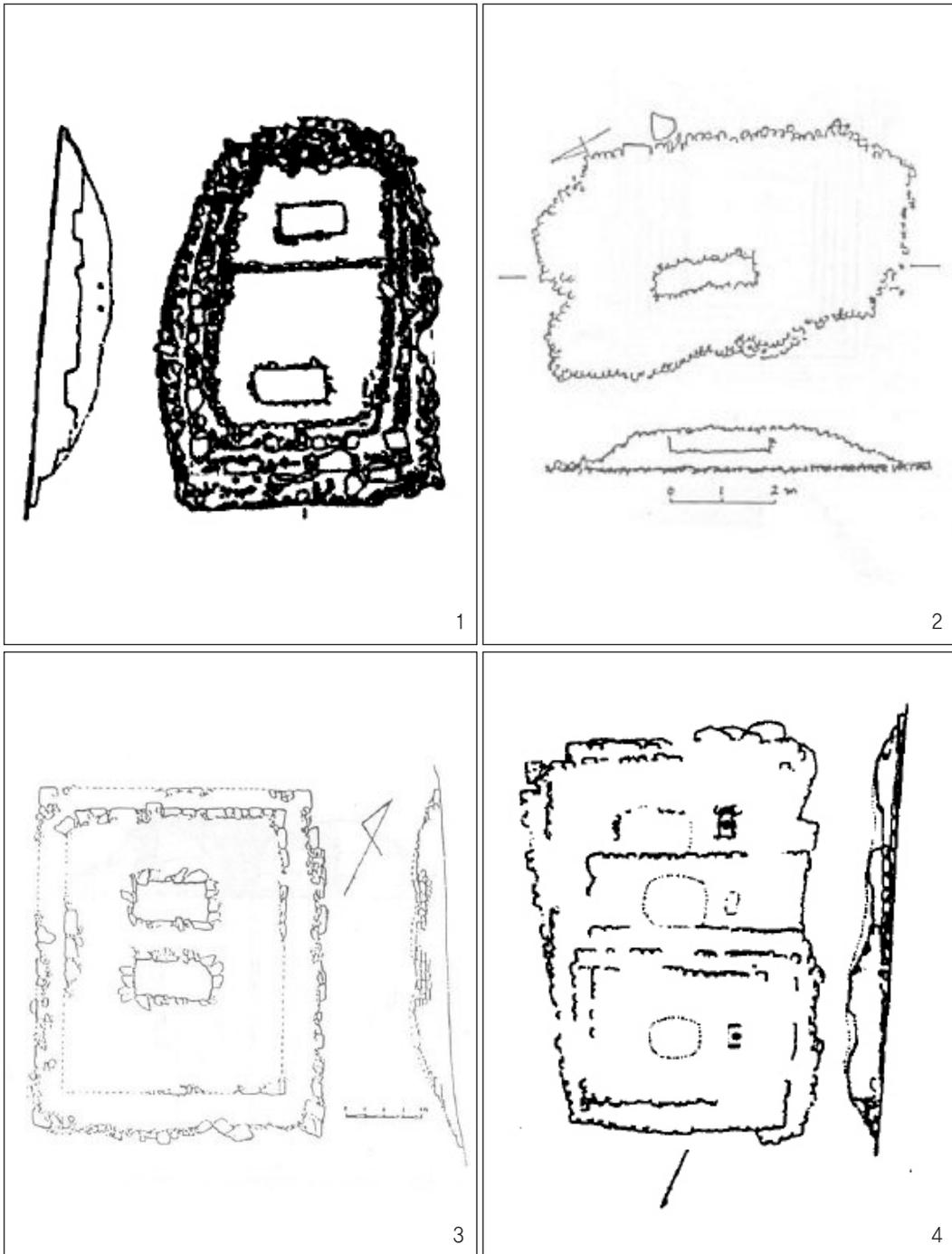
〈그림 2〉 광주 곤지암 적석총



<그림 3> 연천 학곡리 적석총(O은 묘곽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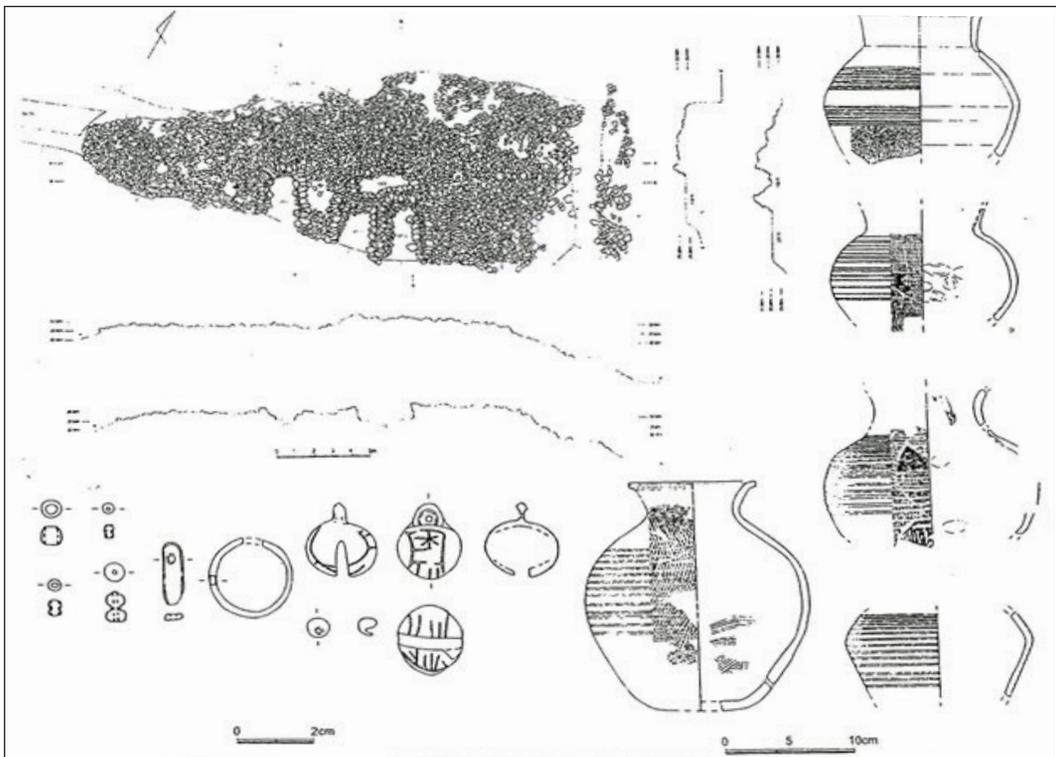
<그림 4> 연천 삼곡리 적석총의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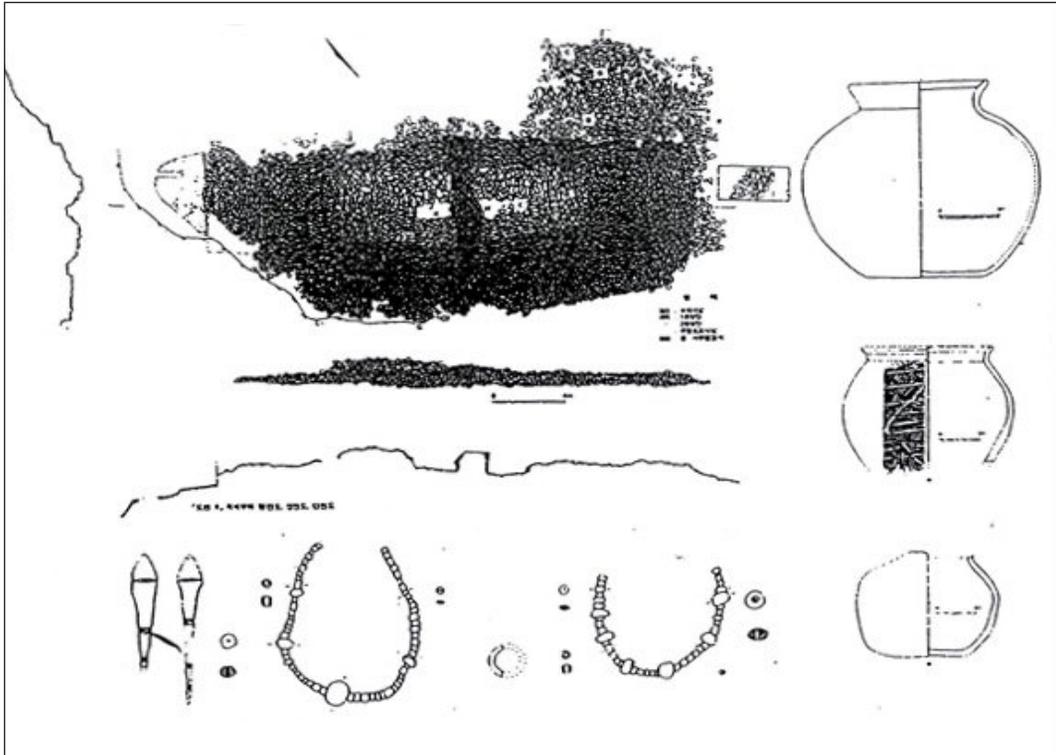
〈그림 5〉 고구려 적석총의 모곽 미설치 부분
 1. 輯安 良民 74號, 2. 輯安 良民 168號(無基段式 石槨積石塚), 3. 輯安 通溝 禹山下 JYM 1340(基段式 石槨積石塚), 4. 집안 집석공로간 32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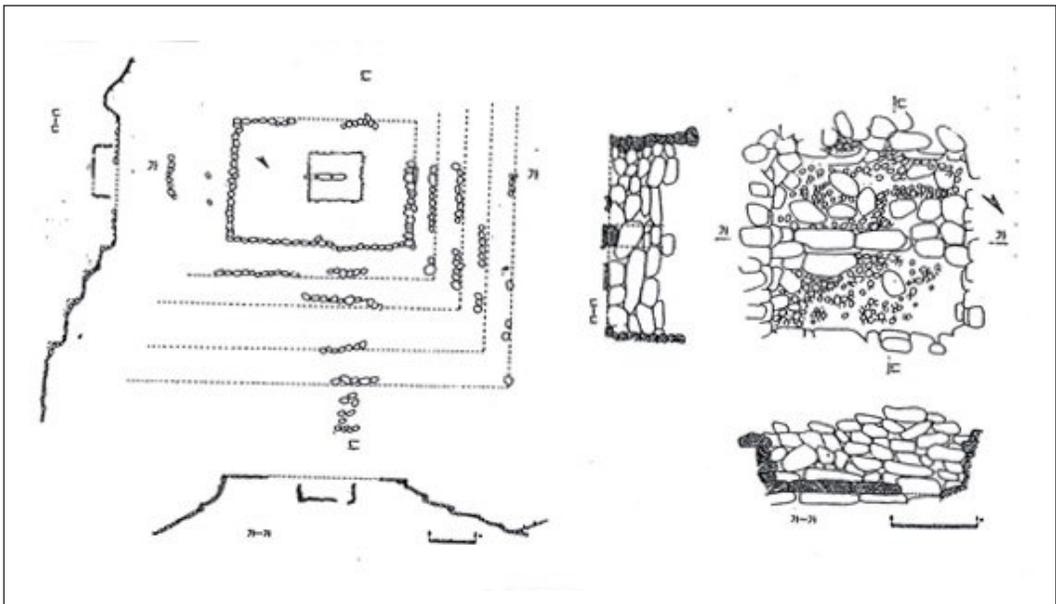
<그림 6> 연천 삼곳리 적석총의 기단부분



<그림 7> 연천 학곡리 적석총의 평면도와 출토유물(무기단다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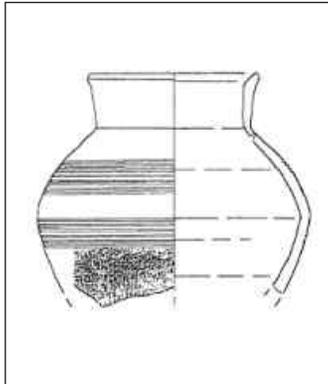
〈그림 8〉 연천 삼곳리 적석총의 평면도와 출토유물(기단양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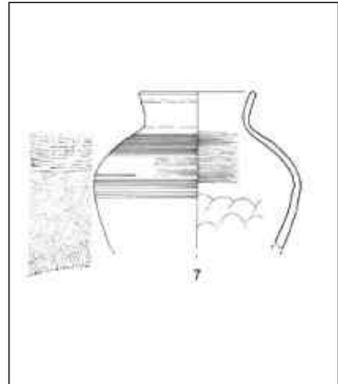
〈그림 9〉 개성 장학리 적석총의 평면도와 출토유물(방단단곽식)



〈그림 10〉 연천 삼곶리 출토 철촉



〈그림 11〉 연천 학곡리 1호곽 출토 낙랑토기



〈그림 12〉 가평 대성리유적 5호 주거지 출토 낙랑토기

임진강 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의 동향

한 지 선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머리말 II. 취락(주거지) 분석기준 III. 임진강 유역 취락 양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V. 임진강 유역 지역 취락의 특징과 정치체의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취락의 특징 2. 임진강 유역의 정치체의 동향 V. 맺음말 |
|---|--|

I. 머리말

임진강 유역은 원삼국시대 이래 한성백제기까지 예계문화권(박순발 1996)에 포함되어 취락과, 성곽, 분묘 등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는 지역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연천 강내리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2012)을 비롯한 다수의 유적이 발굴조사 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문화정체성을 구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먼저 본 발표의 주제인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취락연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의 평면형태, 취사 시설, 시대별 주거지 장축방향의 변화 및 그것들의 상관관계, 중도식 경질무문토기 등 출토유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 특히 경기북부권과 서울경기권은 양자간의 취락의

1) 그간의 취락 관련 연구는 아래의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주거군’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장축방향의 공통성에 기반한 연구(박경신 2011·2012·2015, 강세호 2017), 주거지의 평면형태의 변화에 기반한 연구(송만영 1999·2010), 경질무문토기의 형식변천에 기반한 연구(김일규 2006, 진수정 2009, 이준호 2003·2009, 이승재 2009) 혹은 이를 취사난방시설의 변천과 연계한 연구(김준규 2013·2017), 평면형태와 취사난방시설의 변화에 기반한 연구(박중국 2011·2012·2013·2016, 이병훈 2011·2016, 박경신 2016, 한지선 2013·2015), 유적 AMS결과에 기반한 연구(김장석·김준규 2016, 이창희 2015, 김준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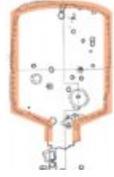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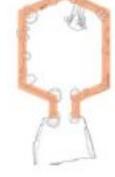
그리고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술대회로는 다음과 같다.

변화 양상에 있어 지역적 친연성이 강하고, 한성백제기 취락의 양상도 다수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은 경기북부권 중에서도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원삼국시대~삼국시대 취락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심은 임진강 유역권에 집중하여 살펴보겠지만 인근 한탄강 유역권과 임진강 및 한탄강의 지류상에 위치한 대표적인 취락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취락의 양상만으로 정치체의 동향을 쉽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미 중부지역 일대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를 수행(한지선 2015)한 바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통분모 속에서의 취락간 위계문제, 그리고 정치체의 지역 변동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취락(주거지) 분석기준

취락(주거지)의 분석기준은 역시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취사시설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주거지의 면적, 출토유물 등에 대한 분석 등 더해지게 된다. 중부지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주거지의 가장 특징인 출입구가 돌출된 주거지인 ㄴ·凸字形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취사시설에 대한 형식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1〉 ㄴ·凸字形 주거지 평면형태(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수정)

유형	출입구가 돌출된 수혈주거지					출입구 돌출없는 주거지	
	I 방형	II 1오각형 (전반부)	II 2오각형 (후반부)	III 1육각형 (동근)	III 2육각형 (각진)	IV 1원형	IV 2방형
형식							

중부고고학회, 2014, 『국가성립 전야의 중부지역』 2014년 정기학술대회. 송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14, 『쟁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 물질문화 편년』 제11회 매산기념강좌. 송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15, 『중부지역 한성기 백제 주변 정치체의 동향』 제12회 매산기념강좌.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2013, 『근초고왕 때 백제 영토는 어디까지였나』 쟁점세미나.

〈표 2〉 몸·凸字形 주거지 취사시설(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수정)

형식	A 노지	B1쪽구들 (측면부)	B2쪽구들 (후면부)	B3쪽구들 (모퉁이부)	B4쪽구들 (모퉁이부)	C1부뚜막 (+노지)	C2부뚜막
도면							

이 중에서 경기북부권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강원 영서지역이나 경기 남부지역 등 여타의 중부권 유적에 비해 쪽구들의 설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 점은 서울 경기권의 양상과도 유사하다. 또한 육각형의 평면형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쪽구들 단계에서 이미 출현하고 있는 점에서 육각형주거지를 무조건 ‘한성백제식 주거지’(한지선 2009)로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기도 한 지역이다(송만영 2010, 한지선 2013).

다음의 〈표 3〉은 경기북부권 수혈주거지의 시기별 양상을 평면형태와 취사시설을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전 분석과 달리 좀 더 착목한 지점은 오각형과 육각형 둔각의 평면형태일 때 장축이 길고 단축이 짧은 장방형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육각형 평면형태가 점차 각이 뚜렷하게 되면서 장축과 단축의 비례가 거의 정비례화 된다는 점을 좀 더 상기하여 적용해 보았다.

〈표 3〉 경기북부권 수혈주거지 시기별 양상

주거지 모식도						
평면 형태	Ⅱ 1	Ⅱ 1	Ⅲ 1+Ⅲ 2	Ⅱ 1+Ⅲ 1	Ⅲ 1	Ⅲ 2
	오각형 _장방형	오각형 _장방형	육각형 _장방형	오각형/육각형 _장방형	육각형_둔근 _장방형	육각형_각진 _장방형/방형
취사 시설	A	B1	B1	C1	C2	C2
	노지 단독	쪽구들+노지		부뚜막+노지	부뚜막 단독	
시기	원삼국시대				한성백제기	

주거지 면적의 경우 출입구를 제외한 주거 내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60㎡이하가 다수를 차지하면 대형 취락의 경우 100㎡, 150㎡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대체적으로 위계적인 해석이 가능한 기준임을 확인한 바 있다(한지선 2015). 따라서 임진강 유역권 취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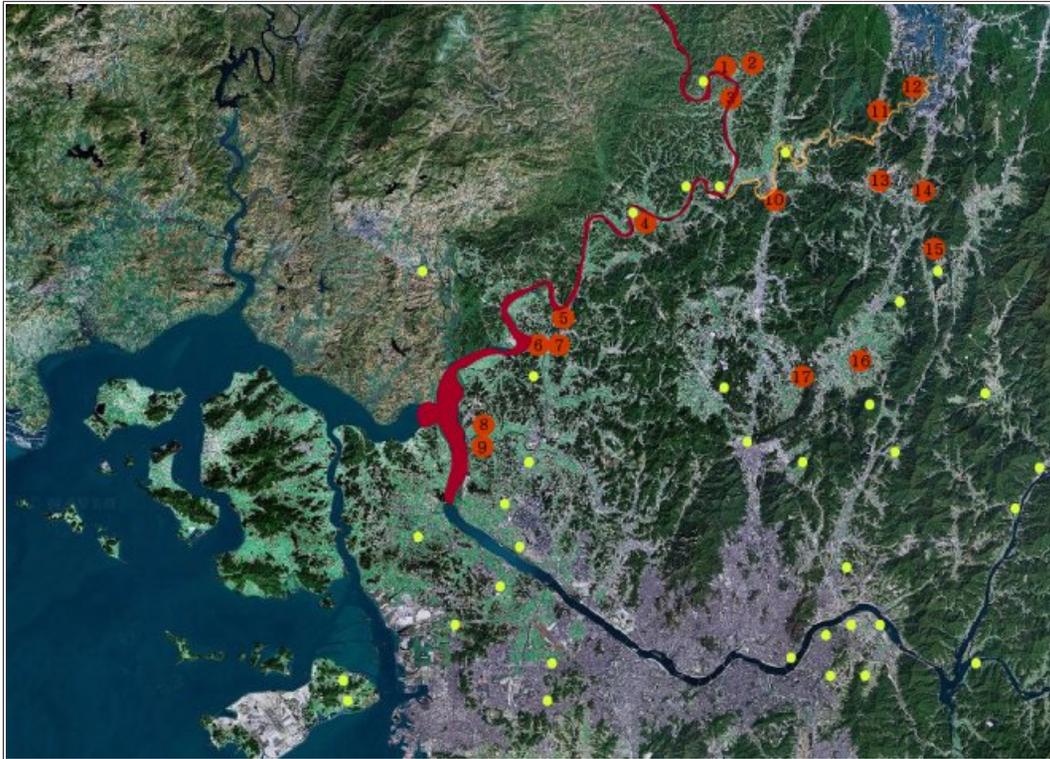
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원삼국시대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낙랑계토기와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낙랑계토기와 같은 외래계토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계나 특징, 변천을 육안으로 뚜렷이 파악하기 어렵고, 변화도 매우 더디기 때문에 원삼국시대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 다만 한성백제기 신기종의 출현으로 합과 뚜껑, 직구호류 등과 기대, 흑색마연토기 등의 위세품이 출토되는 양상은 확실히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취락의 기본분석에 포함하여 출토유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Ⅲ. 임진강 유역 취락 양상

임진강수계에 직접 인접하여 확인되는 취락은 총 9개소 정도 있으며, 인근 한탄강 유역권에 약 3개소, 이외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小支流에 인접한 내륙에 5개소 정도가 확인된다. 물론 발표자가 간과하고 있는 유적이나 최신의 사례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보고서 발간을 기준으로 유적을 선별하였으며, 각 유적별로 취사시설의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다. 노지와 쪽구들의 경우 원삼국시대, 일자형부뚜막의 경우 한성백제기에 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도식적으로 기준하면 각각의 취락의 시기 폭이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지, 혹은 시기 폭이 긴지, 짧은지를 간략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4〉 임진강·한탄강유역 취락 유적 분포도와 유적별 주거지 형식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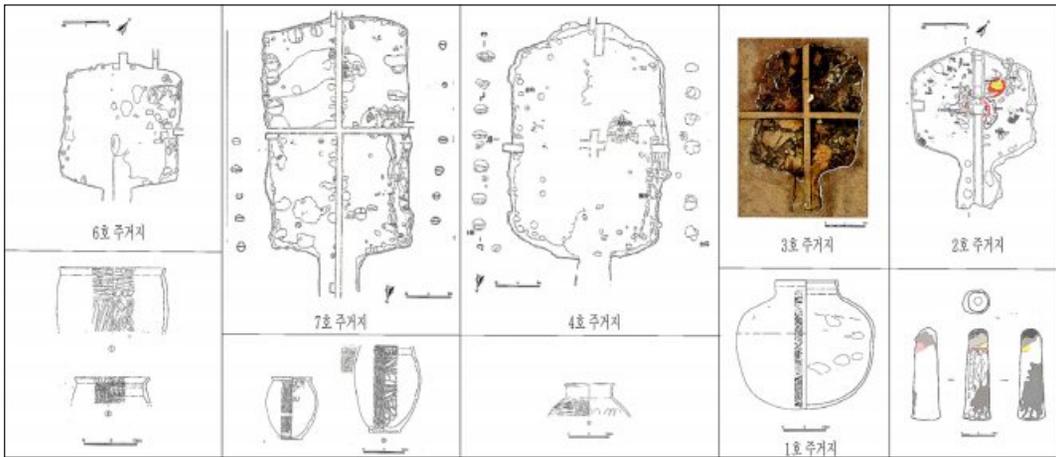


연번	지역	유적명(주거지수)	여·철자형 주거지 형식(개수)				기타
			노지	쪽구들+노지	일자형 부뚜막+노지	일자형부뚜막	
1	임진강 유역	연천 삼곶리(21)	1?	11	-	3	직구대호, 송풍관
2		연천 합수리(6)	-	5	-	1	
3		연천 강내리(71)	11	4/38	2	13	후단벽4/측장벽38
4		파주 주월리(16)	?	?	?	4↑	합, 직구호, 뚜껍
5		파주 선유리(22)	?	?	?	3	합, 직구호, 뚜껍
6		파주 당동리(16)	?	?	1↑	3↑	
7		파주 운정(5)	-	-	-	?	
8		파주 동패리(12)	-	-	-	7↑	
9		파주 외동리(17)	-	-	-	2↑	흑색마연토기직구호
10	한탄강 유역	연천 초성리(2)	-	-	-	2	
11		포천 중리 마산(11)	-	6	1	4	삼릉형철검동촉
		포천 중리 용수재울(32)	-	26	1	3	
12		포천 사정리(28)	-	8	9	1	짧은쪽구들다수
13		포천 영송리(5)	3	?	?	?	
14		포천 성동리(4)	?	?	?	1	
15	포천 금주리(6)	1↑	?	-	-	삼릉형철검동촉	
16	기타	포천 자작리(24)	0	0	0	24	평면육각형
17		양주 옥정동(28)	-	-	-	6	방형주거지 다수

1) 연천 삼곶리 유적(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

이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 수는 모두 21기로 원삼국~백제기에 걸친 시간폭을 가진다. 노지와 쪽구들의 비중이 전체 확인된 주거지 중 87%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된 여·철자형 주거지는 단 3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3기 중 2호주거지의 경우 단축과 장축의 비례가 거의 정비례하고 있어 육각형주거지 단계에서도 매우 발달된 형태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장방형(오각형, 육각형 등근)에서 점차 정방형(육각형 각진)으로 평면형태가 확인되지만 시기 변화를 보여줄 만한 유물의 출토는 소략하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주거지는 1호와 3호주거지(남-북)이지만 2호주거지는 원삼국시대 장축(북서-남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거지 면적은 쪽구들 단계 주거지에서 대부분 대형 면적이 확인된다(7호-113.2㎡, 5호-97.1㎡). 반면 일자형부뚜막 주거지는 30~40㎡로 매우 소형에 해당한다. 주거지 간격은 대부분 중복을 제외하고 10~30m 사이에 밀집 분포했다. 특히 7호주거지 주변으로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고, 주거면적도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중심 주거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주거지 내 철생산관련 단야로 등 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생산 중심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강내리 등지의 소비지로 삼았을 것으로 보고자는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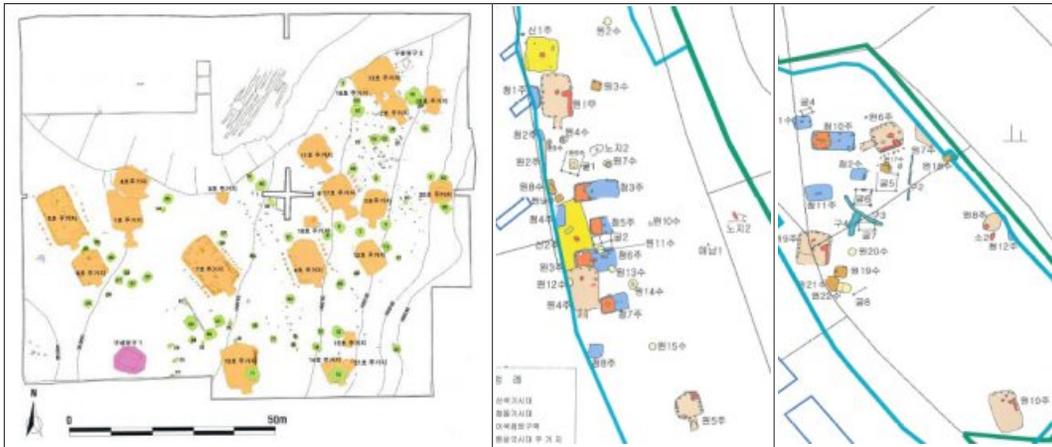


〈도면 1〉 연천 삼곶리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2) 연천 합수리 유적(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이 유적에서 취사시설과 평면형태가 확인되는 유구는 총 6기로, 취사시설의 경우 쪽구들이 5기, 부뚜막이 1기 확인되었고, 평면형태는 오각형이 2기, 육각형이 2기가 확인되었다. 육각형 평면형태는 쪽구들과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된 주거지에서 각각 1기씩 확인되었는데, 모두 후면 부가 각진 형태이다. 장축의 경우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된 5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거지나 수계와 평행한 남-북 방향을 보였으나 쪽구들이 시설된 육각형 주거지인 6호만이 동서방향으로

축이 틀어져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오히려 쪽구들이 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6호주거지가 가장 늦은 주거지일 가능성도 있으나,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주거 면적은 쪽구들이 시설된 육각형주거지인 4호주거지가 가장 크다(57.8㎡). 출토유물은 백제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경질무문토기(호, 발, 뚜껑류)와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 파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주거지 간의 분포 간격이 매우 넓다는 점(30~50m)인데 그만큼 밀집도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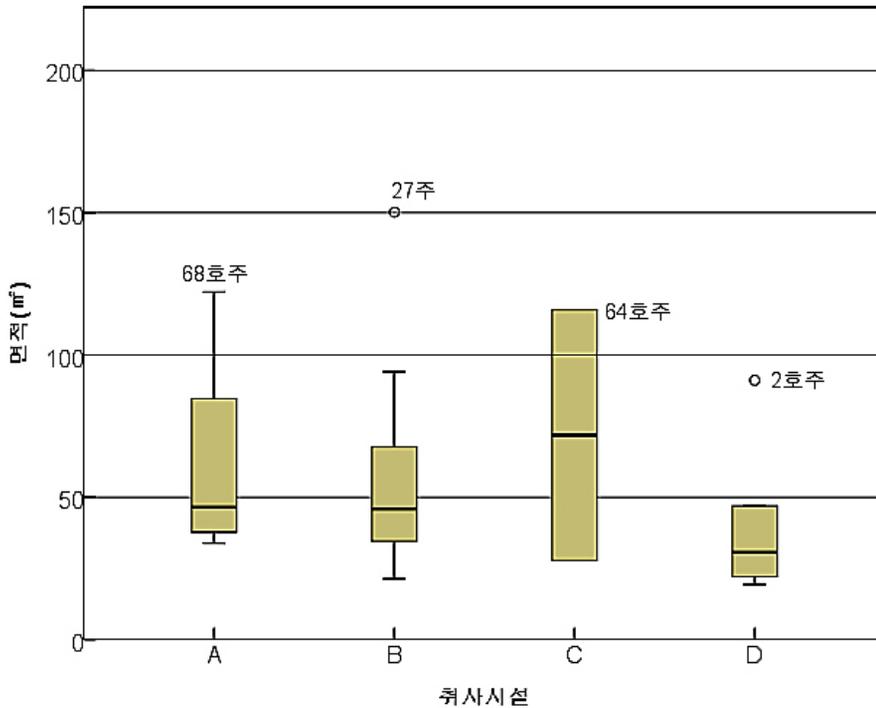
〈도면 2〉 연천 삼꽃리(좌)와 연천 합수리(우)의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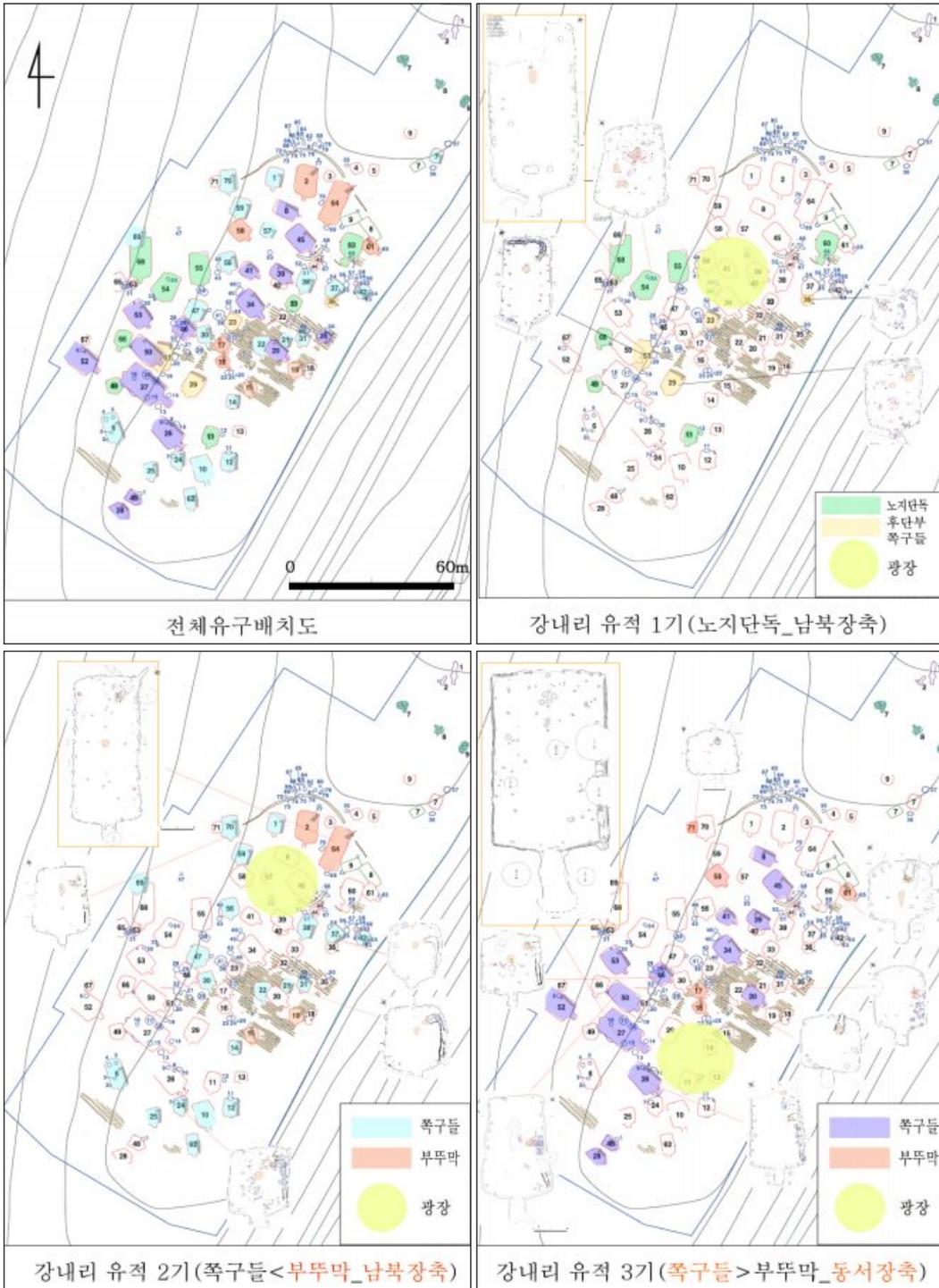
3) 연천 강내리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주거지 71동 중 68개 유구에서 노지단독 11기, 쪽구들+노지 42기, 일자형부뚜막+노지 2기, 일자형부뚜막 단독 13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중 쪽구들의 경우 후단벽에 4기, 나머지는 모두 측장벽에 설치된 것이다. 쪽구들의 비중이 전체 주거지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어 원삼국시대가 취락 내 중심시기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방형에서 육각형까지 다양한 평면형태가 확인되며, 방형의 출입구시설이 없는 소형 주거지도 다수 확인되었다. 여·철자형주거지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주거지 면적의 경우 노지(68호주거지-122.1㎡), 쪽구들(27호주거지-150.2㎡), 일자형부뚜막+노지(64호주거지-115.8㎡), 일자형부뚜막(2호주거지-91.1㎡)으로 대형주거지가 확인되며 그중에서도 쪽구들 주거지의 면적이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3〉은 이 유적에서 1단계로 취사시설(노지, 쪽구들, 부뚜막)을 구분하고, 2단계로 주거지 장축변화(남북→동서)를 기준하여 3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들 간의 중복은 없으며, 대형주거지 출입구쪽으로 넓은 광장이 조성되는 점이 확인된다. 먼저 노지주거지(1기)는 원삼국시대 전통적 취사시설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게 확인된다. 따라서 노지단독 주거지의 장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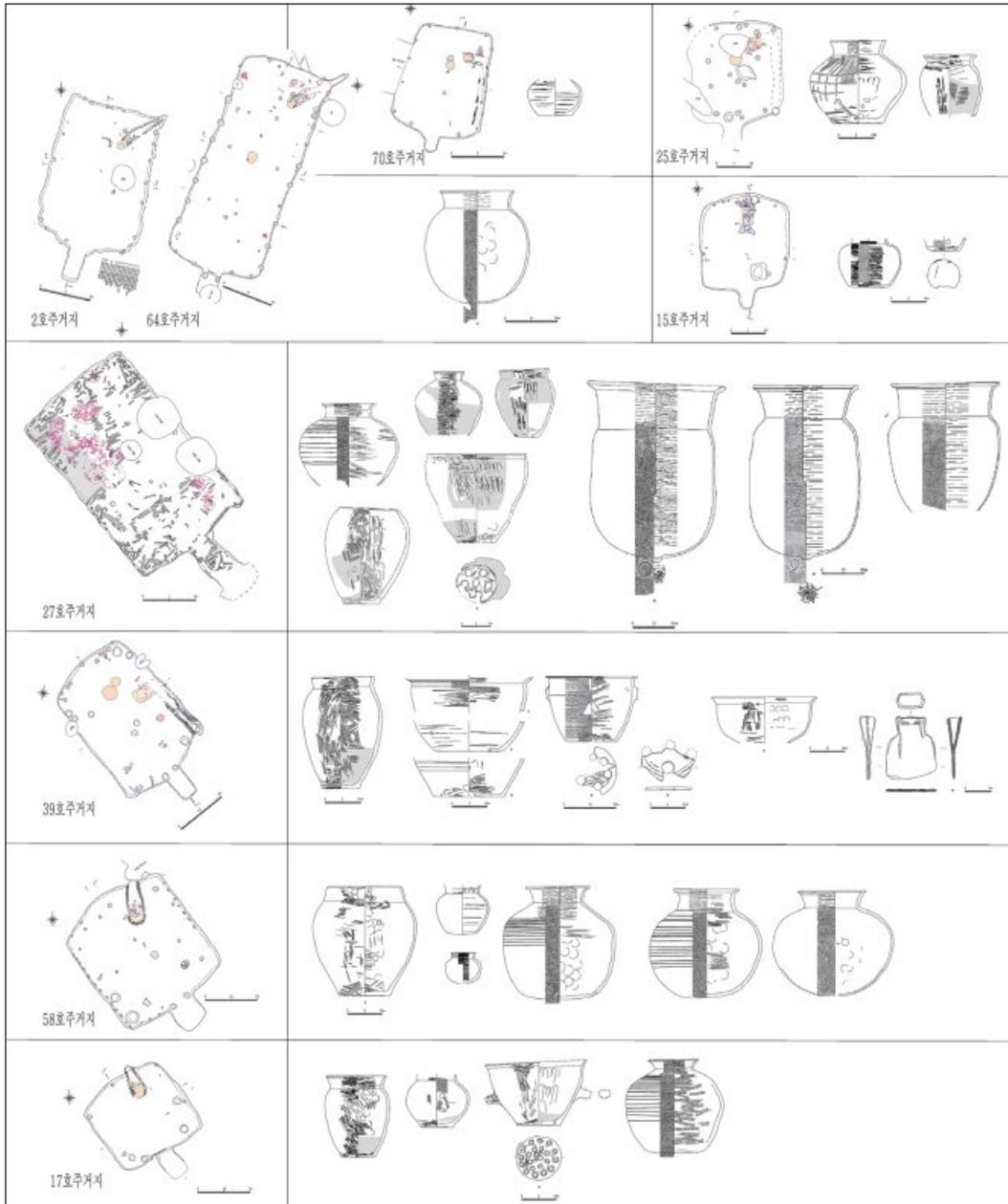
또한 취락의 전통적 조성양상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후단벽 쪽구들이 측장벽 쪽구들 주거지에 선행하는 중복관계를 감안하여 1기에 포함시켰다. 측장벽 쪽구들 주거지 단계(2·3기)에 들어서면 전통적 장축(남북)과 새로운 장축(동서)이 혼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부뚜막주거지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대형의 부뚜막 주거지(2, 64호)가 전통적 남북 장축으로 조성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쪽구들 주거지 중 가장 대형에 속하는 27호주거지를 중심으로 중형급 주거지가 새로운 장축(동서)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또한 매우 이례적인 양상이다. 대개 일자형부뚜막이 설치되는 단계는 백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따라서 전통적 장축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시기적 단절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박경신 2012, 한지선 2015). 그러나 이렇듯 일자형부뚜막의 대형주거지가 쪽구들의 소형주거지와 함께 전통적 장축에서 조성되고, 쪽구들의 대형주거지가 일자형부뚜막의 소형주거지와 함께 새로운 장축에서 조성되는 양상은 매우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 27호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발달된 대옹과 경부 조임이 강한 호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이 주거지 단계가 쪽구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백제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뒤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연천 강내리 유적의 취사시설별 주거 면적 분포





〈도면 3〉 연천 강내리 유적의 취사시설과 장축변화를 기준한 취락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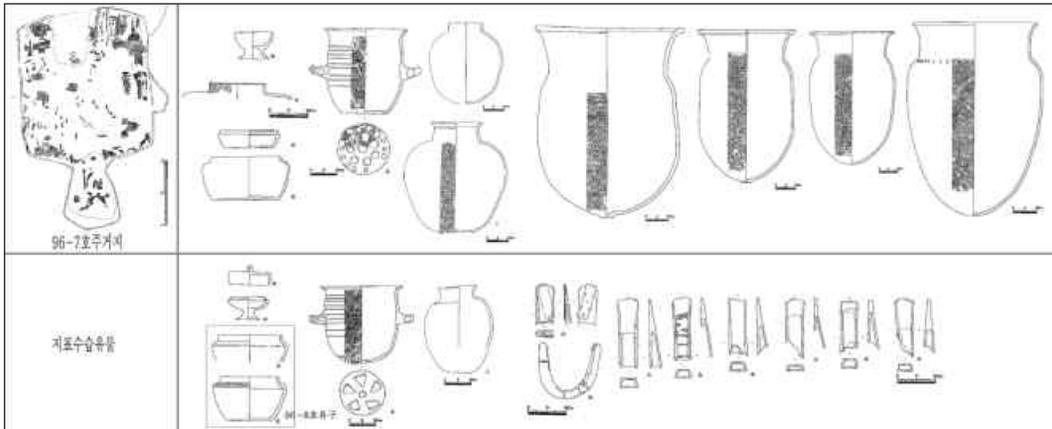


〈도면 4〉 연천 강내리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4) 파주 주월리 유적(경기도박물관 1999)

이 유적에서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까지 포함해 약 16기이고 그 중 온전한 유구는 한양대에서 발굴한 1,2,3호주거지와 경기도 박물관에서 발굴한 96-7, 97-4호 등 5기 정도이다. 이 중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한 주거지는 96-7호로, 육각형(등근) 평면에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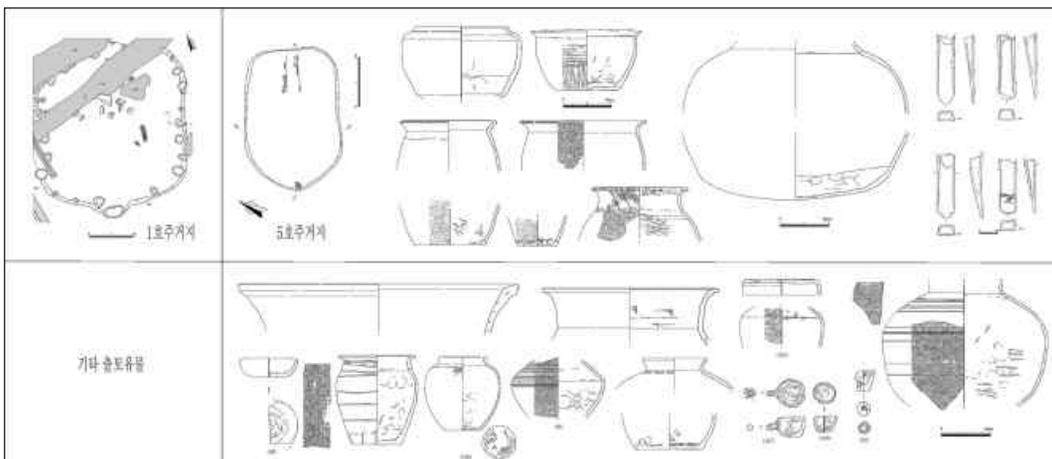
어 있다. 일찍이 한성백제 I 기 단계의 대표적인 주거지(한지선 2003)로 주목한 바 있는데, 백제 중앙양식토기인 합, 개배, 대옹, 시루, 직구호류가 출토된 바 있고, 96-8호 주거지에서는 합의 견부에 요철이 장식된 형식과 함께 무개 및 유개 고배, 다량의 주조철부 등 출토되어 출토 유물의 위계상 중요취락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면적은 125㎡이다.



〈도면 5〉 파주 주월리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5) 파주 선유리 유적(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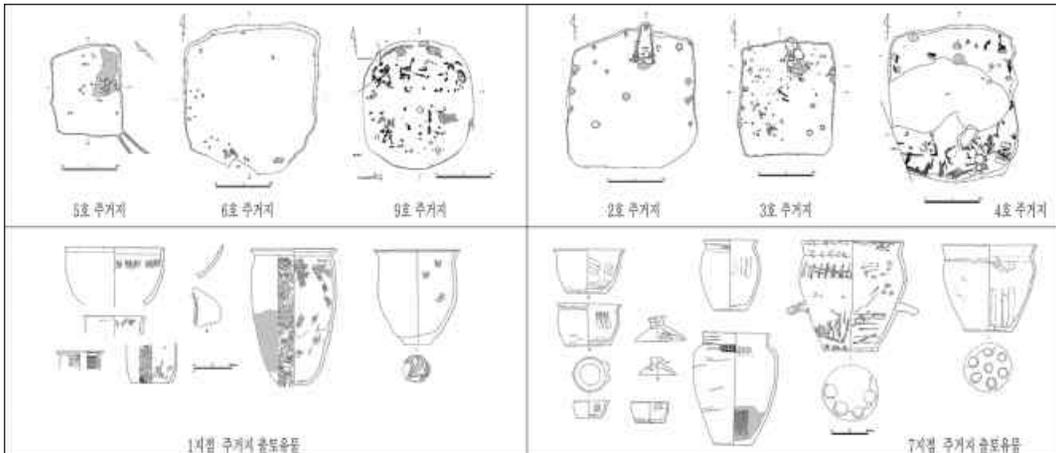
총 15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5기 정도를 제외하고 상태가 불량하다. 평면형태 육각형과 오각형이 함께 확인되며, 쪽구들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일자형부뚜막 주거지(5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5호주거지에서 합을 비롯한 대호류와 동이, 주조철부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 유구 및 지표수습에서 직구평저호와 뚜껑, 대옹편 등이 확인되어 한성백제 중앙양식토기의 양상을 볼 수 있다. 1호주거지의 면적은 약 55㎡이다.



〈도면 6〉 파주 선유리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6) 파주 당동리 유적(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09)

이 유적에서는 16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먼저 1지점에서는 11기가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5호는 방형, 6호는 철자형, 9호는 원형의 평면형태를 보인다. 그중 원형인 9호주거지는 사천 늪도유적처럼 벽면을 돌아 긴 쪽구들을 시설하고 있어 이 일대에서는 드문 양상을 보여준다.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경질무문토기 일색으로 타날문토기로는 (격자)심발, (격자)장란형토기편, (격자 다수)호류가 일부 확인될 뿐이다. 6호주거지의 면적이 가장 크다(25.5m²). 7지점에서는 5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일자형부뚜막을 시설한 장방형 내지 철자형의 주거지였다. 1지점과는 시기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지점에서는 소형 투공의 경질무문토기 시루가 확인된데 반해, 7지점에서는 대형의 원형투공을 한 경질무문토기 시루 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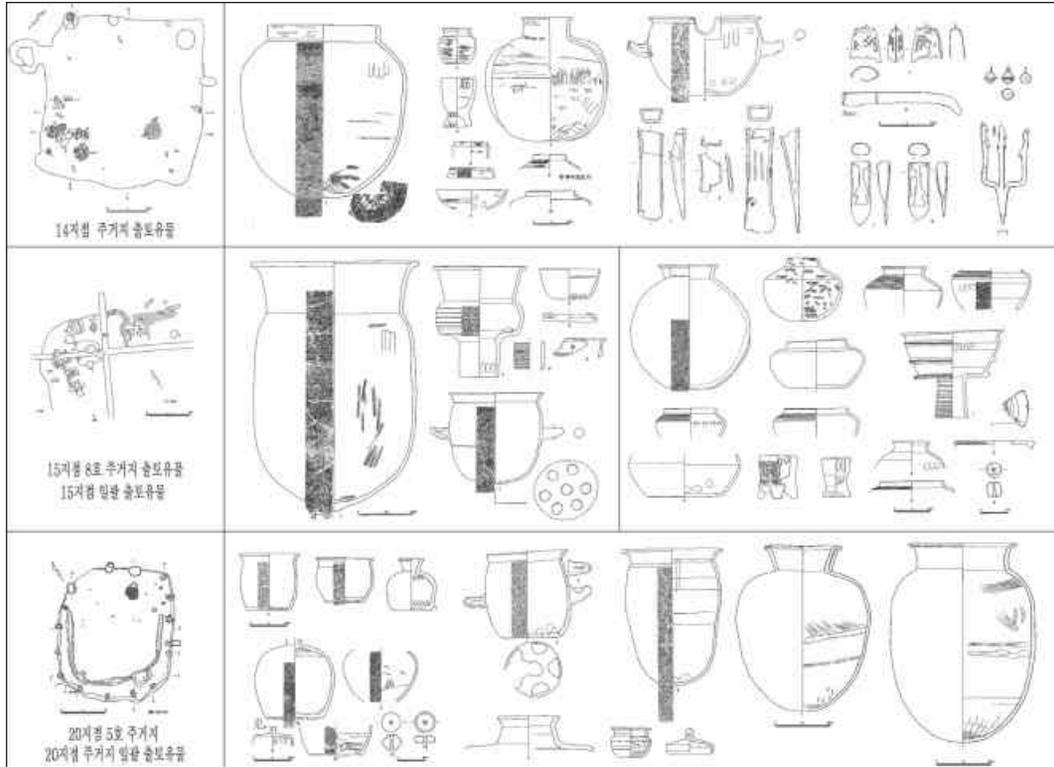


〈도면 7〉 파주 당동리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7) 파주 와동리 유적(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0·2011)

이 유적에서는 약 17기의 여·철자형, 방형, 장방형 평면구조를 가진 다양한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취사시설 등 제 특징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출토유물 상에서는 한성백제기 양상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형 토기 등 특색있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유물상으로만 보았을 때 그 위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4지점 주거지에서는 흑색마연토기 직구호를 비롯하여 (중·대)합, 뚜껑, (추정)개배 등이 출토되었고, 기타 주거지에서도 시루, 대용, 병, 평저소호 이외에도 토제 절구, 경부 조임이 두드러진 발달된 호류 등이 주목된다. 특히 대용의 건부 문양대는 풍납토성 출토품에나 보이는 다양한 압인문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각을 가진 발형 배신의 이형토기류도 특징적이고, 금속기로는 동령과 동탁, 삼지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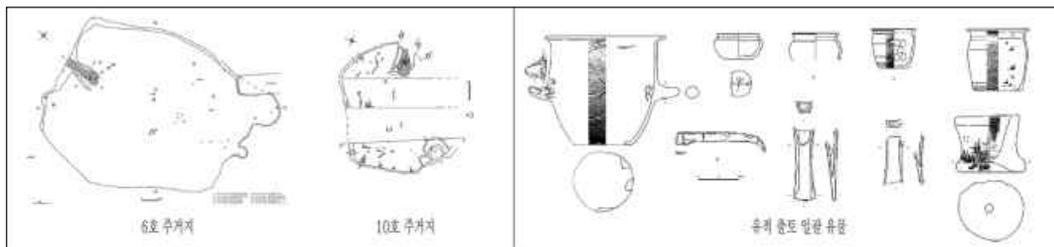
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 가장 큰 주거지는 14지점 주거지로 76m²이다. 나머지는 모두 40 m²이하의 소규모 주거지군에 해당한다.



〈도면 8〉 파주 와동리 유적 지점별 주거지와 출토유물

8) 파주 동패리 유적(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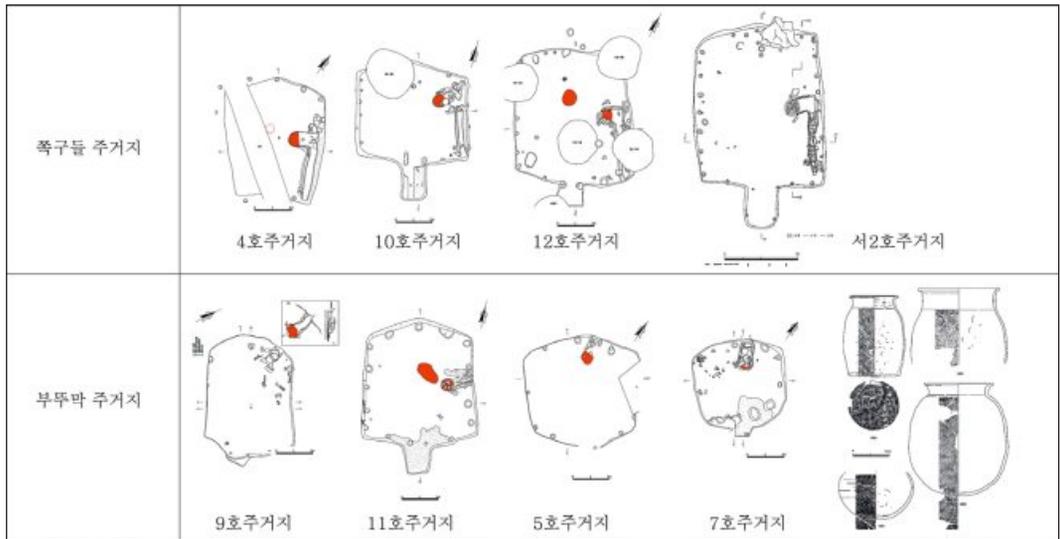
총 12기의 한성백제기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확인되지 않는 유구가 대부분이나 취사시설은 모두 일자형 부뚜막을 시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출토 유물도 한성백제기 중앙양식토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가장 큰 주거지는 6호주거지로 120m²에 달한다. 유물과 주거지의 면적으로 보아 위계가 상당히 있는 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9〉 파주 동패리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9) 포천 중리 유적(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이 유적에서는 모두 11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여·철자형 주거지는 10기로 쪽구들이 시설된 주거지가 6기,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된 주거지가 4기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로 오각형과 육각형이 모두 확인되었는데, 쪽구들 주거지에서 4기가 육각형평면에 해당된다. 장축방향은 모두 수계와 평행한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면적은 가장 큰 주거지가 15호주거지(서경)로 67.64㎡로 소형급에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소형의 주거지가 일렬로 배열된 양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심발과 대호, 원저호 등이 확인되며, 8호주거지(쪽구들, 오각형)에서 삼릉형철검동촉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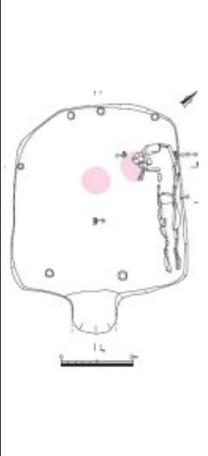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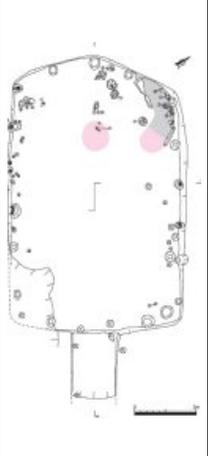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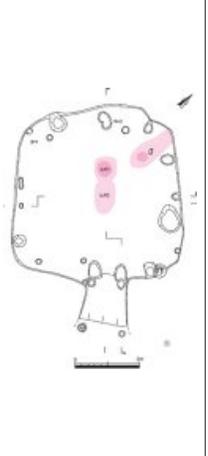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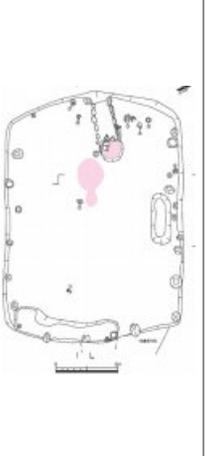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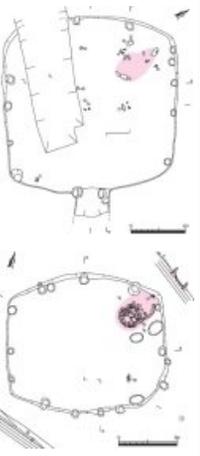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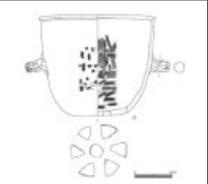
<도면 10> 포천 중리 마산유적 주거지 일람

10) 포천 중리 용수재울 유적(겨레문화재연구원 2016)

총 32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취사시설과 평면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지는 30개유구로 노지단독의 취사시설이 설치된 주거지는 없고 쪽구들 주거지(26기)가 전체 주거지의 약 86%의 압도적인 비율이며 일자형부뚜막은 단 3기에 불과하다. 쪽구들 주거지 중 평면형태가 육각형을 보이는 경우도 12기에 달한다. 출토유물상으로 경질무문토기 이외에 타날문토기편, 회색무문양토기편 등이 확인되고 있고, 그 외 특징적인 것은 없다. 주거지 면적은 1호주거지(쪽구들, 육각형)가 82㎡로 가장 크며, 나머지는 대부분 60㎡이하의 소형급이며, 부뚜막 주거지의 면적은 16㎡이하로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형급에 해당한다. 포천 중리 마산유적과 유사한 취락 형태를 보여준다.

11) 포천 사정리 모래내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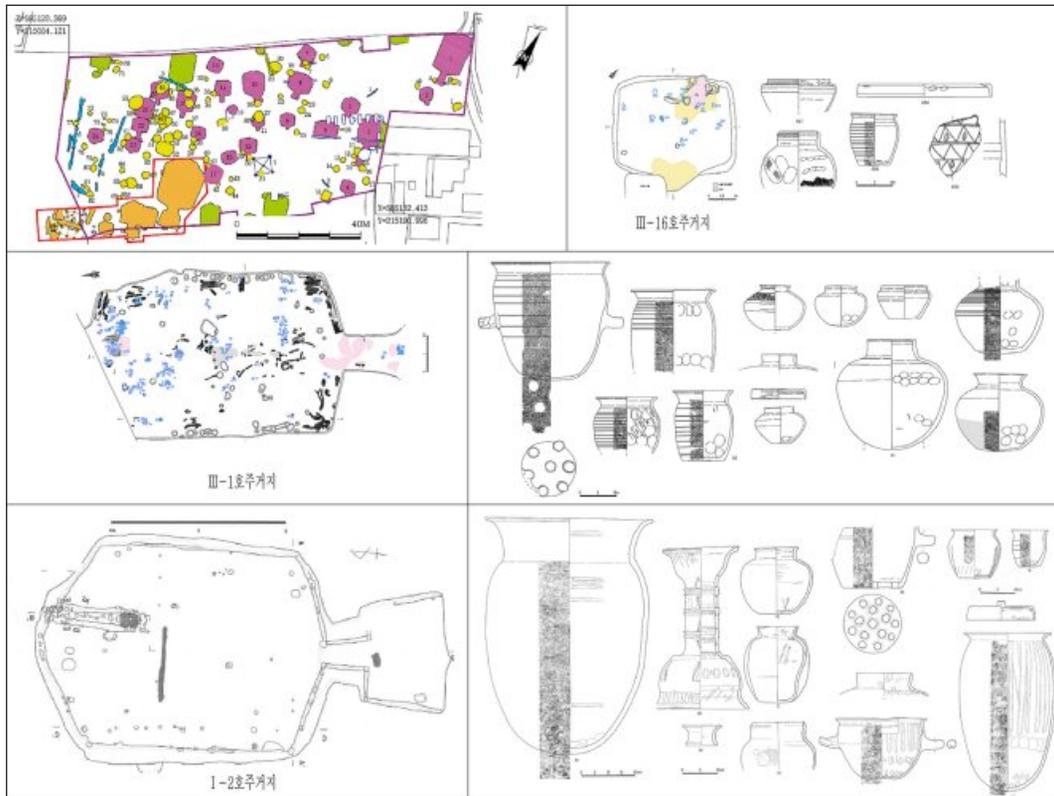
포천 중리 유적 인근에 위치한 사정리 모래내 유적은 총 29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취사시설을 명확히 파악 가능한 유적 21기 중 아래의 <도면 11>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취사시설 배치양상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측장벽에서 시작해 후단벽으로 배연되는 짧은 모퉁이 쪽구들의 형태가(모퉁이쪽구들) 6기이고, 일자형부뚜막에 노지가 함께 시설된 형태가 9기이다. 대체로 포천 중리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는 측장벽 쪽구들 시설 주거지와는 다르게 짧은 (모퉁이)쪽구들 내지 일자형부뚜막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주거지 장축 방향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부뚜막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삼국시대 이래로 전통적 주거지 조성 방식이 지속되었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퉁이 쪽구들 주거지에서 삼각형 투공을 한 백제식의 시루가 확인되는 것도 한성백제기에 진입했음에도 전통적 취락이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시루 이외에는 경질무문토기 이외에 특징적인 양상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주거 면적은 모퉁이 쪽구들 주거지에서 가장 큰 64㎡가 확인되고 있어 소규모의 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퉁이에 쪽구들이 후단부쪽으로 꺾이는 형태는 이 유적을 비롯해 풍납토성(미래 라-18호주거지)에서도 확인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측장벽쪽구들+노지	모퉁이쪽구들+노지	모퉁이부뚜막+노지	후단벽부뚜막+노지	노지없는 부뚜막
8,10,16(59㎡)	2(64㎡),7,11,14,20,21	1,5(47㎡),12,13	15(45㎡),22,23,26,28	18,19(40㎡)
		-	-	

<도면 11> 포천 사정리 모래내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12) 포천 자작리 유적(경기도박물관 2004·2015)

이 유적은 총 26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일부 짧은 부뚜막이 시설된 소형의 방형 주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철자형 주거지에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된 주거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다른 취사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취락이 아니라 한성백제기에 조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I-2호주거지는 면적 180㎡로 기대를 비롯한 대웅, 직구호, 뚜껑, 동이, 시루 등이 출토되고 있다. 풍납토성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확인된 여·철자형 주거지 중 최대크기이다. 이후에 조사된 Ⅲ-1호주거지의 경우도 120㎡에 달하고 출토유물 상에서도 견문 문양대가 있는 소형호나 합, 시루, 뚜껑 등의 존재로 그 위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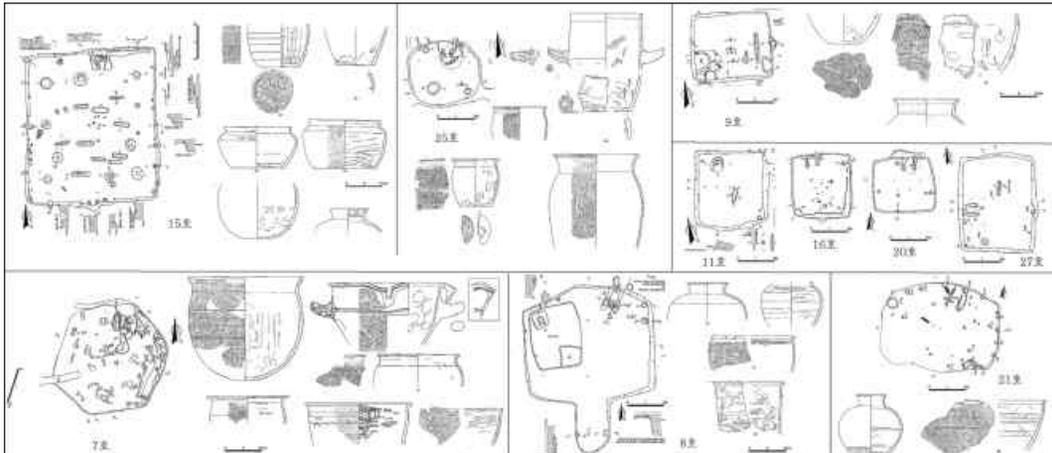


〈도면 12〉 포천 자작리 유적 주거지와 출토유물

13) 양주 옥정동 유적(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이 유적에서는 총 28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육각형 주거지가 7기, 방형 주거지가 14기 확인되었다. 육각형 주거지 중 단 2기(10, 24호)를 제외하고 장축은 남북방향이며, 방형 주거지는 모두 남북방향이다. 육각형 주거지에서는 동이와 시루, 호류, 병류 등이 확인되었

고, 각진의 육각형 주거지(7호)도 확인되었다. 방형 주거지 중 15호주거지가 가장 큰데 75.8m²이다. 이 주거지에서 백제 중앙양식 토기인 합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방형의 소·대형주거지는 소위 ‘마한계주거양식’으로 실제 25호주거지에서는 4주와 마한계 시루도 출토된 바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육각형주거지계(예계)와 방형주거지계(마한계)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면 13〉 양주 옥정동 유적 방형 주거지(상)와 육각형 주거지(하)와 출토유물

IV. 임진강 유역 지역 취락의 특징과 정치체의 동향

1.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취락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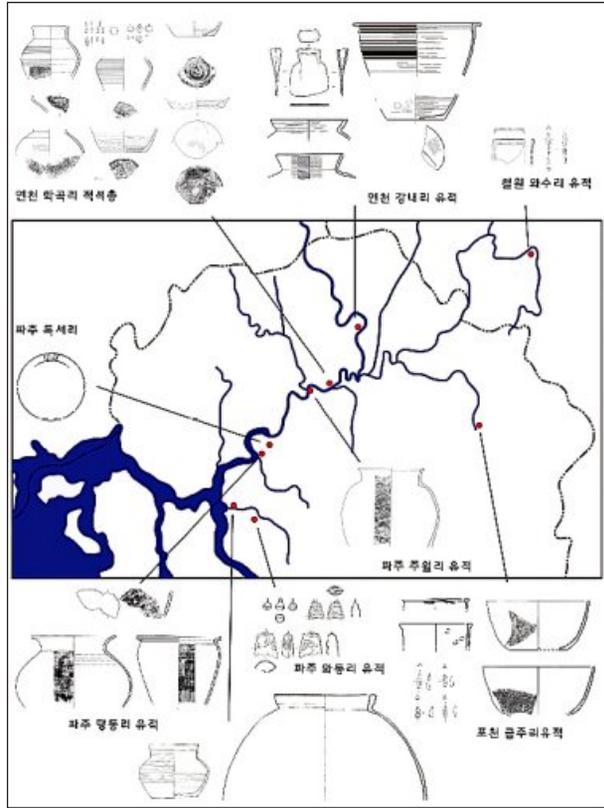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은 수계를 중심으로 한 서북한지역과의 물자 이동 등 교역에 기반해 취락이 발전했다. 따라서 낙랑을 포함한 외래계 유물의 분포양상을 보면 대부분 중요 수계를 중심으로 확인되며, 임진강 유역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도면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외래계 유물은 토기류의 경우 평저호, 원저호, 분형토기, 완, 용, 화분형토기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된다. 금속기류는 대표적으로 삼릉형 철경동촉을 비롯해 동령, 동탁, 동경, 지환과 이조선 돌대주조철부과 철산 등이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유리옥류와 금박환옥 등이 있다. 철경동촉 등의 유물로 보아 기원전 1세기 ~ 기원후 1세기 경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황윤희 2013)되며 취락의 존재 시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낙랑(계)토기는 이후 재지화되는 경향이 강한 단경호와 평저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이 3세기 전반대를 기점으로 급

격히 소멸하는 양상이 확인된다(황주희 2013). 임진강 유역에서도 동체부에 촘촘한 침선이 부가된 평저호류(연천 학곡리 적석총, 연천 삼곶리 적석총 등) 등을 제외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강 유역에서도 대부분 유구 출토품이 적어 교차편년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다만 연천 강내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측장벽 쪽구들이 부가된 주거지(39호)에서는 분형토기를 비롯해 鐵罐이 출토되고 있다. 측장벽 쪽구들이 부가된 주거지는 대부분 2세기 후반 ~ 3세기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공반되는 외래계 유물의 유입 시기를 추정한 기준 편년²⁾과는 차이가 있다.

원삼국시대 대표적인 취락의 평면 형태는 여·철자형 주거지이며, 오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육각형이 소수 확인된다. 또한 취사시설의 경우 노지와 쪽구들이 확인되는데 쪽구들은 측장벽에 설치된 것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후단벽과 모퉁이에 설치된 사례가 소수 확인된다.

측장벽 쪽구들의 경우 여·철자형 주거지에서 3세기에 경기북부권과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강원권에서는 후단벽 쪽구들 이외에 측장벽 쪽구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경기남부권의 경우도 소량 확인될 뿐이다(한지선 2015). 따라서 측장벽 쪽구들의 경우는 경기북부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임진강 유역도 예외는 아니다.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취락에서 원삼국시대의 경우 측장벽 쪽구들이 시설된 주거지 비율이 압도적이다. 또한 연천 강내리 유적이거나 연천 삼곶리 유적 등 임진강 상류 지역에서는 노지나 부뚜막이 시설된 주거지보다 쪽구들이 시설된 주거지의 주거 면적이 크고 공반유물도 외래계유물을 비롯해



〈도면 14〉 임진강 유역 낙랑유물 출토현황(황유희 2013)

2) 김무중(2013)은 철산이 중국에서 戰國~漢代에 걸쳐 사용되며, 전국시대에는 돌대가 없다가 한대에 이르러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아 강내리 39호주거지 출토 철산의 유입시기는 후한(後漢, 25년~220년) 전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측장벽 쪽구들의 중심시기는 3세기이다.

다양한 점으로 보아 중심 거점 취락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포천 중리과 용수재울 유적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원삼국시대 측장벽 쪽구들 단계에서 일자형부뚜막과 노지가 함께 공반되는 단계를 거쳐 일자형부뚜막단독으로 설치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한성백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통설인데, 이것과 관련해 임진강 유역 취락에서는 예외적인 양상이 확인된다. 풍납토성에서와 같이 편년의 중심이 되는 유적에서는 이러한 계기적 변화(쪽구들→부뚜막 시기적 단절성)가 중복을 통해서든 장축의 변화 등을 통해서든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천 강내리 유적에서는 쪽구들 주거지와 일자형부뚜막이 단독으로 시설된 주거지가 함께 확인되고 있지만 장축의 변화(남북→동서)가 있어 이를 추적한 결과, 이 두 가지 장축 모두에서 쪽구들이 시설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성백제기에 진입한 이후에도 쪽구들 주거지가 일정 기간 공존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는 영서지역에서 노지를 설치한 육각형주거지에서 한성백제기 토기가 나오는 사례(한지선 2018)도 유사하게 보이는데, 큰 변화의 흐름은 있더라도 전통적 문화가 고수, 유지되는 시간적 차이에 의해 지역별로 제 양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과도기적 양상은 포천 모래내 사정리 유적에서도 유사한데, 여기서는 특히 모퉁이에 짧게 꺾이는 쪽구들³⁾이 노지와 함께 시설된 주거지가 다수 확인된다. 물론 일자형 부뚜막과 노지가 시설된 주거지도 확인되며, 상호간의 장축의 변화도 중복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거지 형태만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유적도 이 유적이 거의 유일하다. 모퉁이 쪽구들 주거지에서 삼각형 투공 시루가 출토되는 점 등으로 보아 한성백제기 진입 후 과도기적 양상으로 파악되는데, 왜 이 유적에서만 유독 이러한 모퉁이 쪽구들과 노지가 딸린 일자형 부뚜막 주거지가 밀집 분포하고, 측장벽 쪽구들 주거지와 일자형 부뚜막 단독 주거지의 비중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은 취락의 존속기간이 짧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쪽구들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일자형부뚜막이 설치된 취락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포천 자작리 유적이 대표적인데 확인된 주거지 전량이 한성백제기 일자형부뚜막이 단독 시설된 주거지에 해당된다. 원삼국시대 주거요소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유적은 이외에도 파주 와동리, 파주 동파리, 양주 옥정동 등이 있다. 이는 원삼국시대에 없었거나

3) 송만영(2018)은 필자가 언급한 모퉁이 쪽구들이 일자형 부뚜막의 조형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부뚜막은 후단벽 쪽구들→측장벽 쪽구들→모퉁이 쪽구들→일자형부뚜막으로의 계기적 변천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모퉁이 쪽구들→일자형부뚜막으로의 변화를 3세기 전·중엽 경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확인된 수량이 매우 소략하여 이 형식이 확인되지 않는 유적의 경우 모퉁이 쪽구들이 생략된 채 측장벽 쪽구들에서 일자형부뚜막으로 변천된 것인지, 일자형부뚜막의 출현에 있어 다른 루트로 전달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매우 소형급의 취락이었다가 한성백제기에 신생 내지 급성장한 취락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양주 옥정동, 파주 외동리, 당동리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마한계 주거지의 존재이다. 마한계 주거지는 평면 정방형의 사주식 혹은 무사주식의 짧은 부뚜막이 부가되는 형태이다. 한성백제기 말기 장방형의 소형 장방형 주거지와는 구분되는 양상인데 이러한 주거양식이 임진강 하류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옥정동 유적에서 마한계 시루가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마한계 집단의 취락 내 거주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방형계 주거지 중 취락 내 면적이 가장 큰 옥정동이나 외동리에서는 합과 흑색마연토기 직구호 등 위계를 보여주는 한성백제 중앙양식토기도 함께 출토되고 있어 백제 중앙과의 관련성 내지 시기성을 엿볼 수 있다.

임진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원삼국시대에는 외래계 유물 이외에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이외에 특징적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질무문토기로는 시기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기종의 출현을 기점으로 각 유적의 하한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자의 한성백제기 4기 분기설정(한지선 2013)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검토한 것이 <표 6>이다.

〈표 6〉 임진강유적 취락의 주거지 형식별 양상

주거지 형식별 유적별						
연천 강내리	<p>68호 주거지</p>	<p>70호 주거지</p>	<p>27호 주거지</p>	<p>4호 주거지</p>	<p>58호 주거지</p>	<p>15호 주거지</p>
연천 삼꽃리	<p>6호 주거지</p>	<p>7호 주거지</p>	<p>64호 주거지</p>	<p>3호 주거지</p>	<p>2호 주거지</p>	<p>2호 주거지</p>
포천 중리 포천 용수재울	<p>중_서2호 주거지</p>	<p>중_1호 주거지</p>	<p>중_11호 주거지</p>	<p>중_5호 주거지</p>		
포천 사정리	<p>16호 주거지</p>	<p>2호 주거지</p>	<p>15호 주거지</p>	<p>19호 주거지</p>		
파주 주월리 포천 자작리				<p>주월리_96-7호 주거지</p>	<p>자작리_1-2호 주거지</p>	
파주 동패리				<p>6호 주거지</p>	<p>10호 주거지</p>	
양주 옥정동				<p>21호 주거지</p>	<p>15호 주거지</p>	<p>8호 주거지</p>
파주 와동리				<p>14호 주거지</p>	<p>20_5호 주거지</p>	
기타유적	<p>당동리 6호 주거지</p>			<p>호성리 B-1호 주거지</p>	<p>산유리_1호 주거지</p>	<p>당동리_2호 주거지</p> <p>당동리_4호 주거지</p>

2. 임진강 유역의 정치체의 동향

정치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중도유형문화 내지 예계문화권에서는 원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에서 위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군이 거의 없고, 출토유물도 소략하여 그 대안으로 주거 면적에 착목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주거지 면적 통계상의 평균(약 60㎡)을 기준으로 유적 내에서의 주거면적간의 격차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노지 주거지와 일자형부뚜막 주거지 면적간의 상당한 격차와 공반유물의 상관성 등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한지선 2015).

따라서 임진강 유역 취락의 위계와 관련하여 출토유물, 주거면적을 기준하고, 취사시설, 장축방향 전환 등 제 양상 검토를 통해 시기성을 나누어 이 지역 정치체의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정치체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삼국시대 주거 전통이 한성백제기 까지 유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군 전통적 강세 취락

먼저 가장 주목되는 취락은 연천 강내리 유적으로 노지(A)단계에도 가장 큰 주거면적(120㎡)을 보였는데 쪽구들 단계에서도 150㎡급(27호)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거점 취락을 형성하여 서북한지역과의 교역 등에서 우위를 점했던 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육각형 일자형부뚜막 주거지와 장축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쪽구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초대형의 주거지가 확인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적인 문화가 강하게 잔존했던 지역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적에서 확인되는 육각형 일자형부뚜막 단독의 주거지 규모가 소형급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성백제기 어느 시점부터는 그 세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화천 원천리 유적이거나 홍천 성산리 유적 등은 기존의 전통적 주거 전통과 대별되는 육각형 일자형부뚜막 주거지를 축조하면서 그 면적이 이전에 비해 월등히 커지는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2군 신흥취락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바로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된 주거지만이 확인되는 유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포천 자작리 유적이다. 총 24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전량 일자형부뚜막이 시설된 육각형주거지이다. 따라서 한성백제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조성된 취락으로, 1호주거지의 면적이 지방 유적내에서는 가장 큰 180㎡를 보이고, 유물에 있어서도 기대를 비롯한 합, 직구소호와 각종 호류 등으로 보아 최상위급의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군 소규모 장기 존속 취락

장기 존속이란 원삼국시대부터 한성백제기에 이르기 까지 소규모(60㎡이하)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으로 쪽구들 단계에서 일자형부뚜막 단계, 짧은 부뚜막이 달린 소형의 (장)방형주거지 등이 확인되는 유적을 말한다. 임진강 유역권에서는 연천 초성리, 합수리와 파주 선유리, 당동리, 운정, 와동리, 양주 옥정동 유적 등이 해당되거나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임진강 유역 하류역에 위치한 유적들의 경우 마한계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합과 같은 한성백제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존속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수계를 따라 분포한 소규모 취락으로 원활한 교역을 위한 중간 기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군 과도기적 취락

원삼국시대 이래로 한성백제기 도래 전후한 과도기까지 존속하다가 취락이 소멸되거나 이주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포천 사정리 모래내 유적이 대표적인데, 유적내에서도 쪽구들 주거지와 부뚜막 주거지 모두 확인되지만 그 사이에 모퉁이 쪽구들과 일자형부뚜막에 노지가 부가된 주거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모퉁이 부에 짧은 쪽구들을 설치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일자형부뚜막에 노지가 함께 설치된 주거지와 함께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삼국시대 후기~한성백제기의 과도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1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삼각형투공 시루의 존재 등으로 보아 이 유적의 경우 한성백제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과도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존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취락별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삼국시대 이래 한성백제기에 들어서면서 중심세력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큰 거점 취락은 연천 강내리 유적(1군)이었다. 연천 삼꽃리 유적(생산지)과 함께 철생산 품목의 유통과 더불어 낙랑군이나 고구려와의 접경지, 즉 예계문화권의 북부 전선에 위치하고 있어 북쪽지역과의 다양한 물자 교류를 담당한 교역의 중요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지선 2015). 또한 임진강 하류와 중상류에 일부 소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어 그러한 물자 수송을 비롯한 다양한 보조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다(3군). 그러나 한성백제기에 들어서면서 성립기(한성백제 I기)단계에서는 연천 강내리 유적이 잠시 존속하지만 이후 파주 주월리 유적을 중심으로 중심세력권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

천 강내리 유적에서 육각형 일자형부뚜막 주거지의 면적을 축소되었지만 파주 주월리 유적은 120㎡급으로 새롭게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성백제 중앙양식토기의 대거 유입은 이러한 중심세력권 변동에 백제 중앙세력의 힘이 실렸음을 보여준다.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는 한성백제 2기 전후 단계의 유물만이 확인되고 더 이상의 위계품도 확인되지 않지만, 포천 자작리 유적 I-1호주거지는 180㎡급으로 서울 풍납토성(가-30호수혈건물지(300㎡))을 제외하고 여·철자형주거지 중에서는 가장 크며 기대, 합, 뚜껑, 직구소호, 외반소호 등 다양한 중앙양식토기가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기대의 경우 완형인데다가 지방에서는 출토된 단 세 곳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I-2호주거지에서는 중국제 자기편도 출토된 바 있다.

앞선 시기별 거점취락 뿐만 아니라 한성백제 중앙양식토기 중 유일하게 지방에 다수 출토되고 있는 흙의 출토양상을 보자면 중형급이상의 취락도 함께 존속, 성장해 나갔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임진강 하류역의 파주 와동리 유적에서는 흑색마연토기 직구단경호편이나 토제절구, 평저소호, 주조철부와 동령과 동탁 등의 금속기까지 출토되고 있어 면적(76㎡)에 비해 유물의 위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근 동패리 유적은 주거지는 오히려 더 큰데(120㎡) 출토 유물은 토제절구를 비롯한 소합과 시루, 소호류가 확인되고 있어 와동리에 비해 빈약한 편이나 이 취락 역시 중형급의 중소도시로서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포천 자작리나, 파주 주월리 유적, 파주 동패리 유적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쪽구들 단계보다 일자형 부뚜막이 채용되는 단계의 주거지 면적이 축소되는 경향이 확인된다⁵⁾. 이는 백제의 통제권 하에 과거의 정치력이 그만큼 축소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는데, 오히려 일자형 부뚜막만 확인되는 취락, 신흥취락으로 분류되는 파주 주월리 유적이나 포천 자작리 유적과 같은 취락에서 매우 큰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일자형부뚜막 단계에서의 임진강 유역권의 한성백제기 세력 재편은 전통취락을 배제하고 전통적 세력이 미비했던(노지단계에서 주거 면적이 매우 작거나 소량인) 지역이나 아예 새로운 지역에 ‘신흥취락’을 형성시키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4) 지방 유적에서 기대는 황성 읍하리유적(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과 충주 탐평리 유적(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2), 포천 자작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은 자작리 유적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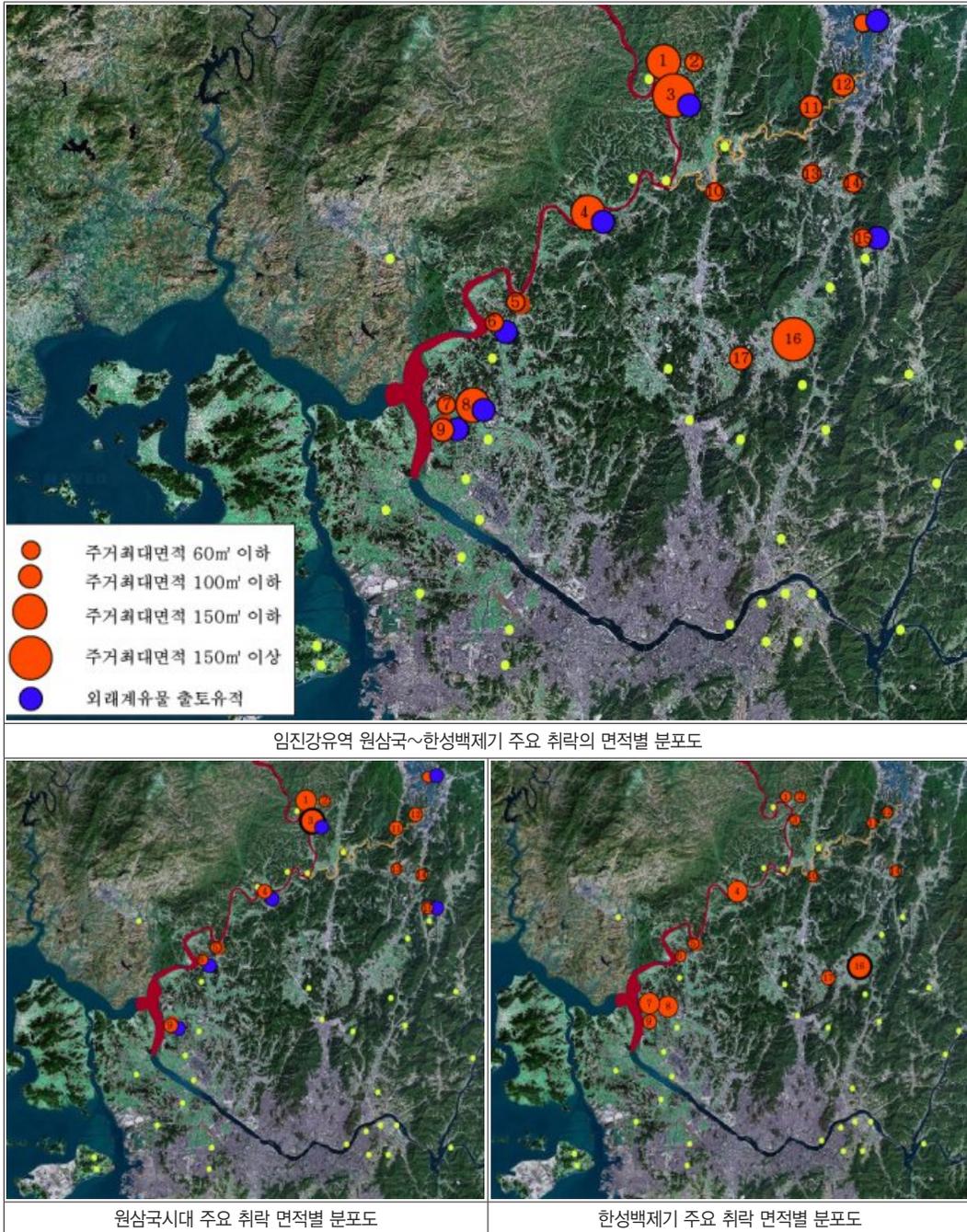
5) 영서지역에서는 일자형부뚜막이 채용되는 단계의 주거지 면적이 월등히 커지는 경향을 보여 경기북부권과 대조를 보인다(한지선 2015).

V. 맺음말

임진강 유역의 취락들은 대부분 노지가 단독으로 설치되는 단계와 함께 측장벽 쪽구들이 설치된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고 이후 일자형부뚜막이 육각형 주거지에 설치되는 등 일관된 변천이 확인된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주된 두가지 주거 속성이 공존하는 약간 병행기 내지 과도기적 양상도 함께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임진강 유역권에서 확인된 취락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 강내리 유적이나 파주 주월리 유적, 인근의 포천 자작리 유적 등의 발굴성과는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취락의 양상과 정치체의 변동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초기 유적들은 임진강 수계와는 떨어진 내륙 산간에 입지한 경우가 다수였지만 서북한 지역과의 교역이 본격화 되고 외래계 유물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점차 수계에 인접하여 취락을 형성, 발전시켰다. 특히 원삼국3기 단계인 3세기를 중심으로 취락이 급성장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그 중심에는 연천 강내리 유적이 있었다.

한성백제기 성립 이후에도 이들 지역에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 강내리 유적에서도 소형의 육각형 부뚜막 주거지와 대형의 쪽구들 주거지가 일부 공존한 양상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대형의 육각형 부뚜막 단독 주거지가 축조되면서 거점취락으로서의 중심지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배후에는 백제 중앙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존의 전통적 강세취락을 소멸 내지 축소시키고, 새로운 거점 취락을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세력 재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상응하게 한성백제 중앙양식토기 중 가장 위계가 높은 기대와 중국제 자기류 등의 유물을 사여하는 방식이나 중형급의 취락 이터라도 흑색마연토기 직구호 등의 사여를 통해 교통로상의 장악에 힘쓴 결과는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도면 15〉 임진강유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취락의 면적별 분포도

참고문헌

- 강세호,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주거와 취락구조」,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물질문화』 중부고고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 金武重, 2013, 「戰國 灰陶 및 樂浪土器와 中部地域 打捺文土器의 展開」, 『韓國基督教博物館誌』第10號,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金一圭, 2006, 「漢江 中下流域의 中島式土器 編年小考」,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釜山考古學研究會 論叢刊行委員會.
- 김장석·김준규, 2016,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토기편년-중부, 호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90, 韓國考古學會.
- 김준규, 2013, 「중도식무문토기 상대편년 연구-경기 북부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17, 「북한강유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토기 편년 시론」, 『고고학』16-3, 중부고고학회.
- 박경신, 2011, 「전환기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환경」, 『국가형성기 한국백제의 고고학적 검토』 2011 한국상고사학회 제 1회 워크샵, 한국상고사학회.
- , 2012,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취락구조」, 『고고학』11-2호, 중부고고학회.
- , 2015, 「북한강유역 원삼국시대 취락 편년」, 『崇實史學』34, 崇實史學會.
- , 2016, 「중부지역 외줄구들의 편년과 전개양상」, 『고고학』15-3호, 중부고고학회.
- 박순발, 1996, 「漢城百濟 基層文化의 性格-中島類型文化의 性格을 中心으로-」, 『百濟研究』2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박중국, 2011, 「원삼국기~백제 한성기 중부지역呂자형 주거지 변천과 지역성-쪽구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고학』10-1호, 중부고고학회.
- , 2012, 「중도문화의 지역성」, 『중앙고고연구』제11호,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 2013, 「백제 한성양식토기의 분포현황 검토」, 『漢江考古』제9호, 한강문화재단연구원.
- , 2016, 「중부지역 쪽구들 문화의 계통과 전개」, 『고고학』15-1, 중부고고학회.
- 宋滿榮, 1999,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編年의 基礎-住居址의 相對編年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第41輯, 韓國考古學會.
- , 2010, 「六角形住居址와 漢城期 百濟聚落」, 『韓國考古學報』74, 韓國考古學會.
- , 2018, 「중도식 주거외줄구들 다원기원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고고연구』26,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李丙勳, 2011, 「原三國-漢城百濟期 中部地方 外줄구들의 變遷過程」,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 2016,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외줄구들 유형의 변천과정 재검토」, 『古文化』8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이준호, 2003, 「토기의 형식분류론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영동지역 출토 중도식토기 편년론과 관련하여」, 『文化財』, 국립문화재단연구소.
- , 2009, 「중도식토기의 개념과 상대편년에 대한 검토」, 『정리적 공간으로서의 한강A』, 서울경기고고학회.
- 이승재, 2009,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중도식 무문토기 연구」, 『선사와 고대』30, 한국고대학회.
- 이창희, 2015, 「탄소14연대를 이용한 중도식토기의 연대」, 『중부지역 한성기 백제 주변 정치체의 동향』제11회 매장기념강좌,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진수정, 2009, 「고찰-5. 가평 대성리유적의 출토유물-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加平 大成里遺蹟』, 京畿文化財研究院.
- 韓志仙, 2003, 「土器를 통해 본 百濟 古代國家 形成過程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9, 「한강을 통한 백제 정치적 영역확장」,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한강』I 2009 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

- 술대회, 서울경기고고학회.
- , 2013,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 『中央考古研究』제12호, 中央文化財研究院.
- , 2015, 「삼국시대 영서지역 정치체와 물질문화 변화」, 『중부지역 한성기 백제 주변정치체의 동향』 제11회 대장기념강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 2018, 「한성백제기 강원지역 물질문화와 지역 정치체」, 『고대 강원의 정치체와 물질문화』 제1회 강원 고대문화 연구 심포지엄, 국립춘천박물관.
- 황윤희, 2013, 「임진강 유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유물-외래계유물의 출토현황과 성격」, 『韓國基督教博物館誌』제9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홍주희, 2013, 「북한강 유역 원삼국시대 외래계 토기」, 『韓國基督教博物館誌』제9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風納土城Ⅴ』.
- , 2014, 『한성백제 건축유적 유형분류와 복원연구』.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3, 『忠州 塔坪里 遺蹟(中原京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 高麗文化財研究院, 2012, 『漣川 江內里 遺蹟』.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동패리 유적』.
- 겨레문화재연구원, 2016, 『포천 중리 용수재울 유적 I』.
- 京畿道博物館, 2004, 『抱川 自作里遺蹟 I』.
- , 2015, 『포천 자작리유적Ⅲ』.
- , 1999,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 , 1999, 『坡州 舟月里 遺蹟』.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汶山 堂洞里 遺蹟』.
- , 2010, 『坡州 瓦洞里Ⅲ 遺蹟』.
- , 2011, 『坡州 瓦洞里Ⅳ 遺蹟』.
-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포천 중리 유적』.
-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 『횡성 읍하리 유적』.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6, 『연천 청산-백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中央文化財研究院, 2014, 『抱川 射亭里 모래내遺蹟』.
- , 2011, 『坡州 雲井遺蹟 I』.
- , 2011, 『坡州 雲井遺蹟 II』.
- 韓國文化遺産研究院, 2012, 『楊州 玉井洞 遺蹟』.
- , 2013, 『坡州 仙遊里 遺蹟』.
- , 2015, 『抱川 中里 馬山遺蹟』.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 『연천 삼꽃리 유적』.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합수리 (H구역)·취우당지유적』.

임진강 유역 삼국의 성곽과 관방체계

심 광 주
(토지주택박물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신라 성곽과 관방체계 |
| II. 백제 성곽과 관방체계 | V. 맺음말 |
| III. 고구려 성곽과 관방체계 | |

I. 머리말

임진강은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한반도의 중부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다. 마식령산맥이 뺨어 내리는 백두대간의 두류산(1,324m)에서 발원한 임진강은 254km를 흘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서 한강으로 합류된다. 남동부의 광주산맥, 북서부의 아호비령산맥, 북동부의 마식령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를 유역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8,118km에 이른다.

‘산은 나누고 강은 합친다’고 하지만 임진강은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역사상의 갈등기마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임진강의 양안에는 임진강이 용암대지 위에 만들어 놓은 15~20m에 달하는 거대한 천연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百里長城’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직절벽은 임진강을 天惠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게 했다. 임진강이 셋강과 만나는 곳에는 여울목이 형성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형성되었다.

임진강을 건너는 교통로만 방어하면 적의 침략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으므로 여울목이나 나루터 인근에 성곽이 구축되었다. 병자호란 당시에도 청나라의 기병을 막으려면 ‘천연의 垓子’인 임진강의 여울과 나루터를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긴요한 방어책이라는 견해가 조정에서 무수히 거론된 것도 이와 같은 임진강의 지리적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¹⁾ 강변에 구축된 성들은 渡河하는 적을 저지하는 기능 외에 육상 교통로와 임진강의 수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

1) 김중혁, 2000, 「연천군의 역사지리」,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66쪽.

했다.²⁾

임진강 유역 삼국의 관방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진강 유역에 소재하는 성곽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이었던 임진강 유역은 오늘날에도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어 연천군 왕징면 이북지역으로는 접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식령, 안협, 이천에 이르는 임진강 상류지역의 성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임진강 유역 삼국의 관방체계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된 성곽들의 축성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축성주체와 축성시기에 따라 축성법이 달랐으므로, 축성법을 통해 축성주체와 축성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축성주체에 대한 구분없이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성곽과 교통로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상정하고 관방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그대로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했던 당시의 실제적 상황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곽의 분포양상은 축성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대의 전쟁은 성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점령지역에 대한 관리도 성곽이 담당했다. 그러므로 국경인지, 주요 교통로인지, 아니면 도성이나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지에 따라 성곽의 분포양상이 달랐다. 임진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성곽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축성주체와 축성시기에 따라 임진강 유역이 어떻게 경영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임진강 유역에 대한 국가별 점유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임진강 유역을 점유했던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는 475년이 그 하한이 된다. 고구려의 남진과 함께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게 된 임진강 유역은 553년 이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에 따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신라가 120여 년간 대치하게 된다.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멸망 이후, 임진강 유역은 온전히 신라의 영토에 속했다. 임진강이 백제의 영역이었던 시점과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시점은 적게는 76년에서 많게는 500년 이상의 시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관방체계와 축성법은 서로 다른 것이지, 기술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의 삼국시대 성곽 중 백제성은 육계토성, 월룡산성, 고모리산성 등이 조사되었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양상이 확인된 것이 없다. 고구려성은 덕진산성,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무등리1·2보루에 이르기까지 삼국의 성곽 중 가장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신라성은 오두산성과 칠중성, 대전리산성, 대모산성, 반월산성 정도지만 오두산성과 칠중

2)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131쪽.

성을 포함하여 임진강에 접한 신라성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발표는 이러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진강 유역의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성곽을 중심으로 축성법과 관방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백제 성곽과 관방체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임진강 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것은 백제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왕 13년(BC 6)에 백제의 강역은 이미 북으로는 溟河(예성강), 남으로는 熊川(안성천), 서쪽으로는 大海(서해), 동쪽으로는 走壤(춘천)에 이르렀다고 했다. 국가의 성립과정이나 고고학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온조왕대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확보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연천 일대에서 확인되는 무기단식 적석층의 존재로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제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백제 초기 임진강 유역에는 靺鞨이나 樂浪의 侵入이 빈번했다. 이 시기 靺鞨로 지칭되는 東濊族들은 원산만 지역을 근거지로 하였는데 추가령구조곡에 형성된 古代 交通路를 따라 평강과 철원을 지나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 자주 등장했다. 백제에서는 이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칠중하와 功木達縣 등 적성과 연천 일원과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 쪽에 주로 토성과 木柵 위주의 성을 쌓았다.

『삼국사기』에는 한성백제의 성곽명칭은 34개가 등장하며 축성된 성은 24개가 등장한다. 마수성 · 한산성 · 석두성 · 고목성 · 대두산성 · 탕정성 · 고사부리성 · 우곡성 · 북한산성 · 적현성 · 사도성 · 청목령성 · 관방성 · 쌍현성 · 사구성 · 한산하목책 · 병산책 · 독산책 · 구천책 · 웅천책 · 사도성 옆의 두목책 · 청목령목책 등이다. 성곽의 수축기사도 2회의 위례성 수축을 비롯하여 원산성 · 금현성 등 모두 7회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초축이나 수축기록 없이 성의 이름만 기록된 것은 우곡성 · 술천성 · 부현성 · 낭자곡성 · 석문성 · 독산성 · 수곡성 · 팔근성 · 관미성 · 한산성 · 북성 · 남성 등이다. 성곽의 축성이나 수축기록은 한성백제기가 웅진 · 사비기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 이는 급격한 영토확장에 따라 성을 쌓고 관리하는데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성시기 백제의 성은 城과 柵으로 구분된다. 성의 명칭이 확인되는 34개 중에서 8개의 책이 등장하여 전체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성이 책으로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성백제기에 구축된 柵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후기 순조 11년(1811) 洪景來의 반군을 공격할 때의 내용을 담은 병풍그림인 ‘辛未定州

城攻圍圖'에는 관군이 주둔하던 임시 營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통해 목책은 일정한 간격으로 굵은 나무기둥을 땅에 박고, 나무기둥 사이에는 목주를 연결하여 세우고, 내외벽의 중간에 橫木을 걸구하여 고정시키는 형태로 추정된다.³⁾



〈그림 1〉 左-신미정주성공위도 중의 목책(조), 右-길성리 토성의 목책유구

백제의 목책도 이러한 구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최근의 발굴조사 사례를 보면 단순 목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토축부를 조성하고 목책을 설치하는 형태였음을 알게 되었다. 화성 吉城里土城은 화성군 향남면의 태봉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둘레는 2,311m로 매우 큰 규모이다.⁴⁾ 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한 발굴 조사 결과 성벽은 기저부를 정지하고 성질이 다른 흙으로 交互盛土 방식으로 축조하였으며, 전형적인 판축기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그런데 토성벽의 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하며 토성벽의 상부에 0.9~2m 간격으로 폭 0.7~1.8m, 깊이 0.6~1.2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직경 20~30cm의 목주를 세워놓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목주는 목책유구로 추정되고 있다.⁶⁾ 토성부는 목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성곽방어의 주기능을 목책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길성리토성은 토성이라기 보다는 목책성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길성리토성과 유사한 구조가 천안 백석동토성에서도 확인된다. 백석동토성은 표고 100m 내외의 완경사 구릉지 정상부에 구축되었으며 전체 둘레는 260m이다. 지반을 정지하고 일정한 높이까지 성토다짐 후 굴광하여 130~150cm 간격으로 직경 20cm 내외의 목주를 세웠다. 이 유

3)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주류성, 216쪽.

4)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3, 『吉城里土城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5) 李奕熙,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쪽.

6)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화성 길성리토성』, 279~280쪽.

구를 영정주를 사용한 판축토성이라고 보았지만⁷⁾ 성토 후 목주를 세우기 위해 굴광한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석동토성 역시 목책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청주 석화리유구도 구릉 정상부 외곽을 감싸며 일정한 높이까지 성토다짐 후, 100~150cm 간격으로 목주를 박은 목책유구가 확인되어 동일한 기법으로 조성된 목책성으로 추정된다. 목주의 간격은 100cm, 125cm, 150cm 등 25cm 간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주를 세울 때도 임의로 박지 않고, 당시의 營造尺인 단위길이 25cm인 南朝尺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左-청주 석화리목책성, 右-천안 백석동토성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안성 도기동산성의 백제 목책은 지반을 계단식을 절토하고 기저부에 1.5m 간격으로 1열의 목주를 세워서 고정한 후 성토다짐 하였음이 확인된다. 도기동산성은 길성리토성이나 석화리목책의 경우처럼 성토 후 굴광하지 않고, 목주를 세우고 성토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⁸⁾ 목책에 토축이 보강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와 달리 대전 월평산성의 목책은 해발 130m 내외의 구릉 사면에서 확인되었다. 풍화암반을 방형으로 굴착하여 직경 1m, 깊이 1.1m 내외로 조성하고 직경 15~30cm 내외의 목주를 90cm 간격으로 배치하였음이 확인되었다.⁹⁾ 완주 배매산 목책은 해발 123m 정도의 독립구릉 사면에서 확인되었다. 목책은 능선을 따라 폭 60cm, 깊이 50cm의 溝를 파낸후 70~100cm 간격으로 직경 30~50cm의 구덩이를 파내어 목주를 세웠다. 출입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는 별도의 문기둥을 세웠으며 목주공 바닥에는 할석을 받쳐 놓았다.¹⁰⁾

7) 이남석, 1998, 「천안 백석동 토성의 검토」, 『한국상고사학보』제28호, 한국상고사학회, 75~93쪽.

8) 김진영, 2017,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고구려발해연구』제58집, 76~77쪽.

9) 국립공주박물관, 1999, 『대전 월평동유적』.

10) 전북대학교박물관, 2002, 『배매산-완주 봉동을 배수지 시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64쪽.

이러한 발굴조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백제 목책의 구조적인 특징은 1열의 목책렬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목책은 원지반을 정지하고 일정한 높이까지 성토 후 굴광하고 1m 내외의 간격으로 직경 25cm 내외의 목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보조목을 세워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柵은 백제의 전시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성을 쌓는 공력에 비하여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효율적인 방어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칭을 통한 입지를 살펴보면 柵은 병산책, 구천책, 청목령책, 탄현책 등 산이나 고갯마루에 주로 축성되었다. 城도 대두산성과 북한산성, 청목령성, 독산성, 한산성, 부현성, 적현성, 쌍현성 등 역시 산이나 고갯마루, 또는 강변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의 명칭만 보더라도 이 시기에 축성된 대부분의 성·책들이 산에 의지하여 쌓은 山城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에 柵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후에 城으로 개축하는 것으로 보아 책보다는 성이 안정적인 방어력을 담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漢山下木柵은 慰禮城으로, 禿山柵은 禿山城으로, 청목령목책이 청목령성으로, 熊川柵이 熊川城으로 개축되었다.

백제 초기에는 중국의 군현인 낙랑군과 대방군 역시 백제의 성장을 막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해 왔다. 낙랑이 직접 침략하기도 하고, 말갈을 부추겨 백제를 공격하게 하기도 했다. 『삼국사기』에 七重河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겨울 10월 말갈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아 싸워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렸다.¹¹⁾

임진강은 징파강, 구연강, 신지강, 칠중하, 호로하 등 위치에 따라 수 십 여 개의 이름이 있었다. 칠중하는 현재의 육계토성 부근의 임진강을 지칭한다. 당시 임진강변에 있었던 백제토성으로는 六溪土城이 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에서 수심이 낮아 주요 도하지점의 하나였던 가여울과 서쪽의 두지나루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있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 남안의 낮은 구릉성 충적대지(해발20m)에 내성과 이를 둘러싼 외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토성이었다.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성의 둘레는 1,945m이며 성 내부에서는凸자형 주거지와 呂자형 주거지 등 백제주거지에서 3~4세기 대를 중심으로 하는 다량의 백제유물과 고구려토기가 출토되었다.¹²⁾

그런데 靺鞨의 침입을 백제가 七重河에서 맞아 싸우던 시기에 과연 육계토성이 있었을까?

11)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8년조.

12) 배기동·황소희·이한용, 1999, 『파주 주월리 유적 -96·97 한양대학교 조사지역』, 한양대학교박물관. 이인숙·김규상, 1999, 『파주 주월리 유적 -96·97 경기도박물관 조사지역』, 경기도박물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록의 내용이나 육계토성에 대한 발굴 결과로 볼 때 말갈의 침입이 있었던 기원 전후 시기는 육계토성이 축성되기 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백제는 고이왕대에 이르러 경기도지역의 대부분을 백제의 권역에 포함하게 되었다. 근초고왕대에는 황해도에서 경기·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된다. 고구려의 남진으로 낙랑과 대방이 멸망함에 따라 4세기에 백제는 드디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백제가 고구려와 공방을 벌이는 주요 전투지역은 雉壤城(황해도 배천), 水谷城(황해도 신계), 溟河(예성강) 등 예성강 이북지역의 황해도 일대이다. 심지어 백제는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의 전과를 올리기도 한다.

이것은 4세기 대에는 백제의 국경이 예성강지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은 이미 백제의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임진강 유역에서의 전투 기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임진강 유역에서 많은 백제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예성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있어 칠중하와 호로하의 여울목은 중요한 교통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한성-적성-치양, 수곡 등으로의 교통로가 개설된 이후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계토성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漢城百濟 시기의 百濟城 중에는 고양 먹절산성과 포천 姑母里山城, 화성 疎勤山城 및 안성 望夷山城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파주 月籠山城과 의왕 慕洛山城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구조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과¹³⁾ 중앙문화재 연구원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된 고양 먹절산 유적은 한강 북안의 해발 27m 지점에 위치하며 전체 둘레는 300m로 추정된다. 성벽은 풍화 암반을 굴착하거나 土堤를 조성하고 외벽에서 내벽쪽으로 황갈색 풍화암반토와 회색점질토를 交互盛土했다. 출토유물은 삼족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으며 풍납토성 출토유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먹절산 유적의 축성시기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⁴⁾

姑母里山城은 포천시 소흘읍의 고모산(해발 386m)에 위치하며 전체 둘레 1,207m로 비교적 큰 규모의 백제성이다.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되고¹⁵⁾ 최근 추정 동문지구간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¹⁶⁾ 축성방법은 경사면을 삭토하고 상면을 성토하여 토루

13) 경기도박물관, 2005, 『고양 먹절산유적 -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14)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고양 먹절산 유적(1차)』, 73~81쪽.

15) 박경식 외, 2001, 『포천 고모리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16) 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포천 고모리산성 추정동문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약보고서』.

를 조성하였으며, 방어에 취약한 동벽구간은 할석으로 석축성벽을 조성하였는데 단과 열이 불규칙하고 성벽면이 정연하지 못하다. 고모리산성의 사용 시기는 출토유물을 근거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성 疎勤山城은 화성시 양감면의 소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629m이다. 경기도박물관에 의한 조사 결과 지반을 정지한 후 암반을 溝狀으로 길게 굴착하고, 사다리꼴로 설치한 영정주와 판목을 계속 이동시키면서 축조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을 근거로 5세기대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⁷⁾

안성 望夷山城은 안성시 일죽면의 망이산(해발 472m)에 구축되어 있으며, 전체 둘레 350m의 토성이다. 단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 결과 망이산성 성벽은 내부가 높고 외부가 낮은 지형을 이용하여 외측에 영정주와 판목을 설치하여 성토 후 이동시키며 토루를 쌓아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⁸⁾

경기도박물관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파주 월룡산성은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월룡산(해발 229m)에 위치하며 둘레는 1,315m에 달한다. 성벽에 대한 단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천연암벽을 이용하여 성토방식으로 축성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할석으로 성벽을 보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⁹⁾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된 慕洛山城은 의왕시 오전동과 내손동 경계의 모락산(해발 385m)에 위치하며 전체 둘레는 878m이다. 성벽은 토축과 석축 또는 토석 혼축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노출된 석축성벽은 다듬지 않은 부정형의 할석으로 성벽을 구축하였으며 성벽 단면을 보면 성토된 土築部 내에 작은 할석이 일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²⁰⁾

육계토성이나, 월룡산성, 고모리산성, 모락산성, 망이산성, 소근산성 등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한성백제시기의 산성들은 비교적 규모도 크고, 위치로 보아 각 방면에서 도성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들이다. 이 성들은 축성시점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축성기법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토성으로 구축되었거나 토성벽에 약간의 석축이 더해진 형태의 성곽이다. 토성의 축조기법도 削土와 盛土 중심의 단순한 토루에서 永定柱와 板木이 사용되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판축토성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포천 고모리성이나 파주 월룡산성, 의왕 모락산성 등의 백제성에서는 일부 석축도 확인되지만 모두가공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취약한 토성 구간을 보강한 형태이다. 백제 토성의 입지는 대

17) 경기도박물관, 2012, 『소근산성』.

18)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1996, 『望夷山城 發掘調査 報告書(1)』.

19) 경기도박물관, 2004, 『월룡산성』.

20)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의왕 모락산성』.

체로 평지나 완경사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도성의 규모는 3km 내외이며, 산성의 경우는 둘레 300m의 보루 규모에서부터 2.3km까지 입지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성곽이 있었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후대의 판축기법과 달리 여러 번의 공정에 의하여 성벽이 구축되었다. 축조공정은 풍납토성이나 소근산성, 망이산성처럼 중심에서 내외측으로 덧붙여 가는 방법과 길성리토성이나 증평 추성산성처럼 내측이나 외측에서부터 성벽을 덧붙여 나가는 방식이 확인된다. 성벽은 성질이 다른 흙을 交互盛土하였으며, 중심토루와 외피토루 간의 경계가 없거나 모호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벽을 쌓을 지반은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하거나 계단상으로 정지하여 지반과 성벽의 마찰력을 높였다. 토성의 내부에서는 목주공과 석열, 基槽라 불리는 溝狀施設이 확인된다. 목주는 성토공정이나 미끌림 방지와 관련된 것이고, 석열로 성벽의 작업구간을 구획하였으며, 구상시설은 성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敷葉工法은 토루나 제방의 하단에 식물유기체를 깔아 토층이 압력을 견디고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성토방법이다. 잎이 붙어 있는 나뭇가지를 깔면서 성토하는 방법은 동아시아의 고대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토축공법으로 풍납토성과 부여나성 등 백제성곽 뿐 아니라 신라유적인 울산 약사동 제방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한성백제 시기의 석축성으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산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²¹⁾ 한성백제 시기의 석재 가공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풍납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 고분군들이다.

21) 한성백제 시기의 석축산성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오랜기간동안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 시발점은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 포천 반월산성, 안성 죽주산성 등 경기도 일원의 산성들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하여 성벽 기저부다짐도와 성내에서 백제유물이 출토됨을 근거로 이 성들이 백제에 의하여 축조되었음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기저부에 섞여 들어간 유물들은 성벽 축성시점의 상한을 제한할 뿐 축성시기나 축성집단과는 무관할 수 있다.(김영, 2010, 「경기지역 산성의 백제축출설 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뿐만 아니라 공히 4~5세기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월산성, 설봉산성, 설성산성 등의 석축산성과 포천 고모리산성, 고양 먹절산유적, 의왕 모락산성, 화성 소근산성 등의 축성기법의 기술적 위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성인 풍납토성 내벽에는 왜 가공석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혈건물에 기와를 올리지 않는 것처럼 토목건축기술의 여러 요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성백제 시기의 석축산성 축성기법이 웅진·사비기의 도성에 왜 적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동나성·성흥산성·청마산성이 석축성이고, 축성방법은 자연환경에 따라 축성재료가 달라진다는 유형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오강석, 2007, 「百濟 漢城期 城郭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2쪽) 이는 오히려 이러한 성들의 석축성벽 축성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축성재료는 축성술과 축성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도 석재가 부족해서 토성으로 구축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근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산성 발굴조사를 총정리하는 전시를 하며 실시된 세미나에서 김호준은 삼국의 축성양상은 시기별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축성양상, 축성목적 및 성격, 주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등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지 토목공학적인 기술계통양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4~5세기에 등장한 한성백제 시기의 석축산성이 오히려 신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6~7세기 경기지역으로 진출한 신라가 전형적인 신라식 석축산성으로 증개축 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김호준, 2017,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 『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고미술분야 제7회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47~71쪽)

풍납토성은 성벽 내벽이 석축으로 마감이 되어있었음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성벽의 조성 양상을 보면 내벽은 부정형의 할석으로 막쌓기를 하고 강돌로 적심을 쌓아서 뒤채움했다. 방형으로 가공된 석재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상은 5세기대의 백제 토성으로 확인된 증평 추성산성도 마찬가지이다. 토성이지만 수구나 문구부 양쪽은 석재로 마감되었는데, 전혀 가공되지 않은 석재로 난층쌓기 했다.

한성백제 시기의 대형 구조물인 석촌동 적석총도 대부분 운모편암류의 지표에 노출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2차가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한성백제 시기에는 아직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 같은 단단한 석재를 잘라내어 가공하는 기술과 바른층쌓기로 정연하게 석축을 쌓는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한성백제 시기에는 목책이나 성토 다짐한 토성 위주의 성곽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Ⅲ. 고구려 성곽과 관방체계

고구려는 장수왕대에 이르러 북위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남조와도 통교를 하는 등 안정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427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다. 고구려군이 임진강 유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장수왕대이다. 475년 고구려는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후 고구려는 본격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출했다.

고구려의 남진시기 임진강 유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시되었다. 임진강 유역에는 고구려 본토와 새로 점령한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2개의 幹線道路가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평양과 한성을 이어주는 도로였으며, 다른 하나는 楸哥嶺構造谷을 따라 원산-한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교통로상의 거점에 성곽을 구축했다. 평양-한성을 이어주는 간선도로상에는 瓠蘆古壘와 아미성을 구축했다. 이때의 호로그루는 아직 지상성벽이 구축되기 이전단계로서 목책이 구축되어 있었다. 아미성은 감악산의 동쪽 마차산과의 사이에 형성된 협곡을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의 해발 260m 지점에 구축된 산성이다. 성내에서는 붉은 색의 고구려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신라에서 개축을 하여 고구려 성벽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원산-한성을 이어주는 간선도로상에는 隱堡里城과 전곡리토성이 구축되었는데 성벽의 기저부와 중심부는 판축을 하고 성의 안팎에는 돌을 쌓은 특이한 형태의 토성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은대리성은 한탄강의 북안에 위치한 삼각형의 강안평지성으로서 성의 둘레는 1,005m로서 호

로고루나 당포성에 비하여 규모는 크지만 성벽의 높이가 낮고 유구나 유물의 출토양상은 빈약한 편이다.

백제 漢城을 점령한 고구려는 이후 여세를 몰아 錦江 상류지역까지 진출하여 요새를 구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고구려유물이 출토되는 성곽으로는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유적, 진천 대모산성 등이 있다. 한강 유역에서는 몽촌토성이 일시적으로 재활용되며, 한강 이북지역에는 아차산과 망우산, 사패산과 천보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다수의 보루를 구축했다. 아차산에는 흥련봉 1보루와 2보루, 아차산 1-4보루, 용마산 1·2보루, 망우산 1~4보루, 시루봉보루, 봉화산보루, 상계동보루, 사패산 1·2보루, 천보산 2보루, 도락산 1~8보루, 독바위보루, 태봉보루에 이르기까지 20개 이상의 보루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교통로를 따라 線狀으로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보루들은 군사작전을 위한 보급로 확보가 주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간의 전투시 보급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요 길목을 통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했을 것이다. 평양이나 개성을 출발한 고구려군이 한강 유역의 보루들을 중간거점으로 하고 전략적 요충지의 곳곳에 보루를 구축하여 백제나 신라에 대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임진강 이남지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양상은 신라성곽의 분포양상과도 차이가 있다. 고구려 성곽과 상당부분 공간을 공유하는 경기도 지역의 신라 성곽은 대략 현재의 군단위 마다 1km 이상의 대형 성곽이 1~2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大城 사이사이에는 둘레 300~500m 정도의 보루가 배치되어 있다. 大城은 신라 군현의 치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²²⁾

백제의 경우에도 성곽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고대사회에 있어서 성곽은 군사적인 기능 뿐 아니라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기능을 포함하는 성곽은 면적인 분포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성곽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 성을 중심으로 다른 성들은 방사상의 분포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성곽 분포양상의 차이는 임진강 이남지역에 대한 고구려 영역지배 형태가 신라나 백제와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 성곽의 공통적인 築城工法은 ‘土芯石築工法’이라고 할 수 있다. 土芯石築工法 토축후 석축으로 마감하는 축성공법으로서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흥련봉 1보루, 흥련봉 2보루, 아차산 3보루, 아차산 4보루, 시루봉보루, 용마산 2보루, 천보산 2보루, 무등리 2보

22) 朴省炫, 2001, 「新羅 郡縣城과 그 性格 -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루 등 남한지역 고구려 산성은 대부분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²³⁾

특히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무등리 2보루에서는 한 겹으로 덧붙여 쌓아 마감한 석축성벽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영정주가 犧牲木으로 남아있었던 흔적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²⁴⁾ 홍련봉 1보루에서는 석축성벽이 일부 유실된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 석축성벽이 연결되는 구간의 안쪽에서 토축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영정주공이 매우 크고 깊게 조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영정주가 내부의 토축부를 축조하는데 필요한 거푸집의 기능뿐만 아니라 土築部를 지탱시켜 주는 構造體로도 기능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토심석축공법으로 쌓은 성벽은 편축식 성벽으로 구축된데 비하여, 2013년 발굴조사가 재개된 홍련봉 2보루는 내벽도 石築으로 마감하였음이 확인되었다.²⁵⁾ 석축부가 붕괴된 구간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토대로 홍련봉 2보루의 축성법을 파악해 보면, 토축으로 구축할 내벽과 외벽구간 너비 만큼 영정주를 벌려서 세우고, 영정주와 영정주를 횡장목으로 연결한 후 협판을 대고 판축으로 영정주 내부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했다. 이후에 영정주와 횡장목은 그대로 둔 채 협판만 제거하고, 외벽과 내벽을 석축으로 마감했다. 토축 후 석축성벽을 쌓을 때에는 일반적인 석축성을 쌓을 때처럼 비계목을 설치하였음이 석축 외벽 基底部를 따라가며 남아있는 주열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석축 후에는 석축부의 바깥쪽에 일정한 높이까지 흙다짐을 하여 외벽을 보강했다.



〈그림 3〉 左-무등리 2보루 영정주, 中-홍련봉 2보루 영정주와 횡장목, 右-홍련봉 2보루 영정주

따라서 토축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땅속에 깊이 박은 영정주공이 확인되며 토축부의 종단면에는 홍련봉 2보루와 부소산성 북문지구간처럼 횡장목공이 확인된다. 또한 외벽마감을 한 석축성벽 앞쪽과, 석축성벽 바깥쪽 기저부에서는 목주열이 확인되며, 석축내부의 토축부는 자

23) 심광주,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기법」, 『청주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박물관, 64쪽.

24) 서울대학교박물관, 2011, 「연천 무등리 2보루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5)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13, 「홍련봉 1·2보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연 상태에서는 유지될 수 없는 70~80°의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다.

土芯石築工法の 核心은 토축부에 있다. 석축부는 면석과 한단이나 두단 정도의 뒤채움으로 이루어지므로, 석축을 먼저 쌓고 토축부를 조성하게 되면 토압에 밀려서 석축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먼저 토축부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석축으로 마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구려 성을 발굴하게 되면 최정상부에서 목주열이 확인되고, 체성벽의 중간부분과 석축성벽의 하단부에서 목주열이 확인된다. 이것을 목책이 있었다가 석축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²⁶⁾ 이는 토심석축성벽의 축조공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1보루에서 확인되는 정상부의 주공열 역시 목책이 아니라 정상부에 설치되었던 永定柱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⁷⁾

임진강 유역에서부터 한강 유역에 이르는 교통로상에 집중적으로 보루를 구축하며 거점을 확보하였던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을 맞아 본격적인 저항을 할 겨를도 없이 임진강 유역까지 후퇴하게 된다. 고구려군이 신라와 백제의 공격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죽령이 북에서 임진강 이남지역까지 500여 리의 땅을 손쉽게 내어주고 임진강 유역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구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임진강 유역의 자연지리적인 특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6세기 중엽 고구려는 귀족사이의 내분과 서북쪽 국경방면에 출현한 돌궐에 의한 압력 때문에 남쪽에까지 힘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다. 임진강 이남지역에 구축하였던 고구려 방어시설이 교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한 堡壘 위주의 소규모 군사시설들이어서 방어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고구려는 신라의 한강유역전역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진평왕 이후 고구려 滅亡 때까지 120여 년 동안 서북지역에서 신라와 고구려는 임진강을 경계로 국경이 나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가 임진강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임진강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임진강·한탄강 유역에 형성되어 있는 현무암 절벽이 천연의 성벽기능을 하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의 침입을 능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6)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제36집, 107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63~64쪽.

27) 홍련봉 1보루에서는 성벽 안쪽 5m 지점에서 성벽을 따라 6개 지점에서 31개의 목책공이 확인되었으며, 5지점, 6지점에서 확인된 목책공의 경우 목책공을 기준으로 동서에 걸쳐 판재선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紅蓮峰 第1堡壘 -發掘調査 報告書』) 그러나 이것을 석축보다 먼저 있었던 목책흔으로 보게 되면, 홍련봉 1보루는 목책만 있거나, 토축부만으로는 성곽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책공이라기 보다는 토축부의 조성을 위하여 성벽 상단에 세웠던 영정주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임진강의 高浪浦에서부터 하류지역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感潮區間으로서 강심이 넓고, 수량이 많아 쉽게 渡江이 어려운 것도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임진강에는 셋강이 흘러드는 구간마다 石壁 사이에 통로가 형성되고, 셋강이 운반해온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넓은 여울목이 형성되어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강을 건널 수 있는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러한 도강지점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성곽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성곽을 구축하여 국경방어를 강화했다.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곽은 임진강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장 하류쪽에는 덕진산성이 있다. 덕진산성이 있는 곳은 하중도인 초평도가 있어 강을 건너기 수월한 곳이다. 덕진산성에서 동쪽을 바라다 보이는 동파리에도 보루가 있다. 동파리보루에서는 다량의 고구려기와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덕진산성과 동파리보루는 임진나루나 초평도를 건너 임진강을 도하하여 장단-개성으로 가는 길목을 방어하는 중요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한강과 임진강 유역 고구려 성곽분포도

동파리보루에서 동북쪽으로 7km 지점에는 두루봉보루가 있으며 이곳에서 4km 동북쪽에 호로고루가 있다. 호로고루는 感潮區間의 상류에 있으며 호로탄에 접해있다. 호로탄은 말을 타고 渡涉 할 수 있는 여울목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임진강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기마부대를 포함한 육상군이라면 평양을 출발하여 개성-장단을 거쳐 임진나루로 도강하기보다는 약간 우회하더라도 호로고루 앞의 호로탄을 건너 양주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최단거리에 해당된다. 호로고루에서는 杼山이나 兔山으로 갈 수 있다.

당포성은 호로고루에서 동북쪽으로 12km 지점에 있다. 당포성 앞의 당개나루는 하 적성에서 마전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당포성은 북쪽으로 삭령, 서쪽으로 금천과 개성으로 연결되는 길목이었으며 강을 건너면 어유지리를 통하여 감악산을 우회하여 양주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대 신라 공격로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당포성에서 동쪽으로 3km 지점에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도감포가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4km 지점에는 은대리성이 있다. 은대리성 앞은 마여울이라 하여 한탄강을 건너는 여울목이다. 은대리성에서 서북쪽으로 마탄이나 유연진을 건너면 무등리보루에 이른다.

은대리성의 동쪽 1km 지점에 전곡리토성이 있다. 전곡리토성 앞쪽의 한여울은 동두천에서 전곡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이다. 한편 도감포에서 북쪽으로 7km 지점에는 무등리 1,2보루와 우정리성이 있다. 이곳은 유연진이라 하였는데 한국전쟁 당시 화이트교라 부른 임진강을 건너는 중요한 다리가 있다. 무등리보루에서 북쪽으로 2km 지점에는 고성산보루가 있다. 무등리보루에서는 임진강을 다시 건너지 않고 兔山-新溪-瑞興으로 갈 수 있다.

무등리보루는 임진강 유역에서 민통선으로 인하여 조사가 가능한 최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임진강 상류쪽으로 올라가며 더 많은 고구려 성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6세기 중엽 이후 신라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며 임진강의 남안에는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성에 대응하는 지점에 많은 신라성이 구축되었다. 고지도를 보면 이곳에서 임진강 상류쪽으로 이어지는 삭령, 안협, 이천에 이르기까지 신라성으로 추정되는 성곽들이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 양안에서 고구려 성곽은 북안에서만 확인된다. 이는 임진강의 북안에서 남쪽으로부터의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곽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곽은 주요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곽이 위치하는 곳은 대부분 도강이 용이한 지점들이다. 따라서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 성들은 고구려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된 성들이며 전연방어체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탄강 북안에 구축된 은대리성이나 전곡리토성은 이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도감포 상류지점 부터 고구려의 국경선은 한탄강이 아니라 임진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로그루의 경우에는 당초 목책이 구축되어 있었던 방어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성 내부를 평탄하게 조성하고 높이 10m에 길이 90m에 달하는 동벽을 쌓아 방어력을 보강하는 등 대규모 土木工事を 시행했다. 성 내부에는 창고와 병영을 구축하였는데 연화문 외당과 치미, 착고기왓을 사용한 붉은색의 기와건물에 건물바닥에는 전돌까지 깔아놓은 수준 높은 건물이 확인되어 호로그루가 고구려 남쪽의 국경을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는 성내에서 전투시 병사들의 공격을 신호하던 '相鼓'라는 명문이 새겨진 토제북이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기 고구려의 축성공법을 보면 산성은 土芯石築工法을 유지하였지만 새로 구축된 평지성에서는 산성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한 축조공법이 확인된다. 평지성 중 호로그루나 당포성은 고구려가 임진강 이북으로 후퇴한 이후 새롭게 구축된 성벽이지만, 은대리성은 나머지 두 성보다 이른 시기에 구축되었으며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하면서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어 6세기 중엽 이후에는 閉城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호로그루나 당포성은 고구려가 임진강 이북지역으로 후퇴한 후 국경방어를 위하여 발달된 고구려의 축성공법으로 새롭게 구축한 성벽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기저부와 중심부는 판축을 하고 기저부 판축도 위에 내벽과 외벽을 돌로 쌓고, 版築土 위에 쌓은 體城壁의 바깥쪽에는 판축부 하단에서부터 보축성벽을 쌓아 체성벽의 중간부분까지 덮이도록 하였으며 보축성벽의 중간부분까지는 다시 점토를 다져서 보강했다.

최근 호로그루 4차발굴 조사과정에서 호로그루 동벽의 일부를 해체조사한 결과²⁸⁾ 보축성벽 안쪽에서 체성벽과 체성벽 하단부의 地臺石 외면에 185cm 간격으로 놓여있는 화돌이 확인되었다. 화돌은 직경 25cm, 깊이 7cm 정도로 바닥이 평평하게 홈을 파놓은 것인데 석축성벽을 쌓기 위해 세운 나무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화돌은 연천 당포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체성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체성벽 안쪽 1.2m 지점에서 또 한 겹의 중간벽이 노출되었다. 이 성벽은 체성벽보다는 부정형의 성돌이 사용되었으며 이곳에서 기둥홈이 확인되었다. 기둥홈의 너비와 깊이는 25cm 정도이며, 기둥홈의 간격은 215cm였다. 기둥홈의 내벽과 측벽은 성돌이 안쪽으로 밀려 약간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동벽 완성 후에도 성벽 안의 나무기둥은 그대로 있었으며, 나무기둥이 부식되면서 기둥홈에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둥홈의 하단부는 기저부 판축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무기둥을 세우고 일정 높이까지 판축하여 고정시킨 후 나무기둥을 기준으로 石築城壁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28)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4, 『漣川 瓠蘆古壘 -3·4차발굴조사 보고서』.

호로그루성벽에서 확인된 기둥홈은 평양의 대성산성과 당포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대성산성의 소문봉 부근에서 확인된 기둥홈은 체성벽 안쪽 3.2m 지점의 중간벽에 1.5~2m 간격으로 설치되었으며, 너비와 깊이가 20cm였다. 당포성에서 확인된 기둥홈은 1.7~1.8m 간격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둥홈의 하단부에는 직경 31cm, 깊이 7cm 정도의 홈이 파인 확돌이 놓여 있었다.



〈그림 5〉 호로그루 동벽(左-보축성벽과 체성벽, 中-중간벽 기둥홈, 右-확돌과 기둥홈)

기둥홈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壓力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구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²⁹⁾ 성벽을 구축하기 위한 木柱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과 木柱를 활용하여 投石機나 쇠뇌 등을 설치하기 위한 특수시설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³⁰⁾ 그러나 호로그루와 당포성에서 중간벽과 기둥홈이 발견됨으로써 고구려 성벽의 기둥홈은 축성공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목주는 기둥홈이 확인된 성벽 안쪽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목주의 기능이 단순히 석축을 쌓기 위한 가설목의 기능 뿐 아니라 석축을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는 構造體로도 기능하였음을 말해준다.³¹⁾



〈그림 6〉 左-평양 대성산성 중간벽 기둥홈, 中-당포성 기둥홈, 右-당포성 가설목 모식도

29) 채희국, 1964,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30) 민덕식, 2005, 「발굴조사 자료로 본 고구려 성곽의 축조공법」, 『史學志』37집, 단국사학회, 86~87쪽.

31) 이처럼 목주를 먼저 설치할 경우 석축공정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춘천 삼악산성, 보은 호점산성, 단양 독락산성, 문경 노고성, 제천 와룡산성 등 주로 고려시대에 급조된 석축성의 표면에서 이러한 기둥홈이 확인되는데, 긴급하게 성을 쌓기 위하여 가설목을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성벽을 구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포성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저부의 판축토 위에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세운 후 각각의 나무기둥을 연결하여 구획을 나누고 그 사이에 성돌을 채워 넣었다. 이것은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석축성벽의 내벽을 쌓는 기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호로그루에서는 기둥홈이 있는 성벽면 바깥에 다시 한 겹의 외벽을 쌓아서 마감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벽 안쪽에 조잡한 느낌이 들도록 쌓은 당포성 성벽도 정연하게 다듬은 돌로 외벽을 덧붙여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호로그루와 당포성은 첨단 축성공법으로 구축한 고구려 성곽으로서 우리나라의 토목·건축기술사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을 포함한 경기도지역의 고구려 관방체계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면적인 방어체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³²⁾ 이 견해는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을 배후 거점성으로 하여 천보산맥 일원에 중간기지를 설정하고, 한강 유역을 전진기지로 하고 남진을 계속하여 금강상류까지 진출했다가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으며 임진강 유역의 배후거점성은 고구려 멸망당시까지 사용되었으며, 임진강에서 양주일대에 이르는 개개의 교통로를 설정하고 고구려가 치밀한 평면계획 하에 복합적인 방어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개개 성곽들의 축성과 사용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근거 자료에 입각하기보다는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상황론에 입각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³³⁾

경기도지역의 고구려성곽은 경기도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역적 지배를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다.³⁴⁾ 475년 한성함락 이후 고구려는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하여 남진을 계속하여 한강유역에 대한 영역화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백제의 한강유역 수복 노력이 강화되면서 5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몽촌토성을 비롯한 한강 이남의 고구려 군은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여 한강 북안과 아차산 일원에 방어용 보루를 구축했다고 했다.

32) 백종오, 1999,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경기도박물관년보』제3호.

백종오, 2005, 「남한지역의 고구려성곽」,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특별전도록, 29~47쪽.

33) 실례로 백종오는 양주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천보산맥의 보루가 환상외곽방어체계와 그 안에 능형내곽방어체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천보산맥상의 몇 개의 보루와 불곡산, 도락산이 보루 등으로 동서 16km, 남북 12.5km의 거대한 고로봉형 방어기지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백종오, 2005, 「남한지역의 고구려성곽」,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특별전도록, 44쪽) 양주분지 일대 고구려 성곽의 숫자와 규모를 고려할 때 주둔병력은 다해야 천여 명 정도였을 텐데 이 정도의 인력으로 둘레 57km 규모의 대규모 고로봉형 성곽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4)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제47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27~160쪽.

몽촌토성과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성곽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고고학적 분석에 기초한 이러한 견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동성왕대와 무령왕대의 한성경영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인데 동성왕대의 한성은 차령 이남이라는 견해를 차용하고 있다. 또한 무령왕대의 한성경영 기사를 받아들이면, 고구려와 백제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장기간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무령왕대 초기에 대고구려 공세를 통하여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고구려군은 한강 북안으로 철수하였으며, 한강 이남지역에 대한 백제 활동의 제약은 적어졌으나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³⁵⁾

그러나 6세기 초반 한강 이북지역으로 고구려가 후퇴했다고 하더라도, 무령왕대와 성왕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가 501년에는 수곡성(신계)을 시작으로 하여 고목성(연천), 장령성, 횡악(횡성), 가불성(가평) 등지에서 진행되고, 523년의 패수(예성강) 전투와, 529년 오곡(황해도 서흥) 등 경기도북부 지역과 황해도 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진행되는 전투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475년부터 500년 전후까지 25년 정도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하여 주둔하던 고구려군이 한강이북으로 철수하여 아차산 일대의 보루를 축조하였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강 이남지역과 한강 이북지역 고구려 성곽의 축성방법이나 유물의 형태적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이처럼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들의 축성과 경영방법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어려운 것은 고고학적인 증거와 삼국사기의 기록내용을 논리적으로 결합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연천 호로그루 2차 발굴조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호로그루에 처음부터 석축성벽이 구축된 것이 아니라 석축성벽 이전에 목책시설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밝혀내게 된 것이다. 이미 호로그루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에서도 동벽단면의 판축 구간내에서 고구려토기편이 확인되어, 고구려가 이곳을 장악한 후 초기에는 석축성벽과 瓦家가 없었지만 木柵 등 초보적인 형태의 방어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전략적인 필요에 의하여 여러동의 와가를 건축함과 동시에 판축부와 석축부 그리고 보축부를 포함한 동벽 전체가 한꺼번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³⁶⁾ 그런데 이러한 예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2차 발굴조사에서 층위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증거는 지금까지 남한 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곽의 축성시기와 분포양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³⁷⁾

35) 이와 관련하여 한성이남에서 차령산맥 이북지역이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김주태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제47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48쪽)

36) 심광주·김주홍·정나리, 1999, 『연천 호로그루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8쪽.

37) 심광주·정나리·이형호, 2007, 『연천 호로그루Ⅲ -2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호로그루의 목책은 동벽 안쪽에 동벽과 거의 평행하도록 구축되었으며 목책공은 170~200 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목책이 구축되었을 당시에는 성 내부 지형이 현재처럼 평탄하지 않았으며, 목책관련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석축성벽 관련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목책 관련된 유구에서는 기와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며, 토기류는 기종이 비교적 단순하고 토기의 구연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외반하며 구순부가 납작하게 마무리된 자배기 형태의 토기와 직구단경호의 어깨부분에 점열문과 파상문이 돌아가는 토기들이다. 이에 비하여 석축성벽 관련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기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기류는 자배기와 웅, 완, 합, 이형토기 등 기종이나 기형이 매우 다양하고, 토기 구연부의 처리나 문양의 유무, 동체의 형태 등에서 목책단계와 분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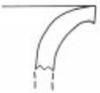
호로그루의 목책은 남성골산성이나 안성 도기동산성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출토유물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유형의 유물들이 고성산보루와 은대리성, 전곡리토성, 몽촌토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에 대한 시기별 설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호로그루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되고, 지상건축물이 구축되며, 석축성벽이 구축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한강 이북지역에 고구려성곽이 구축되는 시점에 임진강 유역에는 어떠한 형태로 방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다. 즉 아차산 일대에 성곽이 구축될 당시 임진강 유역도 이미 방어시스템이 정비되어 한강유역의 고구려 성에 대한 배후거점성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한 이후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방어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역시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목책단계의 유구에서 확인되는 토기편의 경우 몽촌토성과 마찬가지로 D형보다 A형이나 B형의 구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벽단면에서 출토되는 토기구연부의 대부분은 D형으로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성곽 출토유물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내부에 낮은 곳은 2m 이상 판축을 통한 성토가 이루어지고 구축되는 지상건물지에서는 다량의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기와는 제작기법상 한강유역의 흥련봉 1보루나 가락동 5호분에서 출토된 기와와 비교할 때 귀접이가 등장하고 문양구성이 다양해지는 등 한강유역의 고구려기와에 비하여 제작기법이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호로그루의 수축과 석축성벽이 축조되는 시점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는 6세기 중엽 이후라고 판단하고 있다.³⁸⁾ 임진강이 국경하천의 기능을 하

38) 심광주·정나리·이형호, 2008, 『연천 호로그루 -2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302~304쪽.

게 되면서, 임진강 복안에 있던 성들 중 일부는 개축하였지만, 국경을 따라가며 다수의 새로운 성곽이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형	B형	C형	D형
구연 형태				
	A형 : 구단부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것 B형 : 구단부 끝부분이 직선으로 각이 진것, 단부 끝에 침선이 돌아간 것 C형 : B형과 유사하나 하단이 들리고 호미 파진 것 D형 : 구연부를 밖을 말아서 접은 것			

〈그림 7〉 고구려토기 구연부 형태 구분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대략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I기는 장수왕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유적들이다. 이 시기 유적의 상한은 고구려의 남진이 이루어지는 5세기 후반을 넘지 못하지만 하한은 II기의 유적으로 교체될 때까지이다. 고봉산보루, 은대리성, 호로그루의 목책단계, 몽촌토성, 안성 도기동산성, 남성골산성, 월평동유적 등이 이 시기의 유적에 해당한다. 특징적인 방어시설로는 목책이 주로 구축되었다. 은대리성은 토성처럼 보이지만 동벽에는 석축을 부가한 성벽도 확인되어 정연하지 않지만 석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곡리토성도 은대리성과 축성기법이 유사하며, 동쪽구간에서는 2열의 목책열이 확인되었다.

호로그루에서는 동벽 안에서 선행하는 목책유구가 확인되었다. 몽촌토성에는 별도의 방어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백제 토성을 그대로 활용했다. 안성 도기동산성에서도 둘레 2km 달하며 5m 간격으로 2열의 목책열이 확인되었다. 남성골 산성에서는 4m 간격을 유지하는 2열의 목책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대전 월평동유적에서도 2열의 목책열이 확인되었다.³⁹⁾ 이 시기의 성곽들이 대부분 목책으로 구축된 것은 축성기술의 부재로 인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이미 발달된 석축성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축성목적과 인력이나 시간 등 축성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⁰⁾

39) 보고자는 이 목책 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목책의 축성기법을 고려할 때 이 목책열이 오히려 고구려에 의하여 구축되었으며, 기둥을 대고 석축한 성벽 ①과 성벽 ②는 성벽이라기보다는 평탄면 확보를 위한 기반부 조성목적이며, 신라에 의하여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국립공주박물관, 1999, 『대전 월평동유적』)

40) 백종오는 한강유역 지배가 교통로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지배였다는 견해에 대하여 금강유역의 남성골산성같은 대규모 고구려 유적 발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자세와 삼국사기 기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지만(백종오, 2006,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327쪽), 항구적인 지배를 위해서라면 왜 토성이나 석성 등 좀더 견고한 성곽을 구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만을 취신하고 본기 기록을 무시하는 것이 긍정적인 시각교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완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I기 유적의 존속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금강 상류에 구축되었던 남성골산성은 출토되는 유물로 6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하는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성곽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차이가 있다. 입지적으로 백제 웅진성과의 거리가 24km 밖에 안되며, 주변에 아차산 일대처럼 고구려 성곽이 밀집분포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전 월평동유적의 경우도 출토유물이 빈약하고 유적 내에서 6세기 초 중엽 백제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⁴¹⁾ 따라서 고구려가 기세를 몰아서 금강 상류지역의 백제 영역 깊숙한 곳까지 남진을 하였지만 백제 영역 내에서의 존속기간은 길지 않았으며, 몇 년 이내 백제에 함락 당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 국경을 따라가며 국경방어를 위한 별도의 성곽이 구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략 산맥이나 하천 등 자연지형을 따라 한시적이거나 경계가 구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군현명은 고구려가 남하하여 점령했던 지역을 고구려의 군현에 포함시키고 고구려 군현명을 부여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였을 뿐 군현단위로 중앙관료를 파견하고 조세수취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영토적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백제나 신라와의 국경 뿐만 아니라 죽령에서 한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도 백제와 신라로부터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대규모 방어성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행정적 지배의 근간이 되는 성곽의 면적인 분포양상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고구려가 금강 상류에서 임진강 유역에 이르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선상의 방어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은 점령지역을 영토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⁴²⁾

II기는 한강유역에서 양주 일대에 구축되는 고구려 유적들이다. 상한은 6세기 초이며 하한은 551년이다. 이 시기의 유적은 매우 정형화된 석축성곽이 주류를 이룬다.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북지역부터 임진강 이남지역이며, 아차산일대와 양주일대의 고구려 성곽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곽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여기에 속한다.⁴³⁾

41) 국립공주박물관, 1999, 『대전 월평동유적』, 216~218쪽.

42) 이정범은 5세기 중·후반 남하하여 한강유역에 대한 군사적 거점을 만들었으며, 청원 남성골산성과 대전 월평산성은 충주지역 고구려세력 진출의 결과물로 보았으며 이 지역과 양주분지 지역은 권역지배 형태로 이행되지 못하고 거점지배에 머물렀다. 임진강 유역만 권역지배로 이행된 것으로 보았다.(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제51집, 고구려발해학회)
양시은은 475년부터 551년까지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영역적으로 안정되게 지배했으며 5세기 중에는 몽촌토성이, 6세기에는 아차산 보루군 자체가 중심이 되어 한강유역을 경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양시은, 2010,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9-1』, 중부고고학회)

43) 이형호는 호로고루 출토 토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기로 구분하여 1기(5세기 중엽~5세기 후엽), 2기(6세기 전엽~6세기 중엽), 3기(6세기 중엽 이후)로 상정하였으며,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보루군을 6세기 중엽에 축조되어 6세기 후엽까지 사용되었으며, 용마산보루군, 시루봉보루는 6세기 후엽에 축조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형호,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략 500m 정도 간격으로 밀집 분포되어 있는 이 시기의 고구려 성곽은 축성을 위한 평탄면의 조성과 성벽, 치, 배수시설, 집수시설, 온돌, 벽체, 성벽 위의 목책시설 등 복잡하고 입체적인 시설들이 정형화된 설계시방서에 따라 구축된 것처럼 보인다. 성벽은 토축부를 판축공법으로 먼저 구축하고 얇은 석축으로 마감하였으며 성벽에는 다수의 치를 배치하여 성벽의 안정성을 보강했다. 성 내부에는 거미줄같은 배수망과 함께 암반을 방형으로 굴착하고 내부에 점토를 다져 방수처리한 집수시설과 함께 ‘ㄱ’자형 외고래 온돌과 벽체시설, 그리고 치 앞에 다시 석축단을 쌓아 올려 사다리를 놓아야 출입할 수 있는 이중치를 가진 출입시설 등이 있다.

Ⅱ기의 유적 중에는 흥련봉 1보루와 흥련봉 2보루, 용마산 2보루, 아차산 3보루, 아차산 4보루, 시루봉보루, 천보산 2보루, 태봉산보루 등이 발굴되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와 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고구려의 문화상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흥련봉 1보루에서는 이 시기의 유적 중 유일하게 연화문 와당과 고구려기와편이 출토되었다. Ⅱ기 유적의 정확한 구축시점에 대하여 출토토기의 편년적 분석자료와 흥련봉 2보루에서 출토된 520년으로 추정되는 庚子명 명문토기를 근거로 6세기 초로 추론하는 견해가 있다.⁴⁴⁾ 이 시기 고구려는 한강하류지역을 영역적으로 지배하였고, 그 중심거점은 남평양으로 비정되는 중랑천변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강 북안의 거점성으로 추정하는 중랑천변 일대가 이미 택지로 개발되어 고고학적인 자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선시대 사복시 목장이 설치되었던 저습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고구려의 남평양관련 성곽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어시설도 없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랑천 일대에 남평양으로 추정되는 고구려의 別都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성곽의 축성을 단순히 한강 이남지역 고구려 군의 철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강 이남지역과 차별화되는 정형화된 성곽의 구축이나 기와건축물의 등장, 토기형태의 계기적 변화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I기와 Ⅱ기는 계기적인 연속성 보다는 같은 기술적 전통에서 유래하였지만 새로운 기술자 집단에 의하여 구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토성이나 목책에서 석축성으로 변화된 축성기술 뿐만 아니라 기와나 토기제작기술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I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건축부재인 기와가 제작되고, Ⅱ기

44)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제47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39쪽.

의 토기는 I기에 비하여 토기의 기형이 다양화되며, 토기의 두께가 얇아지고 경질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성도 어느 정도 반영해 주지만 부대의 교체나 전문인력 보강과 같은 인적인 교체에 의한 차이가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성지역으로부터 최신의 축성기술과 토기, 기와제작기술자들이 한강유역의 방어와 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파병되는 군대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II기 성곽의 구축은 I기 성곽 중 금강상류지역 등 전진배치되었던 성곽들이 함락된데 따른 보강조치로서, 한강 이북지역의 교통로상에 집중적으로 배치됨으로서 한강 이남지역에 대한 공력과 방어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어시스템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속공을 할 때에는 매우 유용하고 관리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지만, 방어에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성곽들이 방사상으로 배치될 경우 한성이 공략당하더라도 주변 성들이 배후를 공격하거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남-북으로 긴 선상방어체계 하에서는 대규모 적의 공격에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고구려는 6세기 중엽까지는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점령지역을 백제와 신라의 견제로부터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었지만 내외외환으로 인하여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자⁴⁵⁾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죽령 서북의 500리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⁴⁶⁾

III기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상실한 이후 임진강 유역에 새롭게 구축되거나 재정비되는 성곽들이다. 상한은 6세기 중엽이며, 하한은 임진강 유역을 나당 연합군이 차지하게 되는 7세기 후반까지 존속했다. 호로그루의 석축성 단계, 두루봉보루, 당포성, 덕진산성, 무등리 1보루, 무등리 2보루 등이 이 시기 유적에 해당된다.

호로그루나 당포성처럼 석축성과 토성의 장점을 결합한 고구려 특유의 정형화된 강안 평지성이 구축되며,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 교통로를 주변에 성곽이 석축성이 구축되며, 성내에 기와를 사용한 지상건물 구축이 일반화되었다.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곳은 호로그루와 당포성, 무등리 1보루, 동파리보루이다. 무등리 1보루와 호로그루에서는 다량의 탄화곡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한탄강북안에 구축된 은대리성이나 전곡리토성은 이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도감포 상류지점 부터는 고구려의 국경선은 한탄강이 아니라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심형의 선형방어체계를 구축하였던 임진강 이남지역과 달리 임진강 일대에는 동-서

45) 551년 돌궐이 신성을 공격해 왔으며 552년 장안성 축성을 시작하였고, 557년 환도성 간주리의 반역 등이 있었다.

46) 신라는 551년부터 약 20여 년 사이에 임진강하구(북한산비: 555년)에서부터 철원-원산(황초령비: 568년)-북청(황초령비: 568년)까지 진출하여 한반도의 거의 1/3에 달하는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죽령에서 철원까지는 직선거리로 200km에 달하여 정확히 500리가 된다.

방향으로 강의 북안을 따라 전연방어체계를 구성하여 대규모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비록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 성들도 1km 미만의 소규모에 속하는 성들이지만, 배후의 거점성들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120여 년 동안 방어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IV. 신라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新羅는 임진강 이북의 고구려 성곽에 대응되는 성곽을 임진강 이남 지역에 구축했다. 임진강의 입구이자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되는 지점에는 烏頭山城을 구축하고, 연이어서 봉서산성, 파평산성, 이잔미성, 칠중성, 옥계토성, 대전리산성 등 둘레 1km 내외의 대형산성을 약 5~10km 간격을 유지하며 방사상으로 구축했다. 대성 사이의 중요한 교통로에는 100~500m 내외의 성을 배치하여 국경방어 시스템을 완비해 나갔다.

551년 고구려가 요동쪽에 침입한 돌궐의 공격에 집중하는 사이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에게 죽령 이북지역과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한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切齒腐心하며 기회를 엿보게 된다. 598년 수나라의 공격을 물리친 고구려는 603년 드디어 장군 고승을 보내어 신라의 북한산성을 치도록 한다.

14년(603)(가을 8월에) 왕은 장군 高勝을 보내 신라의 北漢山城을 쳤다. 신라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오니, 성안에서는 북치고 소리지르며 서로 호응했다. (고)승은 저들이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므로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⁴⁸⁾

고구려의 공격에 대응하여 신라는 북한산성의 군사들과 함께 진평왕이 몸소 군사 1만명을 이끌고 협공을 하여 성공적으로 막아내게 된다. 이때 고구려가 공격한 북한산성은 현재의 阿且山城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신라 북한산성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산성과 한강을 건너는 신라 군사들이 서로 북치고 소리치며 호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차산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北漢’이라는

47) 신광철은 장수산성을 중심으로 대현산성 수양산성 등이 위치하는 황해도 일대에 고구려 남부의 거점성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광철, 2011,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선사와 고대』 제35호) 권순진도 고구려의 최후방어선은 황해도 지역이며,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 성곽들은 여울목이나 나루터 통제 및 양주일원에 배치된 전방후배의 후방 작전 지휘소 또는 병참기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순진, 2012, 『임진강유역 고구려성의 성격 재고』, 『軍史』 제83호, 192쪽)

4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양왕 14년조.

명문이 쓰여진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아차산성은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공략할 때 개로왕을 죽인 阿旦那城으로도 추정되고 있는데 일부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현존하는 석축성은 현문식 성문과 보축이 확인되는 전형적인 신라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북한산성 전투에 고구려의 온달이 참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陽岡王(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신라가 우리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군현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심히 한탄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어리석은 이 신하를 불초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왕이 허락했다.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립현과 죽령 이서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하고, 나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 아래에서 싸우다가 <신라군의> 흐르는 화살에 맞아 넘어져서 죽었다. 장사를 행하려 하였는데 상여가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갑시다”했다. 드디어 들어서 장사지냈는데 대왕이 듣고 몹시 슬퍼했다.⁴⁹⁾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단양 영춘의 온달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⁵⁰⁾ 그러나 영양왕의 재위기간인 590년부터 618년 중 611년 이후는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신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고구려의 신라침공 기사는 603년의 북한산성과 608년 신라의 북쪽변경습격과 우명산성 공략기사 등 3건이다. 그중 두 건은 모두 성공한 전투였던 반면 유일한 패배는 북한산성 전투였다. 따라서 온달이 참전하여 패전하게 된 전투는 북한산성 전투일 가능성이 크며, 북한산성은 백제의 阿旦那城으로 불리던 지역이므로 고구려 본기에도 아단성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¹⁾ 수나라와의 전쟁 이후 고구려는 638년 칠중성 공격을 감행했다.

7년(638)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 칠중성을 침범하니 백성이 놀라 혼란해져 산골로 들어갔다.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도케 했다. 11월에 고구려군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서 이겼다.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⁵²⁾

49) 《삼국사기》 열전 제5 온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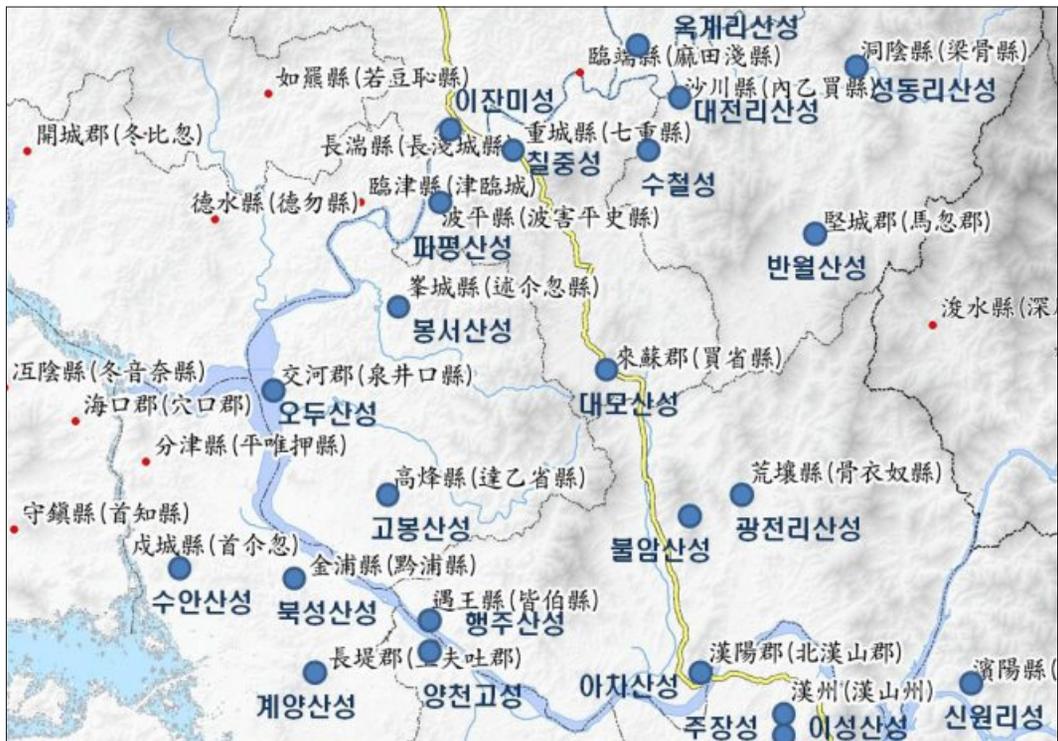
50) 이도학, 2013,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死處 阿旦那城 檢證」, 『동아시아고고학』32, 278~285쪽.

51) 윤성호, 2017,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5~288쪽.

5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선덕왕 7년조.

21년(638) 겨울 10월에 신라의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략했다. 신라의 장군 알천이 막으므로 칠중성 밖에서 싸웠는데 우리군사가 졌다.⁵³⁾

이 기록에 의하면 638년 고구려가 침입할 당시 신라는 이미 칠중성을 비롯하여 임진강 이남 지역에 대한 방어시스템이 거의 완비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칠중성은 배후에 감악산이 있고 전방에는 임진강 유역이 넓게 조망되는 해발 168m의 중성산에 구축된 성곽이다. 현재 남아 노출된 성벽을 보면 현문성문과 보축성벽을 구비한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신라는 칠중성을 구축하고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유사시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8〉 한강과 임진강 유역 신라성곽 분포도

이러한 방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칠중성에서 벌어진 고구려와의 전투는 신라는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당나

53) 《삼국사기》 권8 고구려본기 영류왕 21년조.

라 세력까지 한반도에 개입하면서 이후 40여 년 간 삼국은 지루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660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하자 고구려는 신라의 배후에 해당하는 칠중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고구려의 공격에 대하여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짧게 기록되어 있다.

(660년)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여 군주 필부가 전사했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조)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삼국사기』열전 필부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필부는 신라의 사랑부 사람인데 아버지는 아찬 존대이다. 태종대왕이 백제, 고구려, 말갈이 서로 가까워져 침탈을 함께 피하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인재로서 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를 구하였는데 필부를 칠중성의 현령으로 삼았다. 이해는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기 한해 전인데 신라는 이미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침공은 나당연합군이 백제수도를 공격한 3개월 후인 660년 10월에 감행되었다. 고구려군은 군사를 출동시켜 칠중성을 포위했다. 이때 출동한 고구려군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칠중성의 규모가 700m 정도이므로 최소한 1만명 이상의 고구려 군사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칠중성 공격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으로는 고구려군이 칠중성을 공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661년 고구려는 북한산성에 대한 2차 공격을 감행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실패한다.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칠중성은 다시 신라의 수중에 들어간다. 김유신이 평양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에 군량미를 전달하려 갈 때에 칠중성은 여전히 신라의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술년(문무왕2년, 662) 정월 23일 칠중하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배에 오르지 않자 유신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이곳에 왔는가? 하고는 스스로 먼저 배에 올라 건너니 여러 장군과 병졸이 따라서 강을 건너 고구려 강역 안에 들어갔다. 고구려인이 큰길에서 지킬 것을 염려하여 험하고 좁은 길로 행군하여 산양에 이르렀다.⁵⁴⁾

54)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중.

문무왕 2년(662) 정월 김유신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원정 온 당군에 군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레 2천 여 량에 식량을 싣고 평양으로 향했다. 정월 18일에는 풍수춘에 묵고 23일에는 칠중하를 지나 산양에 도착하였으며, 이현이란 곳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였다. 2월 1일에는 평양에서 3만 6천 여 보 떨어진 장새에 도달하였으며, 6일에는 양오라는 곳에 이르러 당군에게 군량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올 때에는 추격해온 고구려군에게 瓠蘆河에서 공격당했다. 김유신 부대는 칠중하로부터 장새현을 거쳐 평양에 갔다가 호로하로 돌아왔음이 분명한데 칠중하와 장새현 사이의 예상 이동로는 칠중성에서 북쪽으로 임진강을 건너 황해북도 토산군, 신계군 등의 산악지대를 경유하는 코스였을 것이다.

이 기록내용으로 보면 김유신은 경주를 출발하여 임진강 이남지역까지는 별다른 무리가 없이 이동하였는데 임진강을 건너면서 군사들의 동요가 일어났고, 김유신의 독려로 강을 건너 험한지역을 택하여 평양까지 군량미를 전달했다. 그런데 662년 이후 667년 사이에 몇 년 동안 칠중성은 고구려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이는 答薛仁貴書에 수록된 다음의 내용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진봉2년(667)에 이르러 대총관 영국공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국경으로 보내 모이게 하였습니다. 신라 군사가 단독으로 쳐들어가서는 안되겠기에 먼저 정탐을 세 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정탐이 돌아와 모두 말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므로 우선 고구려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영공의 사인 강심이 와서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군사는 성을 공격할 필요 없이 빨리 평양으로 와 군량을 공급하고 와서 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행렬이 수곡성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군사도 역시 곧 빠져나왔습니다.⁵⁵⁾

현존하는 경기도 지역의 성곽중 대다수가 이 시기에 쌓은 성들이다. 하남 이성산성을 비롯하여, 서울 아차산성, 양천 고성, 인천 계양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 이천 설성산성, 파주 오두산성, 고양 행주산성, 김포 수안산성 등도 모두 이 시기에 쌓은 성들이다. 신라는 470년 三年山城 축성 시점을 전후한 시기에 완성된 형태의 새로운 축성공법을 도입하여, 신라 영역확장과 함께 6~7세기에 전국에 많은 비슷한 유형의 성곽을 건축했다. 이 시기 신라의 축성기법은 고구려나 백제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5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첫째, 夾築式이 全面石築 성벽을 구축했다. 體城壁의 단면은 기저부가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 모양이며, 내벽과 외벽을 갖춘 협축식 성벽으로 구축하였으며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길쭉한 뒤채움돌을 치밀하게 물리도록 하여 성벽의 견고성을 더했다. 성벽 기저부에 암반이 노출될 경우 바닥을 층단식으로 정지하고 성벽을 쌓았으며, 내벽 안쪽과 경사면 사이는 점토로 충진하였지만 성벽은 점토를 충진하지 않고 돌로만 쌓는 건식쌓기를 했다.⁵⁶⁾

둘째, 補築城壁을 쌓아 체성벽을 보강했다. 체성벽을 전면석축으로 견고하게 쌓더라도 성벽이 높아지면, 성벽 내부의 橫壓力이 작용하여 성벽의 붕괴 위험도 커지게 되므로, 체성벽 외부에 다시 보강용 성벽을 쌓아 구조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보축성벽의 높이와 형태는 산성의 입지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확인되며, 보축성벽의 외부에는 다시 점토로 보강하여 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셋째, 片巖係 석재를 장방형으로 가공한 성돌을 사용했다. 성돌의 재료는 節理가 발달하여 결을 따라 잘라내기 용이한 堆積巖이나 화강편마암 같은 變成巖 종류를 주로 활용했다. 암괴에서 결을 따라 잘라낸 석재를 2차 가공하여 장방형이나 세장방형으로 가공하여 면석으로 사용하고, 뒤채움돌은 마름모꼴이나 부정형으로 가공하여 면석과 서로 맞물리도록 했다. 축성에 이처럼 가공된 성돌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벽을 견고하면서도 높게 쌓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축성배경에는 다수의 숙련된 築城技術者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懸門式 城門을 축조했다. 신라성은 개거식이 일반적인 백제성이나 고구려성과 달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현문식 성문을 구축했다. 이것은 성곽에서 성문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인데, 신라성은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구축한 독특한 형태의 성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문의 위치도 진입하기 용이한 능선이나 계곡부보다는 능선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설치하여 적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독특한 형태의 水口를 설치했다. 신라식 석축성벽은 기본적으로 건식쌓기에 해당하므로 일상적인 雨水는 성벽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구조지만, 많은 양의 물이 배출되도록 성벽에 별도의 수구를 설치했다. 수구는 기본적으로 성벽을 통과하여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위치에 따라 외벽의 하단, 중단, 상단식 수구가 있으며 형태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성벽 중 현문식 성문을 설치한 문구부의 위치가 가장 낮으므로, 문지 바닥에도 수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56) 백영중은 5~6세기 신라산성의 구조적인 특징은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며 현문식 성문을 갖추고 있고 내외협축식 성벽에 기단보강 석축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백영중, 2007, 「5~6世紀 新羅山城 研究 -小白山脈 北部 일원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섯째는 築城의 立地와 規模다. 이 시기의 신라 성들은 대체로 海拔高度나 比高가 100~200m 정도인 높지 않은 입지를 택하고 있으며, 대략 5km 정도 거리마다 둘레 1km 내외의 성곽을 배치하여 治所城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산성이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으므로 성내에는 기와가 사용된 많은 초석건물이 확인되며, 성곽주변에는 산성 운영주체와 관련한 古墳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성곽들은 축성기술상의 특징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해답은 기술자 집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성을 쌓기 위해서는 지형을 선정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며, 축성의 절차를 계획하고 인력동원과 예산확보 등 아주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공사를 단기간 동안 완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집단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축성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대부분 전쟁 기간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민간인보다는 군인들에 의하여 축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군의 편제 속에 축성기술자로 구성된 공병부대가 있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職官志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경기도지역은 한산주에 속해 있었고 한산주에는 직할부대인 漢山停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산정의 예하부대로는 軍師幢 - 大匠尺幢 - 步騎幢 - 黑衣長槍未步幢 - 三千幢 등이 있었으며, 弓尺과 만보당이 있었다. 흑의장창미보당은 기병에 대응하는 장창부대로 추정되며, 궁척은 활(弓)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 만보당은 도끼와 방패를 사용하는 보병부대로 추정된다.⁵⁷⁾ 대장척당은 <南山新城碑>에 匠尺이 축성기술자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축성을 전담했던 工兵部隊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장척당의 군사적인 편제와 부대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수의 축성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⁵⁸⁾

특히 석축성에서 築城時期와 築城集團의 차이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성돌이다. 축성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採石과 성돌 加功技術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암석의 종류가 달라지고 石材 가공기술 수준에 따라 성돌의 크기와 형태에서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된 성돌이 지상에 노출되어 풍화된 상태의 露頭石인지 아니면 땅속에 묻혀 있었던 深石인지, 운모가 다량으로 함유된 軟巖인지 아니면 화강암 계통의 硬巖인지, 변성을 받아 節理가 발달한 편마암이나 퇴적암지 아니면 변성되지 않은 火成巖인지 하는 것은 채석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석공기술의 발달은 露頭石→深石으로, 軟巖→硬巖으로, 片

57) 李仁哲,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349쪽.

58) 沈光柱, 2003,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228쪽.

巖→火成巖으로의 경향성을 보여주며 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석재 가공기술의 마지막 단계는 아마도 모스경도 7에 해당할 정도로 단단하고 節理가 발달하지 않아 쉽게 잘라내기 힘든 덩어리 암석인 花崗巖일 것이다.⁵⁹⁾

또한 석가공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석축성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 중에서도 石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기록이 남아있는 華城을 예로 들면 축성에 동원된 1,821명의 匠人 중 石匠의 숫자가 642명으로 전체 축성 전문 인력의 35%에 달하고 있다.⁶⁰⁾

이러한 현상은 삼국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둘레 5km인 화성을 기준으로 둘레 1km 내외의 산성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150명 이상의 石匠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축성을 위한 石加功 기술이 특수한 일부 계층의 기술이 아니라 많은 匠인들이 공유하는 그 집단의 보편적 기술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佛像이나 佛塔, 무덤 등 특별한 의미와 기능이 있는 건축물이나 소수의 숙련된 장인만 있으면 제작 가능한 石造物에서 발달된 石加功 기술이 확인된다고 해서, 그 기술이 곧바로 축성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王宮이나 寺刹, 官衙 등 해당시기 일정한 위계를 가지는 대규모 건축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 石加功 기술 사례가 확인되어야 한다. 石造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量産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최소한 수백명의 石匠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성 축성에도 발달된 석가공 기술이 적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자 당은 당초 溟河(대동강) 이남지역을 신라에게 주겠다고 한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려 했다. 심지어 당은 신라까지도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신라는 이에 대하여 문무왕 10년(670년)부터 백제 고지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키는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59) 심광주,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보루의 축성기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박물관, 49~50쪽.

60) 화성축성에 동원된 장인들의 숫자

직종	인원(명)	비율(%)	직종	인원(명)	비율(%)
석수	642	35	개와장이	34	2
목수	335	19	화공	94	5
미장이	295	16	톱장이	89	5
외벽장이	150	8	기타	89	5
대장장이	83	5	합계	1,821	100

(경기문화재단편, 2005, 『화성성역의궤』 국역증보판 하권, 517~536쪽).

한편,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하면서 당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신라는 적극적으로 선제공격을 하여 671년 당군이 점령하고 있던 泗泌城을 함락시키고 백제 옛 땅을 회복하는 한편, 당과의 전면전에 대비하여 방어력이 우수한 산성 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672년 한산주에 晝長城(남한산성)을 쌓고, 673년에는 서형산성과 북형산성을 증축하였으며, 국원성과 소문성, 이산성, 주양성, 주잠성, 만홍사산성, 골쟁현성 등 도성 주변과 각 주의 전략적 요충지에 산성을 새로 쌓거나 수축했다.

675년 신라는 당나라 薛仁貴의 보급부대를 泉城(오두산성)에서 격파하고, 李謹行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買肖城에서 물리침으로서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 이남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당시 평양성을 함락하고 평양지역에서부터 남하하기 시작한 당과 신라의 전투에서 예성강이남지역으로 후퇴하여 임진강유역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졌다. 항복하지 않은 고구려군 역시 임진강 유역에서 당나라와 접전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瓠蘆河 전투이다.

계유년(673) 여름 윤5월에 연산도 총관 대장군이 이근행이 호로하에서 우리나라 군사들을 깨뜨리고 수천명을 사로잡으니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신라로 달아났다.⁶¹⁾

이때 전투가 벌어진 호로하는 적성 건너편 호로고루가 있는 부근의 임진강을 지칭한다.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이곳이 평양에서부터 한강유역으로 가는 최단 간선도로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구려군은 호로고루에 배수진을 치고 당군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호로고루는 남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는 유리하지만 북쪽으로부터의 적을 방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당나라군대에 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천명의 고구려 병사가 포로가 되고 나머지 병사들은 임진강을 건너 칠중성으로 도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75)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인궤의 군사는 돌아가고 조칙으로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경략케 했다. 당나라 군사가 거란·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소수 유동이 전사했다.⁶²⁾

673년 호로고루를 공취하여 임진강 이북지역을 장악한 당군은 2년 뒤인 675년 대대적으로

61)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4년.

6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5년.

병력을 증원하여 신라의 공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675년 2월 유인궤가 이끄는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했다. 이후 유인궤는 귀국하고 이근행은 安東鎮撫大使로 삼아 거란·말갈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략하게 했다. 이근행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임진강 상류쪽으로 이동하여 매초성에 주둔하게 했다.

그 당시 매초성에 주둔하고 있던 이근행의 20만 군대는 군량미와 군마의 보급을 필요로 했다. 이에 본국에서는 육로를 통한 긴 보급로대신 해로를 통한 군수물자 보급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보급선단의 이끄는 수장은 설인궤였으며 길잡이로는 신라인 풍훈을 이용했다.

가을 9월(675) 설인궤가 숙위학생 풍훈의 아버지 김진주가 본국에서 처형당한 것을 이용하여 풍훈을 이끌어 길잡이로 삼아 천성(泉城)을 쳐들어왔다. 우리의 장군 문훈 등이 맞아 싸워 이겨서 1천4백 명을 목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궤가 포위를 풀고 도망함에 전마 1천필을 얻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쫓고 말 30,380필을 얻었으며 그 밖의 병기도 이만큼 되었다.⁶³⁾

그러나 당시 신라는 당나라의 수도에서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이나 유학생들에 의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동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라군은 설인궤의 군대를 천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여 궤멸시키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천성은 백수성이라고도 했다.

泉城의 위치는 지금의 烏頭山城으로 추정된다. 오두산성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지점의 해발 119m인 오두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의 둘레는 약 1,200m 정도이다. 통일동산건설과 관련하여 오두산성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오두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통일신라기의 유물로 확인되었다. 기와 중에는 泉자명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어 오두산성이 천성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천성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곧바로 매초성을 공격했다. 그런데 수 만명의 신라군의 공격 앞에 20만이나 되는 이근행의 당군은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3만필의 말과 수많은 병장기를 버려두고 패주했다. 이 매초성 전투에는 석문전투에서 비겁하게 도망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김유신의 아들 원술랑도 참여하여 전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매초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나당 전쟁은 사실상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당시 이근행의 20만 군이 주둔하였던 매초성의 위치에 대하여 양주 대모산성이라는 견해와

6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5년.

연천 대전리성이라는 견해가 있다. 양주 대모산성은 양주 주내면 3번국도변의 해발 212.9m 대모산 정상부를 둘러싼 산성으로 둘레는 약 693m인데 한림대학교에 의한 발굴조사 결과 현 문식 성문을 갖춘 신라 성으로 밝혀졌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배후에 대전리산성과 칠중성 등 신라산성들이 위치하여 보급로가 차단되거나 배후가 공격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대전리산성은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유리한 지점이지만 남쪽으로는 진격을 위한 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의 규모는 양주 대모산성보다 협소하여 20만군이 주둔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七重城에서 막힌 唐軍이 새로운 공격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곡쪽으로 우회하여 3번국도를 따라 남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매초성의 위치는 전곡부근의 한탄강 이북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곡 주변에는 현재 전곡리선사유적지를 감싸고 있는 둘레 2km 규모의 전곡리토성이 있다. 선사유적지 전시관 설치공사시 절대된 성벽 단면을 보면 성벽의 구조가 은대리성처럼 판축토 위에 성내외부가 석축으로 구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⁶⁴⁾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결과를 보면 남동쪽 모서리 부근에서 2층의 고구려성벽 목책열이 확인된 바 있다. 전곡리토성이 매초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전곡리토성 일대는 裋褻坪이라고도 하는 넓은 벌판이지만, 비가 오면 진창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많은 전마들이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할 때를 노려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당과의 전쟁을 위하여 구축한 신라성곽은 기존의 신라성곽과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이다. 672년에 쌓은 주장성과 673년에 증축한 서형산성과 북형산성과 국원성, 소문성, 이산성, 주양성, 주잠성, 만흥사산성, 골쟁현성 등은 도성과 각주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避難城으로 기능할 수 있는 대규모 산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중 대당전쟁을 위하여 쌓은 대표적인 산성이 晝長城이다. 당시 신라가 쌓은 주장성의 규모는 4,360보였는데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8km에 달하는데⁶⁵⁾ 이는 당시 신라가 쌓은 최대 규모의 석축산성이었다.

64) 최근 서울대 박물관에서 전곡리 토성구간에 대한 절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벽으로 추정되던 구간에서 후대의 토층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곡리토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구려는 남쪽 일부구간에만 목책 등을 설치하고 일시적으로 주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보고서』, 『연천 무등리 2보루』, 236쪽) 전곡리선사유적지 진입로 부근에서 확인된 성벽 단면 구조와 현재 전시관이 들어서 있는 기저부에서 확인된 다량의 석축구조물 등을 감안하면 조사시 시굴트렌치를 설치한 구간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65) 《조선왕조실록》 선조 30년(1597) 2월 25일자 내용을 보면, 인조대에 수축하기 전의 남한산성의 규모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둘레가 포백척(布帛尺)으로 17,400여 척이라 했다. 포백척은 단위길이는 대략 46cm 정도이므로 주장성의 둘레는 8km 정도로 환산된다. 《삼국사기》의 1보(步)는 영조척 6척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장성의 입지는 일반적인 삼국시대의 산성입지와 전혀 다르다. 삼국시대의 성은 대부분 조망이 좋은 해발 100~200m 정도의 야트막한 산에 구축되는데 비하여 이곳은 해발 500m가 넘는 산꼭대기에 구축되었다. 漢山州의 治所城인 이성산성도 둘레 1.5km인데 주장성은 그보다 5배에 달할 정도로 대형으로 구축했다. 이러한 주장성의 입지와 규모는 삼국시대의 성보다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피난성의 축성의 입지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병력의 규모로 볼 때 신라는 당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당시 신라가 총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은 대략 3만~5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하여 매초성에 주둔했던 당장 이근행이 이끈 군사의 규모는 무려 20만 명에 육박했다. 병력의 열세가 불가피했던 신라가 선택한 전술은 淸野入保 戰術이었다. 적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異國의 군대였으므로 군량미와 병력을 산성으로 옮기고 기회를 보아 적의 후방을 공격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적이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지구전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을 골라서 대규모의 성을 쌓고 성내에 군수물자를 비축했다.

그런데 주장성을 쌓는데 사용된 성돌은 현지에서 조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반하여 온 화강암 성돌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일대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이나 화강편마암인 반면 주장성 축성에 사용된 성돌은 대부분 조립질의 화강암이며, 주장성에서 가장 가까운 화강암 산지도 직선거리로 10km 정도인 아차산 일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흑운모편마암이나 화강편마암 대신에 원거리에서 가져온 화강암 성돌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시루떡처럼 곁을 이루고 있는 화강편마암은 곁을 따라 쉽게 잘라낼 수 있지만 편마암 성돌은 뒷채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횡압력에 의한 剪斷破壞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반면 화강암은 재질이 단단하여 다듬기가 힘들지만 더 견고하고 치밀한 성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신라의 장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 편마암 대신 원거리에서 화강암 성돌을 운반하여 옥수수알 모양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가공하여 성을 쌓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주장성의 성돌은 이후 남한산성의 수축시 상당수가 재활용 되었다. 2005년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북문과 동장대 사이에 있는 제4암문과 수구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지표 아래 4m 깊이에서 주장성의 체성벽으로 추정되는 석축성벽과 배수시설이 확인된 바 있다.⁶⁶⁾

성내에는 발달된 축성기술에 걸맞는 병영과 창고 등 각종 건물이 구축되었다. 그중 하나가 행궁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의 대형건물지이다. 하궐 앞마당의 지하 1m 깊이에서

66) 차용길 외, 2007, 『南漢山城 -암문(4)·수구지일대 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원.

확인된 이 건물지는 길이가 53.5m, 너비가 18m에 달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산성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중 최대 규모이다. 또한 건물지에서는 기와 한 장의 무게가 20kg에 달하는 대형기와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대형기와는 絲切하여 잘라낸 점토판 素地를 원통형 와통에 담은 후 단판고판으로 두드려서 성형을 하고, 와통에서 빼낸 후 내면에 찍힌 분할계선을 따라서 4매로 분할한 후 소성한 것으로 크기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제작기법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기와로 인한 엄청난 지붕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발굴조사 결과 대형건물지는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지하 2m 깊이까지 땅을 파내고 할석과 점토를 교대로 다지면서 쌓아 견고한 대지를 조성하였으며, 벽체의 두께를 2m 정도로 두껍게 하여 기둥에 가해지는 힘이 벽체로 분산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의 수축으로 인하여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단편적인 결과만으로도 晝長城은 통일신라시대 토목·건축기술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당전쟁시기에 신라는 이미 토목건축기술 측면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⁶⁷⁾

羅唐戰爭의 승리로 신라는 溟河 이남 지역의 땅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지역만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을 뿐, 한동안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당시 신라로서는 새로 영토로 편입된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신라는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 성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했다. 호로고루성을 차지한 신라는 성내부의 불타버린 고구려의 건축폐기물들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수혈구덩이에 가져다가 버리고, 고구려유적의 터전위에 신라의 건축물을 새로 구축했다. 지상성벽인 동벽에는 무너진 고구려성벽을 재활용하기 보다는 고구려성벽 바깥에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았다.

신라가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전반 성덕왕대부터였다. 발해가 세력을 확대하여 서로 국경을 맞닿게 되자, 신라는 발해의 남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성덕왕 12년(713) 개성을 쌓고, 성덕왕 17년(718)에는 발해의 침입에 대비하여 한산주 도독 관내의 여러 성을 쌓기도 했다.

발해가 남쪽으로 진출하여 신라와 동해안지역에서 국경이 맞닿은 것은 성덕왕 20년(721) 무렵이었다. 신라는 이미 그 이전부터 발해의 남하에 대비했다. 성덕왕 20년(721) 가을 7월에 何瑟羅 지역의 丁夫 2천 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長城을 쌓았으며, 효소왕 3년(733)에는 발해가 당을 침공하자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가는 도중 추위로

67) 심광주, 2011, 「남한산성의 축성기술」, 『南漢山城』, 경기도박물관, 181~184쪽.

인하여 회군했다. 당은 신라의 발해공격에 대한 보답으로 735년에 패강 이남의 영토에 대한 신라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다.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개척은 이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신라의 북방개척은 경덕왕 7년(748) 10개의 군·현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성덕왕 3년(782)에는 왕이 한산주를 두루 돌며 살펴보고 溟江鎭이라는 강력한 군사기지를 구축했다.

신라는 경덕왕 21년(762)에 오곡·휴암·한성·장새·지성·덕곡 등 6곳에 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그곳에 각각 태수를 파견했다. 성을 쌓은 지역은 황해도 서흥, 봉산, 재령, 해주 등지로 고구려의 휴암성, 대현산성, 장수산성, 수양산성이 있는 곳인데 이 때에 이르러 신라에 의하여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개척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헌덕왕대에 取城郡(황주)과 그에 속하였던 土山縣(상원)·唐嶽縣(중화)·松峴縣(송현)을 더 설치했다.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조에 나오는 28군과 49현은 바로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갖추어졌으며,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이남지역을 모두 영토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 시기 新羅城郭의 특징은 호로그루와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德津山城 및 이성산성 2차성벽과 망이산성 석축성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로그루에서 확인되는 신라성벽은 고구려 성벽 바깥쪽 보축성벽 보강토 위에서부터 완경사를 이루도록 고구려 체성벽에 덧붙여 쌓았다. 성벽의 석재는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 성돌이 아니라 최소한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운반해 온 화강 편마암을 가공하여 성벽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임진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하여 축성에 참여한 신라의 장인들이 현무암을 가공하여 축성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양상은 덕진산성에서도 확인된다.

덕진산성은 최근 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고구려성을 확장하여 쌓은 신라성벽과 후에 개축된 성벽구조가 확인되었다.⁶⁸⁾ 이처럼 호로그루와 덕진산성에서 확인되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구축된 신라성벽의 축성기법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사면에 기대어 쌓는 편축식 석축성벽이다. 호로그루 성벽은 기존의 고구려 성벽의 경사면에 기대어 덧붙여 쌓았으며, 덕진산성은 경사면에 기대어 성을 쌓거나 토성을 쌓듯이 내탁부를 먼저 조성한 후 석축을 쌓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협축식 성벽을 기본으로 하던 축성기본 원칙이 어느 시점부터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견고하고 치밀함 보다는 축성의 용이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안성 망이산성과 부소산

68) 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坡州 德津山城 -1·2차 학술조사』.

성내의 통일신라 성벽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체성벽에 덧대어 장방형 치를 만들었다. 호로그루와 당포성의 통일신라 성벽에서는 돌출부의 길이가 1m 정도이고 너비가 4~5m 정도의 장방형 치가 확인되었으며, 덕진산성에서도 체성벽에 덧붙여 쌓은 세장방형의 치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체성벽 기저부에는 지대석이 놓이고, 면석의 형태는 세장방형에서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대석의 크기는 70~90cm 너비에 두께 30cm 정도 크기로 체성벽에 비하여 1.5배 정도 큰 성돌이 사용되었으며, 뒤채움부토 삼국시대 신라 성벽이 기본적으로 기저부의 너비가 5m 정도인데 비하여 2m 안팎으로 좁아들어 석재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9〉 덕진산성(左-초축성벽과 수축성벽, 中-수축성벽 내부초서벽, 右-치구간의 수축성벽)

덕진산성 성벽은 8세기에서 9세기에 대대적인 수축을 실시하여, 초축성벽 보축성벽의 바깥쪽에 새로운 성벽을 덧붙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수축 성벽은 축성기법의 변화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修築된 성벽의 성돌은 화강암 성돌을 전면 가공한 성돌이 사용되었다. 성돌의 뒷길이가 길어지고 전체적인 형태가 사각추 형태를 띠고 있다. 석축성벽의 두께가 얇아지며 내탁식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은 높이가 낮아지며 개거식 성문이 구축되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각 주군현의 치소성을 정비하면서 많은 성곽을 새로 쌓거나 개축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축성기술에 백제와 고구려의 축성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성곽이 등장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성곽은 편축식성벽, 대형 지대석, 낮은 성벽, 퇴물림쌓기로 인한 완만한 경사각, 등성시설, 개거식 성문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석재가공 기술의 발달로 화강암이나 현무암 등의 단단한 암석을 잘라내어 사각추형으로 정교하게 가공한 성돌도 등장하였다. 성곽 개축시에는 기존의 성벽을 해체하지 않고 성벽 바깥쪽에 새로운 성벽을 보축성벽 형태로 덧붙여 쌓는 방식도 통일신라시대 축성기법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 후기에는 기단석열을 배치하고 영정주와 협판이 사용된 정교한 판축공법으로 쌓은

토성도 많이 구축되었다. 화성 당성이나, 영월 계족산성처럼 기존의 성곽에 토성을 덧붙여 쌓아 확장하는 성곽도 확인된다. 서천 남산성이나 무안 봉대산성처럼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에는 구릉 정상부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교하게 가공한 성돌로 성벽을 쌓고, 개거식 문구부를 조성한 독특한 형태의 성곽도 많이 축성되었다. 9세기대에 주로 축성되는 이러한 형태의 성곽들은 지방 호족 세력의 등장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三國 중 임진강 유역을 가장 먼저 점유하였던 나라는 百濟였다. 4세기대의 백제는 평양지역까지 진출할 정도로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수도 漢城으로 연결되는 길목마다 성곽을 구축하여 낙랑과 고구려·말갈 등의 침입에 대비했다. 5세기 후반까지 이 지역을 영토적으로 장악하였던 漢城時期 백제의 축성 기법은 木柵과 土城을 특징으로 했다. 목책은 병산책·독산책·구산책 등의 명칭이 등장한다. 길성리토성이나 천안 백석동토성, 안성 도기동산성 등의 사례를 볼 때 백제의 木柵은 1열의 목책열을 특징으로 하며, 축성대상지역을 정지후 일정한 높이로 성토 후 목책을 조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土城은 風納土城과 夢村土城 등 한성백제의 都城을 비롯하여, 吉城里土城과 疎勤山城 등 외곽 山城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永定柱와 板木을 이동하며 흙을 쌓아올려 판축작업구간이 경사를 이루도록 하는 축성공법이 확인되었다.

한성백제 시기의 석축성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포천 고모리산성이나 파주 월룡산성, 의왕 모락산성 등의 예를 보면, 일부 취약한 성벽구간을 부정형 할석으로 보강하였을 뿐 장방형으로 가공한 성돌을 사용한 전형적인 石築山城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백제의 築城 匠人들이 土城과 木柵 중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나 石城을 쌓을 정도로 石加工 技術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475년 장수왕이 이끄는 3만 명의 고구려 군대는 한성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키고, 이후 551년까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고구려는 임진강에서 한강에 이르는 구간의 交通路에 일정한 둘레 100~300m 규모의 堡壘를 쌓아 防禦體系를 구축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축성기법은 ‘土芯石築工法’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版築技法으로 土築部를 먼저 조성하고 石築으로 마감하는 축성기법이다. 토심석축공법은 축성의 效率性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新工法으로서 고구려 都城이었던 國內城과 平壤 大城山城에도 적용된 발달된 축성공법이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흥련봉 1·2보루, 아차산 3·4보루, 용마산 2보루, 시루봉보루, 천보산 2보루, 무등리 2보루 등의 고구려 보루는 모두 이러한 土芯石築工法으로 構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의 공격에 밀려 임진강 이북지역으로 후퇴한 고구려는 국경지역의 성곽을 새롭게 정비하고 전연방어체제를 구축하여 이후 120여 년 동안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대치하게 된다. 이 시기 고구려는 호로고루와 당포성을 수축하게 되는데, 평지성 역시 토성과 석성의 축성기법을 결합한 복잡한 土木技術이 반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판축공법으로 기저부와 성벽의 중심부는 토축을 하고 내외면은 산성과 마찬가지로 석축을 하였는데, 두꺼운 석축부를 효율적으로 쌓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架構木을 설치하고 그 사이 사이에 성돌을 채웠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업 工程의 결과로 중간벽에는 기둥홈과 화돌이 확인되며, 중간벽 바깥쪽에는 외벽과 보축성벽 및 보축성벽 보강토가 확인되고 있다.

6세기 중엽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한 고구려의 뒤를 따라 임진강 이남지역을 장악한 신라는 고구려 성곽의 대응되는 지점에 성을 쌓고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신라는 교통로를 따라 線的인 방어시스템을 구축했던 고구려와 달리, 放射狀으로 山城을 배치하여 面的인 방어시스템을 구축했다. 군현 단위마다 1km 내외의 산성을 쌓아 治所城으로 삼고 군사와 행정을 주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적의 침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경기도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하남 이성산성, 포천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 이천 설성산성, 인천 계양산성, 서울 양천고성, 서울 아차산성, 김포 수안산성, 양주 대모산성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축성된 산성들이다.

이 시기의 新羅城들은 大匠尺幢이라고 하는 工兵部隊의 지휘 하에 구축되어 성의 입지나, 규모, 축성공법 등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어 築城 메뉴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산성은 전방의 시야가 넓게 열려있고 교통이 편리한 해발 100~200m 정도의 구릉상에 쌓았으며, 성벽은 夾築式의 전면석축 공법으로 축조하여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성돌은 節理가 발달한 편암계통의 석재를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매우 치밀하고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외벽 기저부에는 성벽을 보강하기 위하여 단면 삼각형의 補築城壁을 구축했다. 城門은 능선이나 곡간부를 피하여 만들었는데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懸門式城門을 구축했다. 성내의 우수배출을 위하여 곡간부쪽 성벽에는 성벽을 관통하는 수구를 만들었는데 단면 형태가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이 되도록 했다.

670년 나당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신라는 군사적으로 우세한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避難城 개념의 새로운 산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산성이 주장성이다. 주장성은 기존의 산성입지와 달리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고지를 택하여 둘레 8km에 달하는 대규모 성을 쌓고, 장기간 농성할 수 있는 군수물자 비축을 위한 창고를 만들었다.

羅唐戰爭에서 신라가 승리하게 되고, 698년 발해가 건국된 이후 신라는 성덕왕 3년(782) 溟江鎮을 설치할 때까지 임진강 이북지역에 많은 성곽을 구축하게 된다. 이 시기 신라는 고구려

축성법의 영향과 함께 석재 가공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축성기법이 등장하게 된다. 이시기 축성기법의 축성시 석재의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편축식 성벽과 성벽 기저부에 체성벽 성돌보다 큰 地臺石 사용이 일반화 된다는 점이다. 二聖山城 2차 성벽과 호로고루, 당포성, 덕진산성 2차 성벽처럼 기존 성곽을 수축하기 보다는 기존 성곽에 덧붙여 쌓아서 개축하는 양상이 일반화 된다. 성문은 불편한 현문식에서 출입이 용이한 開拒式으로 바뀌고, 보축성벽은 사라지며 성벽의 높이도 낮아지고 경사도 완만해진다. 성돌을 만드는 石材는 편암에서 화강암으로 바뀌며 성돌 하나 하나를 사각추 형태로 全面 加功하여 성벽은 방어력과 견고함 보다는 아름답고 화려한 외관에 치중하는 형태로 축성기법이 변화된다.

참고문헌

- 권순진, 2012, 「임진강유역 고구려성의 성격 재고」, 『軍史』제83호.
- 김 영, 2010, 「경기지역 산성의 백제초축설 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덕식, 2005, 「발굴조사 자료로 본 고구려 성곽의 축조공법」, 『史學志』37집.
- 朴省炫, 2001, 「新羅 郡縣城과 그 性格-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백영중, 2007, 「5·6世紀 新羅山城 研究 -小白山脈 北部 일원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우, 1999,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경기도박물관년보』제3호.
- _____, 2002, 「임진강유역의 고구려 관방체계」,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인하대학교박물관 제3회 학술회의자료집, 仁荷大學校博物館.
- _____, 2005, 「남한지역의 고구려성곽」, 『한국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특별전 도록.
- _____, 2006,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 徐榮一,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제17호, 文化史學會.
-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주류성.
- 신광철, 2011,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선사와 고대』제35호, 韓國古代學會.
- 沈光注, 2001, 「南韓地域의 高句麗遺蹟」, 『高句麗 遺蹟發掘과 遺物』고구려연구12, 高句麗研究會.
- _____, 2003,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 _____,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기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박물관.
-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제36집, 고구려 발해학회.
- 오강석, 2007, 「百濟 漢城期 城郭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성호, 2017,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도학, 2013,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死處 阿旦城 檢證」, 『東아시아古代學』, 東아시아古代學會.
- 이정범, 2015,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제51집, 고구려발해학회.
- 李仁哲,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 李奕熙,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호,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희국, 1964,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 최종택,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백제연구』제47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경기도박물관, 2004, 『월릉산성』.
- _____, 2008, 『연천 당포성Ⅱ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2, 『소근산성』.
-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紅蓮峰 第1堡壘 -發掘調査 報告書』.
-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 _____, 2009, 『아차산4보루 발굴조사 보고서』.
-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 박경식 외, 2004,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배기동·황소희·이항용, 1999, 『坡州 舟月里 遺蹟 -'96·'97 한양대학교 조사지역』, 한양대학교 박물관.
- 서울대학교박물관, 2010, 「연천 고구려 성곽(3개소) 발굴 및 정밀지표조사 약보고」.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의왕 모락산성』.
- 심광주·정나리·이형호, 2007, 『漣川 瓠蘆古壘Ⅲ』,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4,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_____, 1995, 『京畿道 漣川君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이인숙·김규상, 1999, 『파주 주월리 유적 -'96·'97 경기도박물관조사지역』, 경기도박물관.
-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화성 길성리토성』.
- _____, 2014, 『坡州 德津山城 -1·2次 學術發掘調査』.
- 차용걸 외, 2007, 『南漢山城 -암문(4)·수구지일대 발굴조사』, 중원문화재단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4, 『漣川 瓠蘆古壘 -3·4차 발굴조사 보고서』.
- 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17, 「포천 고모리산성 추정동문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약보고서」.
-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3, 『吉城里土城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황용훈·신복순·김희찬, 1992, 『오두산성 I』,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임진강 유역 교통로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

목차

- | | |
|---------------------|----------------|
| I. 머리말 | IV. 시대별 활용과 변화 |
| II. 지리적 범위와 관계적 위치 | V. 맺는말 |
| III. 교통로 형성의 지리적 배경 | |

I. 머리말

현대의 임진강은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하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대부분 남북 경계지대나 북한 지역에 속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남한지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해당되는 한강 유역과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헌에는 대체로 한강의 지류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 사전에서도 한강의 제 1지류로 기록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한강이 서해와 합류하는 곳은 김포반도와 강화도 북쪽 해안에 연접한 조강일대 이다. 임진강은 그 이전에 한강에 합류하기 때문에 임진강을 한강의 지류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임진강은 강원도 법동군 용포리 두류산 남쪽에서 발원한다고 알려져 있다. 함경남도 안변군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하류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간다. 임진강의 대지류인 한탄강은 강원도 철원군 대성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서 연천군 전곡면 도감포에서 한탄강과 합류하고 있다. 임진강의 전체 길이는 약 254km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 작은배라도 다닐 수 있는 가항구간은 하구에서 약 125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안협까지였다. 전체 길이의 약 절반이상이 가항구간에 속하지만, 실제로 큰배는 고량포까지만 갈 수 있고 동절기 결빙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륙수로서의 활용 가치는 크지 않다.

임진강 유역이 교통로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수로 보다는 육로의 발달과 활용과정에서였다. 임진강과 그 지류들은 대체로 한반도의 중북부를 남서-북동으로 가로지르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구분한다면 바로 추가령구조곡이 그 기준이 된다. 추가령구조곡은 차별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선형의 저지대이다. 이것이 일종의 회랑지대

를 이루며 교통로로 활용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전근대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원산 방향의 교통로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서 이어졌다.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임진강 유역 교통로는 서울—원산 방향으로 발달하기 유리하고 그 활용도 편리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적 중심지는 한강 하류와 대동강 하류 지역 등 모두 한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덕분에 한강 유역과 대동강 유역을 서로 등양 이어주는 교량적 위치에 해당된다. 따라서 역사와 인문 환경을 고려한 교통로의 개척과 활용은 임진강 유역을 유로 방향과 직교하여 가로지르는 방향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임진강 유역의 고개나 도강치는 교통거점으로서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에 대해서 고고학이나 역사지리 분야에서 크게 주목되어 연구된 적이 거의 없었다. 다만 임진강 유역 고구려보루의 입지 및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주요 도강치나 교통로 노선 등이 단편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었다. 그것도 대부분 고대 관방 유역과 관련 등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져 임진강 유역 교통로의 역사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임진강 유역 교통로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적인 조건부터 인문적 환경 및 역사적 변화까지 임진강 유역 교통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의 제한과 실제 답사가 불가능해서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향후 연구를 촉진시키고 방향을 살펴본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II. 지리적 범위와 관계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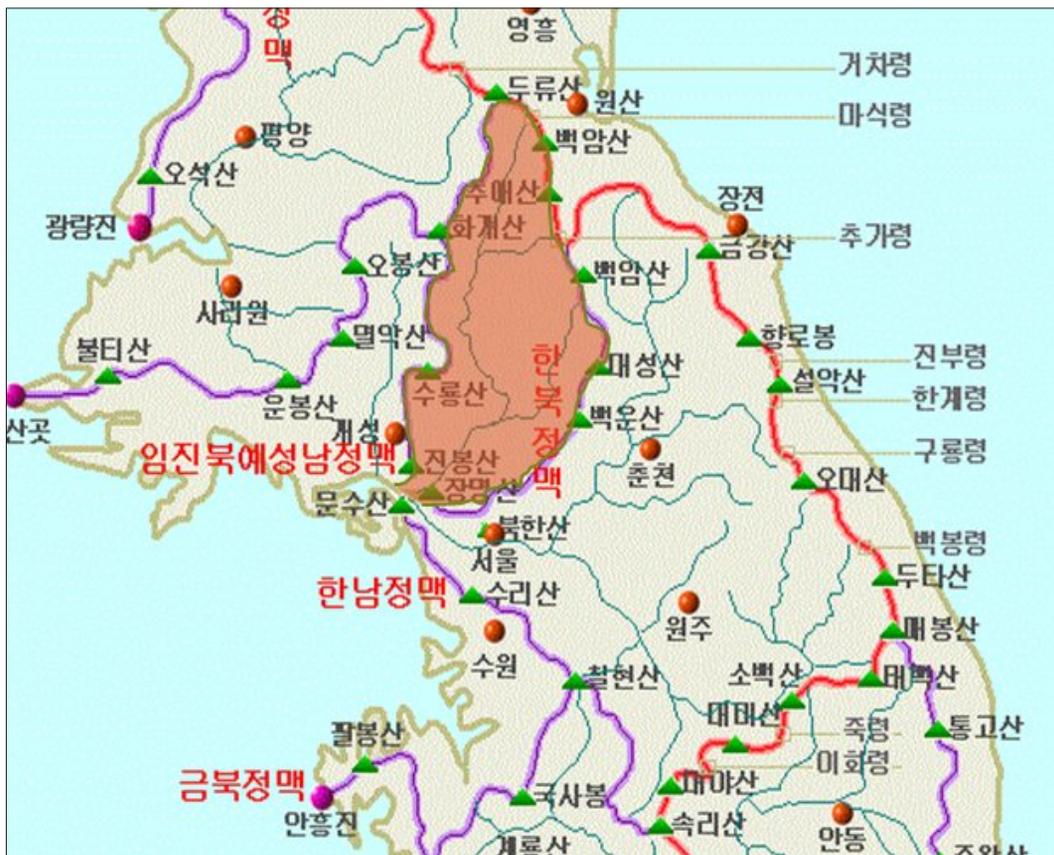
조선후기 신경준이 저술한 『산경표』는 한국의 산줄기에 대한 전통적 지리인식을 집대성한 것으로 주목된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백두산에서 산줄기가 뻗어 나와 전 국토의 산줄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말기부터 유행한 풍수지리에서도 백두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백두산에서 시작한 생기가 각 지역으로 뻗어 나간다고 보았다. 그러한 인식은 조선 후기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근대이후 한국에서 주로 사용했던 산맥은 땅속의 지질구조선을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1900년 및 1902년 두 차례 조사를 거쳐 작성한 「조선의 산악론」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이를 일본 정치지리학자 야스 쇼에이(失洋昌永)가 차용하여 한국의 산맥을 정리한 것이다. 고토의 지질도는 불과 14개월 만에 작성된 것이다. 그 목적도 한반도의 지하자원을 수탈하는데 있었다. 이것이 엉뚱하게 지리학의 산맥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산맥이 형성된 기초는 지질 구조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질 구조선에 의하여 분류된 산맥 체계는 실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산줄기와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학자의 산맥 체계는 하천의 흐름에 의하여 산줄기가 침식되어 끊어지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산맥의 경우 한강에 의하여 산맥이 절단되었으며 차령산맥도 곳곳이 침식에 의해서 산줄기가 끊어졌다. 이 같이 침식 활동에 의하여 지질 구조선과 다르게 형성된 산줄기를 산맥 체계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람들의 생활권은 물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선사시대 이후 마을과 도시는 물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식수의 확보와 이용뿐만 아니라 농경지 역시 물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물줄기는 그 자체는 물론 물줄기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퇴적된 주변의 평탄지를 통해서 외부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왔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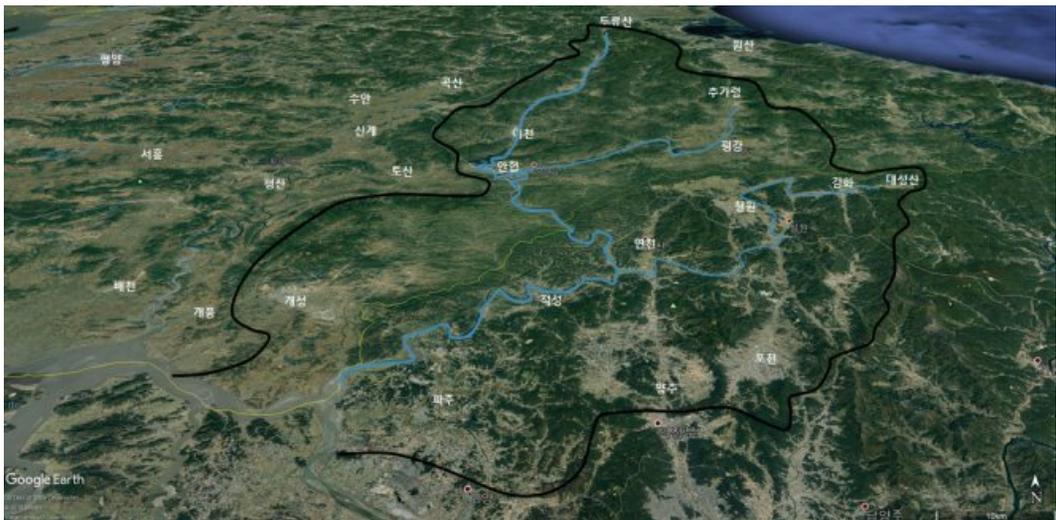
〈그림 1〉 산경표의 임진강 유역

나의 수계는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상호교류하면서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산맥 체계는 지역과 지역의 구분에 혼란을 주고 물줄기를 매개로 형성된 생활권 및 경제권, 문화 양상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도 있다.

『산경표』에서는 한반도 산줄기를 백두대간과 장백정간을 골격으로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여 뻗어나간 13개의 정맥을 포함하여 총 15개로 구분하고 있다. 『산경표』에서 산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수계이다. 분수계에 의하여 물길이 갈리고 각각의 물길은 다시 산줄기에 의하여 서로 구분된다. 따라서 하천과 하천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며 각 하천의 수계와 유역이 분명해진다. 체감상 느끼는 지표상에 산줄기의 모습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덕분에 수계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그 생활권 또는 지역의 문화적 양상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산경표』에 구분된 산줄기를 기준으로 임진강 유역의 범위를 설정하면 그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또한 임진강 유역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파악에도 유리하다. 『산경표』에 표현된 산줄기를 통해서 임진강 유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한북정맥과 임진북예성남정맥의 사이가 된다. 이 두 산줄기는 모두 백두대간에서 분리되어 남쪽방향으로 타원형의 형상을 이루며 한강 하구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은 사방이 백두대간, 해서정맥, 임진북예성남정맥, 한북정맥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커다란 분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남서쪽 한강 하구 일대만 한강 및 서해 바다에 접하여 개방된 형태이다.

임진강 유역의 동쪽과 남쪽을 이루는 한북정맥은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갈라져 나와 한강 하구에 이르는 산줄기이다. 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을 가르는 분수계이다. 추가령에서 포



〈그림 2〉 임진강 유역의 범위

천 일대에 이르기까지 해발 1000m에 달하는 고봉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험준한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포천을 지나면서 산줄기의 높이는 낮아지기는 하지만 죽엽산, 북한산 등 해발 600m 이상의 봉우리가 여전히 곳곳에 솟아 있다. 대체로 둘러싼 산줄기는 상당히 높고 험한 산이 연속되어 있다.

임진북예성남정맥은 백두대간의 두류산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장산곶까지 이어지는 해서정맥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해서정맥에 속하는 강원도 이천의 개련산(화개산)에서 갈라져 나와 개성 진봉산 부근에서 한강하구와 접한다. 두류산에서 개련산까지는 대동강의 지류인 남강 유역과 분수계를 형성한다. 개련산에서 진봉산까지에서는 예성강 유역과 분수계를 이룬다. 두류산에서 개련산까지는 해발 1000m 내외 높은 산봉우리가 이어지나 개련산을 지나면 점차 낮아져서 신계와 이천 사이에서는 해발 700m 내외로 낮아진다. 이후 토산 일대에서는 해발 고도가 200m 이하로 낮아지고 산세도 약화되어 구릉성 산지로 바뀐다.¹⁾ 토산을 지나서는 다시 수룡산, 대둔산, 천마산 등 개성 북쪽에서 해발 700m 이상 높은 봉우리를 이루는데, 송악산을 지나면서 점차 구릉으로 변하면서 사라진다.

이 같이 임진강 유역은 사방을 둘러싼 산줄기에 의하여 주변 지역과 구별되며 그 내부는 하나의 커다란 분지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임진강은 한국에서 7번째로 큰 하천이며 유역면적도 상당하다.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도 편리하며 더구나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임진강 유역이 하나로 통합된 독립적인 경제생활권으로 묶일 수도 있다. 역사상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철원을 도읍으로 정하고 삼한의 통일을 꿈꾸었던 궁예였다.

그런데 임진강 유역은 전반적으로 하류 지역을 제외하면 가용 가능한 토지가 많지 않다. 사실 철원과 평강 일대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의심되기도 할 것이다. 철원과 평강 일대의 평원은 용암대지이다. 평강 오리산에서 분화한 용암이 서서히 식으면서 흘러 연천군 전곡읍 일대까지 용암대지를 형성한 것이다. 이 용암대지 상면에는 점토층이 퇴적된 상태로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반암이 물이 투과되는 기공질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지하수를 간직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용암대지 상면에서는 식수나 농업용수의 확보가 어려워 마을이나 농경지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전곡읍 일대의 용암대지는 가사평으로 불렸는데, 거의 황무지와 다름없어서 조선시대에는 강무장으로 활용되었다. 철원평야는 현대에는 임진강 유역에서 대표적인 곡창지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곳이 곡창지대로 변하게 된 것은 근대 이후였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큰 저수지를 만들고 관개수로가 설치되면서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역시 대부분 황무지에 가까운 땅이었다.²⁾

1) 절대고도로도 해발 200m 이하이지만 상대고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구릉성 지형에 가깝다.

2) 전근대시대 철원 일대와 연천 전곡일대 용암대지 주변의 마을은 대부분 용암대지 외곽이나 한탄강과 그 지류의 강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용이한 지역에 마을이 입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임진강 중상류 지역은 가용 농지가 적어 인구부양력이 크지 않기에 큰 마을이나 도시가 들어서기가 어렵다.³⁾ 당연히 경제나 문화 측면에서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다. 임진강유역이 단일한 경제 및 문화적 공동체나 그 중심지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였지만 오래가기 어려웠던 것도 이 같은 경제지리적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경제지리적 여건이 좋은 지역은 개성, 파주, 장단 등 하류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비하여 넓은 농지가 있고 한강 유역 및 예성강 유역과 연결이 편리하다. 따라서 한강 유역이나 예성강 유역과 생활권이 연결되었지만 임진강 상류 지역과는 구분되었다.

이같이 경제지리적인 측면에서 임진강 유역은 주변 지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생산력이 아주 열악한 편이었다.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경제와 문화면에서 독립성 보다는 종속성이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관계적 위치는 나름대로 특성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강 유역 동쪽과 남쪽은 한강 유역이다. 한강 유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유역 면적이 넓으며 한반도 중부 지방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 북쪽은 관북지방으로 함흥, 원산 등 한반도 동해안 북부의 해안평야지대이다. 원산만 등을 비롯하여 동해안에서 가장 항구로서의 자연적인 조건이 탁월한 지역이다. 함흥에서 원산에 이르는 지역은 해안평야와 양향이 일치할 수 있는 조건이 합쳐져 농경과 해양 활동 여건이 모두 우수한 곳이다. 이 지역은 대외적인 교통조건도 탁월하다. 북으로 육로와 해로로 동해안을 따라서 두만강 유역과 연해주 일대로 연결이 된다. 서북쪽으로는 부전강과 장진강 등의 유로를 지나고 개마고원을 거쳐서 만주 내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북방계 문화가 남하하면서 경제와 문화의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 북서쪽은 높은 산과 그 사이의 협곡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로 대동강의 대지류인 남강 상류의 신평, 양덕, 곡산 등과 접하고 있다. 이 일대는 평지가 거의 없어 농경 조건이 나쁘고 사람이 거주하기에도 불리하다. 그 중 곡산 일대는 임진강 유역에서 예성강 유역을 거치지 않고 대동강 유역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이 주목된다. 또한 관서지방과 관북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⁴⁾

임진강 유역 서쪽 대부분은 예성강 유역과 접하여 있다. 예성강 유역은 평산 일대를 경계로 예성강 상류와 하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성강 상류에 위치한 신계, 수안 일대는 산악지대이지만 곡산에서 신계에 이르기까지 용암분지가 형성되어 비교적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다.

3) 조선시대 후기에도 임진강 중상류지역 군현의 인구는 불과 몇 백호 정도에 불과하였다.

4) 현재 북한의 평양-원산 사이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간다.

수안에 위치한 방원령은 임진강 중상류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나가는 교통로가 지나가는 고개이다. 따라서 신계-수안 등은 이 교통로의 중간 거점지역으로 활용되어 왔다. 예성강 하류지역은 평산, 봉천, 금천, 배천, 개풍 등지이다. 예성강 하류의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로 농업 생산에 유리하다. 황해도 남부의 연안, 해주 등 해안지대 및 한강 하구와 연결되어 해양 활동에 유리한 환경도 가지고 있다.

이 같이 임진강 유역은 한강유역, 대동강 유역, 예성강 유역, 관북 지방 등에 둘러싸여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남과 북, 동과 서를 서로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동강 유역, 관북지방, 한강 유역 등 한국사와 한국 문화 전개의 중심지였다. 임진강 유역은 이 두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매개지로서 역할이 주목되는 곳이다. 임진강 유역의 지역사나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한강이남 지역으로 들어왔던 문화 유입 통로는 크게 서해안 방면과 동해안 방면이 주목되고 있다. 전자는 요동일대로부터 압록강과 대동강 하류를 지나서 한강 및 금강유역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서해안 해로와 함께 임진강 유역을 거치는 육로 역시 주목되고 있다. 후자는 연해주 일대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이어지는 통로이다. 동해안에서 한강 유역이나 금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문화 유입로는 당연히 원산만 일대에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임진강 유역을 거쳐서 한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목된다. 이 통로는 연해주 일대는 물론이고 만주에서 서북한 지역을 우회하여 한반도 중부와 남부 지역으로 유입되는 문화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통로와 각 시기별 양상이나 특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규명할 것도 많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정치나 군사 측면에서 임진강 유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 지대로 군사 요충지였다.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임진강 유역 일대는 치열한 전장터가 되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은 인구의 밀집도도 낮고 경제나 문화의 개발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지역에는 전쟁의 산물로 다수의 관방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관방시설이 파악되고 그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임진강 유역의 대부분이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하여 있다. 남한 지역도 군사 지역에 속한 것이 많아 자유로운 연구가 어렵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개경과 한양이 도성이 되면서 임진강 유역의 대부분은 그 외곽지대에 속하게 되었다. 도성을 중심으로 방사선형태로 뻗어나가는 교통로가 임진강 유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관방시설 및 교통시설이 정비되기도 하였다. 특히 북방민족의 침입과 관련해서 임진강 유역은 도성을 호위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특히 고려시대 이후 임진강 하류지역은 도성의 근

교로서 크게 개발되었고 조선시대까지도 그 성격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다만 임진강 중상류 지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주목 받았을 뿐, 경제나 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 유역의 관계적 위치를 살펴보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남북분단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임진강 유역 일대가 대부분 군사지역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대동강 유역이나 원산 함흥 등지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한강 유역과 연결하여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중간 매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강 유역의 문화 양상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Ⅲ. 교통로 형성의 지리적 배경

임진강 유역의 수계망을 살펴보면, 크게 임진강 본류와 그 지류인 한탄강 유역으로 구분된다. 임진강 본류는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흐른다. 상류지역의 지류는 대체로 동서방향이 주 방향이 되고 있다. 반면에 하류지역은 임진강이 동서 방향에 가깝게 흐르면서 남북 방향의 지류가 발달하였다.

한탄강은 주 방향이 동서 방향에 가까우며 지류는 대부분 남북방향이 주방향에 가깝다. 한탄강의 지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천의 흐름은 남북 방향이 우세한 편이다. 임진강 유역은 전반적으로 남북방향으로 지질단층선이 발달하였는데 그 단층선을 따라서 하천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탄강 유역은 추가령구조곡의 영향으로 남북 방향의 유로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천의 방향은 교통로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로는 물론이고 육로도 대체로 하천에 의해서 침식된 저지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진강 유역의 하계망의 발달과 추가령



〈그림 3〉 임진강 하계망(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구조곡 등 지질단층선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교통로는 남북 방향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한탄강 하계망

임진강 유역의 남북방향 교통축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임진강 상류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함흥 방향의 축이다. 추가령구조곡 및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형성된 하천 유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임진강 하류 지역을 관통하는 의주 방향의 축이다. 이 두 교통축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교통축이며, 현재 서울 지역에서 결절되게 된다.

함흥축 교통로는 다시 크게 두 노선으로 대표된다. 동쪽은 서울-포천-철원 등을 거치는 길이다. 서쪽은 서울-양주-동두천-연천-철원을 지나는 노선이다. 연천을 거치는 서쪽 길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이어져 거의 직선에 가깝다. 전자에 비하여 거리가 가까운 지름길이다. 다만, 이 노선이 통과하는 동두천, 전곡 등지는 포천 지역에 비하여 인구밀집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교통거점이나 교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하였다. 조선시대 이전의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두 노선이 모두 활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포천 노선이 함흥 방향 간선로로 더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연천 노선이 다시 각광을 받

게 된 것은 조선 후기였다. 원산에서 한양으로 명태를 운송하던 상인들이 포천을 경유하는 노선 보다 연천을 경유하는 노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연천 노선이 포천 노선에 비하여 가깝고 더 빠른 길이었다. 이후 근대 경원선 철도가 포천 유림의 반대로 연천로를 경유하면서 현대 대표적인 교통로가 된 것이다.

연천을 경유하는 노선이나 포천을 경유하는 노선은 철원에서 합류되어 추가령구조곡을 따라서 평강까지 이어진다. 평강에서 백두대간을 넘어서 안변으로 가는 길은 다시 철령과 추가령을 경유하는 길로 나누어진다. 철령을 넘는 길은 평강에서 동쪽으로 회양을 지나간다. 이 길은 조선시대 공식적인 교통로였다. 추가령을 넘는 길은 세포를 지나서 추가령을 넘어 고산에 이른다. 세포와 고산 사이는 긴 협곡지대이다. 이곳을 지나는 길을 조선시대에는 삼방로라고 불렀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 길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철령로가 역로로 사용되었고, 삼방로는 국방상 이유로 통행이 차단되었다. 이를 조선 후기에 상업과 장시의 발달에 따라 상인들이 다시 개척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당시 고갯길에 세군데 방수처를 설치하여 삼방이라고 한 것이다.

의주축의 노선은 임진강을 도강하는 지점 및 임진강 양 안의 교통거점의 통과 여부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나타날 수 있다. 임진강은 강안 지대에 주상절리가 발달하여 도강에 불편한 곳이 많다. 비교적 도강이 편리한 곳은 임진강의 지류가 합류하면서 강안 절벽을 침식한 곳과 여울이 발달한 곳이다. 또한 임진강은 연천군 장남면 고량포를 중심으로 도강하는 방법도 차이가 난다. 고량포 상류는 수심이 낮은 여울이 곳곳에 발달하여 배가 없이도 건널 수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고량포 하류는 강폭도 넓고 수심도 깊은 편이어서 배가 없으면 도강이 어렵다.

고량포 하류에서 배로 건널 수 있는 대표적인 도강 지점은 임진나루이다.⁶⁾ 임진나루 양쪽의 교통 거점은 파주⁷⁾와 장단⁸⁾이다. 파주는 고양을 거쳐 서울로, 장단은 개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임진나루는 개성과 서울 사이 가장 지름길을 연결하는 나루가 된다. 하지만 이 노선이 간선로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 남경이 건설된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 시기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⁹⁾ 서울-개성 방향의 보조 노선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중기 이전에는 고량포 동쪽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와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일대

5) 삼방로에는 삼국시대부터 고갯길을 방어하기 위한 관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 이를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6) 임진나루는 남안에 갈라진 절벽이 있어서 강변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수심이 깊다. 반면에 강폭은 좁아서 상대적으로 강을 건너기가 편리하다. 그 덕분에 임진강 하류의 대표적인 도강처가 된 것이다.

7) 조선시대 파주목이 있었던 현재 파주시 파주읍이다.

8) 현재 파주시 군내면 일대.

9) 덕진산성이나 그 동쪽에 동파리 고구려보루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임진나루 일대가 도강처로 활용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 임진강의 대표적인 도강처였다. 이 지역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초기부터 호로하라고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월리에는 삼국시대 육계토성이 있고 그 내부에서 백제마을이 발견된 적이 있다. 또한 그 북쪽 대안인 원당리에는 호로고루가 있다. 육계토성에서 호로고루에 이르는 지역은 사미천 등 크고 작은 하천이 임진강으로 유입되면서 강안의 단애를 침식하여 임진강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강에는 여울이 발달하여 배가 없이도 걸어서 도강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장비 없이 도강이 편리한 첫 지점이 이 일대가 된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임진강의 대표적인 도강처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까지 장단의 중심지는 원당리와 그 인근의 자작리 일대였다.¹⁰⁾ 적성도 조선시대까지 현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며 파주와 구분되었다.

적성과 장남 일대는 바로 이 도강처의 강 언덕에 위치하며 도강처의 교통 거점이 된다. 적성에는 삼국시대 격전지였던 칠중성이 있으며 남쪽으로 설마치를 통해서 양주분지와 연결된다. 장남에서 북쪽에서 흘러온 사미천의 유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옛 임강현¹¹⁾의 치지가 있었던 강상면 일대를 지나고 여기에서 임진북예성남정맥의 대표적인 고개 백치로 연결된다.¹²⁾ 백치는 장단과 금천 및 토산¹³⁾으로 연결되는 고개이다. 백치를 넘어서 서쪽으로 가면 금천에 이르고 북쪽으로 가면 토산에 이른다.¹⁴⁾ 이 고갯길은 연결하는 개성을 거쳐 평산으로 가는 통로와 함께 임진강 유역에서 평양 방향으로 가는 대표적인 교통로가 된다.

당포성이 있는 연천군 마전리 부근도 임진강의 대표적인 도강처의 하나로 추정된다. 마전리는 조선시대 마전현의 중심지였다. 양주에서 감악산 동쪽의 간파천 협곡을 따라 내려오면 어유지리를 거쳐서 삼화리에 이른다. 삼화리에서 당포성 전면의 여울을 건너면 마전이다. 간파천

10) 현재의 장단은 파주에 합쳐졌다. 합쳐지기 전 장단의 중심지는 파주시 군내면 일대였다. 이곳이 장단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은 조선 후기이고 그 조선 전기 이전에는 고읍리가 중심지였다. 고려 중기 이후 남경로가 임진나루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화되면서 중심지가 고읍리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그 이전 삼국시대부터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중기까지는 서울-개성간 간선로가 통과하는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와 자작리 일대가 장단의 중심지였다.

11) 장단군 강상면 임강리 일대.

12) 산경표에는 「백치(白峙)」로 기록되어 있다.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이 삼전도에서 철군하면서 개성 북쪽의 청석동에 조선군이 매복하여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여 백치를 통해서 철수했다고 한다.

13) 현재의 토산의 중심지는 시변리 일대이다. 이곳은 임진북예성남정맥의 서쪽에 해당된다. 하지만 조선시대 토산은 임진북예성남정맥의 동쪽 임진강가에 있는 황해도 토산군 토산면 월성리 일대가 중심지였다. 이곳은 현재의 토산에서 철원으로 가는 나루가 있는 곳이었다. 조선시대 토산은 1914년 일제가 금천군에 통폐합시켜서 사라졌다. 해방 후 1952년 북한에서는 금천 동쪽 지역의 일부를 더하여 토산군을 부활시켰다. 이 때 원래 조선시대 토산 중 임진강 동쪽은 철원에 편입시켰다. 현재 대부분 지도에서 토산을 해방이후의 토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산도 현재의 토산을 말하는 것으로 것이다.

14) 이 길은 한성백제시대 수곡성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수곡성은 현재 신계군 침교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토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손영중, 1990,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92쪽)

협곡의 서쪽에는 아미성과 동쪽에는 수철성이 있다. 아미성에서는 고구려 유물이, 수철성에서는 신라 유물이 주로 출토되었다. 이 산성으로 보아 이 길이 삼국시대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전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마전현의 중심지였다. 마전리에는 북서쪽의 연천군 백학면소재지를 지나서 장단으로 연결된다. 또한 장단에서 토산으로 가는 백치로와도 연결된다. 동북쪽으로는 군남 일대 징파도¹⁵⁾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연천으로 연결된다.

임진강은 하류에서 연천군 전곡읍 도감포까지는 유로가 동서방향에 가깝다. 하지만 도감포에서부터 상류로는 유로가 남북방향이 된다. 연천에서부터 북쪽 삭령과 조선시대 토산, 안협, 이천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바로 북쪽으로 형성된 임진강 유로를 따라서 이어진다. 연천 북쪽으로 임진강 상류는 강 주변에 평지가 거의 없는 협곡지대에 가깝다. 하지만 삭령은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교통의 거점 마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쪽으로 이천, 남쪽으로 연천, 동쪽으로 철원, 서쪽으로 개성 등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결절지이다. 임진강 내륙수로는 작은배가 하류에서 안협까지 통행하였다. 조선시대 토산과 안협 일대는 주변의 조곡을 모아 수로로 연천 왕징의 징파도로 내려보내고 여기에서 한양으로 운송되었다. 삭녕은 그 수로의 중요기항지이기도 하다.

토산-삭령-연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서울에서 평양 방면으로 가는 노선으로 주목된다.¹⁶⁾ 안협과 토산 일대는 임진북예성남정맥에서 해발고도 200m 이하로 가장 낮고 산세도 비교적 둔화된 곳이다. 여기에서 예성강 중상류의 신계, 평산 등지로 가는데 통행의 장애가 되는 지형적 장애는 다른 곳에 비하여 아주 적은 편이다. 안협은 평안천이 합류하면서 임진강 상류에서는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토산과 함께 임진강 상류의 수륙교통의 결절지였다. 그 북쪽의 이천도 고미탄천이 합류하면서 넓은 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천에서 북쪽으로 판교를 지나 마식령을 관통하면 함흥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서쪽으로 곡산, 동쪽으로 평강 등지로 연결된다. 이들 모두 임진강 상류지역의 교통 거점으로 기능했던 곳이다.

한편, 임진강 유역에서 남북방향의 교통로가 우세하나 동서방향의 교통로가 발달하기 유리한 지역도 있다.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임진강의 상류의 평안천과 고미탄천, 한탄강 등의 지형을 활용한 노선이다. 철원과 평강을 중심으로 토산-안협-평강, 또는 토산-철원-김화 등으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의 교통로이다. 전자는 평강에서는 회양으로 연결되며 토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신계 방면으로 연결된다. 현재의 토산은 예성강 중류 서쪽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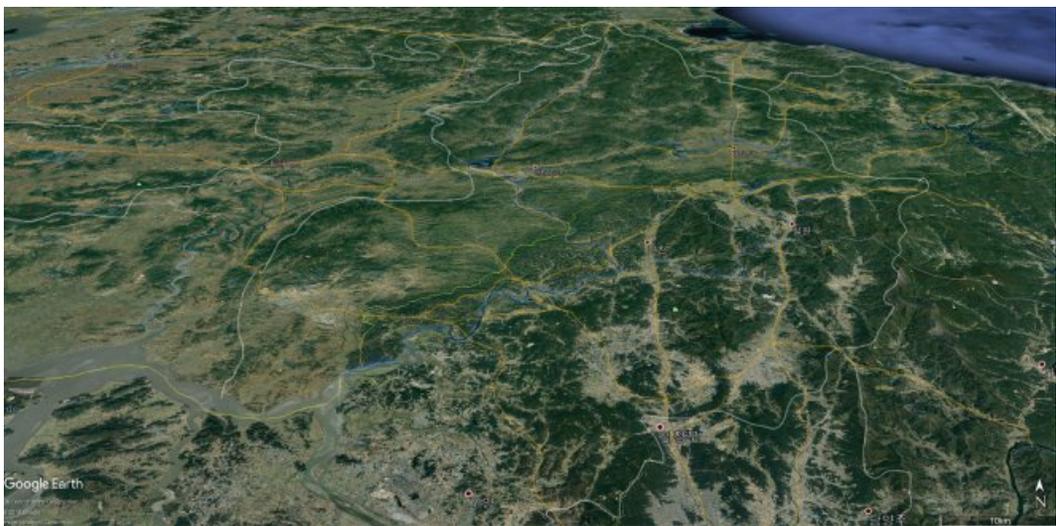
15)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16) 병자호란 당시 1636년 12월 황해도 황주 정방산성에서 나온 김자점군이 한양을 향해 철군하자 이를 청군이 추격하였다. 김자점군은 서흥-신계-토산으로 이동하다가 토산에 이르러서 뒤쫓아온 청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이후 김자점군은 삭녕-연천-포천-청평을 지나서 용문산 북편에 위치한 미원에 도착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탱크가 이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연천-동두천-의정부 등을 지나 서울로 들어왔다.

성, 장단, 금천, 평산, 신계 등 사방으로 교통로가 분기되는 결절지이다. 후자의 교통로는 김화에서 대성산 동쪽의 고개인 마현을 지나서 화천과 연결된다. 마현은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고개이다.¹⁷⁾ 이 길은 남쪽으로는 화천-춘천-원주 등지로 연결되며 철원에서 서쪽으로 토산-신계-수안-평양, 철원-평강-원산길 등과 연결된다. 한반도 중부 내륙 지역을 관통하는 길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한강 하류지역을 거치지 않고 남부지역으로 갈수 있는 대표적 교통로이다. 개성이나 한양이 도읍이었던 고려와 조선시대 보다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에 더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탄강이 동서로 흐르는 김화와 철원, 포천과 연천 일대도 지형적으로 동서 방향 교통로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임진강의 북안을 따라서 개성-장단-연천-철원으로 이어지고 영평천을 따라서 연천-포천(영평)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전자는 고려시대 개경이 도읍으로 되면서 개경에서 원산 방향의 간선로가 되었다. 후자의 교통로는 포천에서는 청평 현리를 거쳐서 가평과 춘천이나 양평과 여주 등으로 연결된다. 임진강 북쪽에서 서울 지역을 우회하여 남한강 유역으로 향하는 교통로로 주목된다.

이 같이 임진강 유역의 하계망과 도강처, 지질 단층선 등을 종합하면 대략적인 교통축이 짐작된다. 그 중 남북과 동서의 교통축이 서로 교차하는 교통 거점이 있다. 임진강 하류의 장단



〈그림 5〉 임진강 유역 (추정)교통로

17) 마현은 대성산 동쪽의 고개이다. 현재 국도 5호선이 지나고 있다. 대성산 서쪽으로 국도 56호선이 지나는 수피령, 그 서쪽으로 광덕고개 등도 있다.

¹⁸⁾ 중류의 연천과 포천, 상류의 철원 지역 등이다. 철원 지역은 김화-철원-안협 방향의 동서 교통축과 서울-양주-포천(연천)-철원-평강-추가령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결절되는 위치이다. 연천 지역은 포천-연천-장단(파주)-개성 등으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의 교통로가 서울-원산축과 결절되는 위치이다. 장단은 서울-개성, 서울-토산 방향의 교통로와 개성-연천 방향의 교통로가 결절되며 고려시대 중기까지 임진강의 대표적이 도강처였다. 이 지역들이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인 교통의 결절지라 하기에 무리가 없다.

IV. 시대별 활용과 변화

임진강 유역 여러 교통로는 선사시대부터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사시대에는 주로 남북 방향의 교통로가 주민이동 및 문화전달 경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가 본격적인 교통로로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였다고 추정된다.

원삼국시대 및 삼국시대 초기 임진강 유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다. 대체로 군현세력의 경계 및 그 외곽 지대에 위치하여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그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현세력의 확장 과정에서 임진강 유역은 그들의 세력 확장과 관련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초기 낙랑이나 말갈과 충돌이 빈번하게 있었다. 전투지역의 이름이 여러 곳이 등장하나 그 지역의 지명을 비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백제의 발전 과정과 영역의 변화를 고려하면 대부분이 임진강 유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는 백제 초기 군현세력과 군사적 충돌 과정이나 교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몇 개 노선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먼저 호로하이다. 호로하는 현재 적성 지역의 임진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성-장단-적성-양주 등으로 이어지는 길이 낙랑과 교통로로 등장하여 활용되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기록의 말갈이 임진강 유역에 거주하던 종족으로 낙랑에 부용되었던 세력으로 본다면, 이밖에도 연천, 철원 등지에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서 한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도 이 당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 여기 장단은 조선시대 이후의 장단이 아니라 고려시대 이전의 장단의 중심지, 즉 호로고루 일대를 말한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유물이 낙랑계토기이다. 북한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낙랑계토기의 유입로는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랑계토기는 삼척 등 영동지역에서도 일부 출토가 되고 있는데 그 유입경로 역시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계-토산-철원-춘천, 삭녕-연천-포천-청평 등의 교통로 역시 이 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세기 이후 낙랑과 대방이 차례로 몰락하면서 백제는 북방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해양 진출과 관련하여서는 한강 하구의 배후가 되는 임진강 하류지역은 물론 예성강 하구로도 세력을 확장하였다. 4세기 후반 369년에 이르면 고구려와 백제는 예성강 하구의 치양(현 황해도 배천)에서 격전을 펼쳤다. 이후 390년까지 예성강을 경계로 대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최대 격전지로 등장하는 지역이 수곡성이다. 수곡성은 현재 신계 남서쪽 예성강 동쪽 강언덕에 위치한 침교리 일대로 비정된다.¹⁹⁾ 이 지역은 예성강의 주요 도강처로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해당된다. 북쪽으로 신계, 서쪽으로 서흥, 남서쪽으로 평산, 남동쪽으로 토산, 남쪽으로 장단과 개성 등으로 갈 수 있다. 한성에서 수곡성까지 가는 길은 먼저 한성-양주-적성-장단-백치-토산(시변리)-수곡성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주목된다. 또한 양주-동두천-전곡-삭녕-조선시대 토산현-토산-수곡성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있다. 전자의 노선이 후자보다 가깝고 지형적 장애도 적어서 한성백제시대 수곡성으로 가는 주요통로이고 후자가 보조교통로가 아닐까 한다. 이 노선 상에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의 성곽들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칠중성과 육계토성 등 임진강 이남지역에서 백제토기가 발견되어 그 흔적이 보일 뿐 임진강 이북지역은 조사가 미진하여 확인할 수 없다.

원산방면의 교통로도 4세기 후반 이후 개척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포천 지역의 경우 고모리산성, 자작리 유적, 반월산성 등지에서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걸치는 백제토기가 출토된 적이 있다. 하지만 포천 북쪽 철원 일대에서는 아직 뚜렷한 백제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강 유역에서는 화천 일대에서 백제와 관련된 유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철원 일대에도 백제 유적이 출토될 가능성은 있다.

이상과 같이 한성백제시대에는 낙랑과 말갈, 그 이후 고구려와 군사 및 정치적 관계에서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가 정비되어 활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성을 중심으로 주로 남북방향의 교통축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 수곡성은 매차홀로도 불렸으며 신라 경덕왕이 단계현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시대 다시 협계현으로 개명되었으며 1445년 신은현과 합쳐서 신계현이라 하였다. 현재 신계군 침교리 일대가 단계현과 협계현의 중심지였다. 수곡성도 이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된 고고학적 근거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

「광개토왕능비문」에 의하면 고구려는 5만의 원정군이 400년 신라를 거쳐서 가야까지 진출하였다. 이 당시 한강 유역은 백제의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이 한강유역을 관통해서 신라로 진출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필자는 이미 광개토왕의 400년 가야 원정을 중부내륙통로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여러 번 제시한 적이 있다. 즉, 수곡성에서 토산-철원-화천-춘천-원주-죽령 등을 거쳐서 서라벌에 이르는 길이다. 400년경에 이 길이 사용되었다면 이 길은 그 이전부터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근거는 부족하지만 진한 주장이었던 염사치가 낙랑으로 망명했던 기록이나 북한강 유역 낙랑계토기의 유입로 등을 고려하면, 낙랑과 진한 사이의 교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정되기도 한다.

박재상 설화를 보면, 신라 눌지왕이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던 복호를 구출하기 위해서 신라 변경의 수장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 때 등장하는 지역이 성주, 예천, 영주 등 소백산맥 고갯길로 통하는 곳이다. 그 중 영주는 죽령과 관련되어 있어 5세기 초에 죽령이 고구려와 통하는 교통로로 주목된다. 광개토왕능비문의 원정기록과 대비하여 보면 5세기에 고구려와 신라의 교통이 죽령로를 따라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에 이르면 보다 적극적인 근거들이 보이고 있다. 450년 삼척에서 신라 변장이 고구려 장수를 살해한 사건 이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의 북변으로 추정되는 영남북부 지역으로 고구려군이 침입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당시 고구려군의 진출로를 추정하면 역시 토산과 철원을 거쳐서 영서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주목된다.

이상과 같이 4세기 말부터 고구려의 남진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임진강 상류지역의 교통로는 고구려가 개척해서 장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관련된 기록이 광개토왕대 축조했다는 國東 6城이다.²⁰⁾ 이 국동 6성은 이미 백제로부터 차지한 수곡성에서 동쪽으로 추정되며 대체로 임진강 상류 일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할 수 있다. 국동 6성은 죽령 이북의 영서 지역 지방으로 통하는 토산, 철원, 이천, 평강 등 임진강 상류 일대 지역을 장악하려고 축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중원고구려비」의 고모루성, 우벌성 등 역시 이 교통로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이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백제와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를 서로 장악하고자 하였다. 백제는 주로 임진강 하류지역에서 남북 방향의 교통로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고구려는 임진강 상류에서 백제의 경계를 감싸듯이 동서 또는 북서-남동 방향의 교통로

20) 『三國史記』권18, 高句麗本紀6, 광개토왕 18년조. “가을 7월에 나라 동쪽에 독산 등 6성을 쌓고 평양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21) 같은 시기에 백제는 포천 반월산성, 고모리산성-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충주 장미산성, 탄금대토성 등으로 이어지는 죽령로와 평행선상에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

를 확보하고 활용하였다. 이러한 교통로는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한 이후에도 대체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하류의 교통로는 백제의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668년까지 임진강 이북으로 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진강과 한탄강 이북은 여전히 고구려의 군사적 영향 속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강 상류 지역의 교통로는 상당히 복잡하다. 신라는 551년 고구려로부터 10군을 공취하면서 일단 철원 일대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마운령이나 황초령 일대로 일시적으로 진출하면서 철원-평강-회양-안변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산주를 남천주로 이동시키고 비열홀주(안변)도 달홀주(고성)로 후퇴하였다. 특히 비열홀주의 이동은 철원에서 원주에 이르는 교통로에 신라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임진강 상류지역을 다시 고구려가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를 신라가 완전히 장악한 것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는 신라 五通 중 북요통에 속하였다. 북요통은 이름 그대로 군사 교통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신라시대 지방군 10정 중 남천정(이천), 골내근정(여주), 별력천정(홍천) 등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의 관할하는 지역은 임진강 이북지역까지였다. 남천정은 이천-서울-개성, 골내근정은 여주-양평-포천-연천-삭령-토산, 별력천정은 홍천-춘천-화천-철원-평강 등을 작전로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진강 유역 교통로에 큰 변화가 발생된 것은 태봉이 철원에 도읍을 정하였을 때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라시대 철원 지역은 북경의 교통과 군사 거점에 불과하였지만 태봉의 도성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 철원을 중심으로 태봉의 교통로가 재편되었던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때 태봉의 간선로는 그 이전의 교통로를 기준으로 할 때, 예성강 유역 및 대동강 유역(토산-신계-평산, 평양), 임진강 하류(연천-장단-개성-해주), 한강 유역(포천-서울-용인-안성-공주), 북한강 및 남한강 유역(화천-춘천-홍천-원주), 동해안(평강-안변) 등 궁예도성을 기점으로 방사선 형태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이후 전국의 교통의 요지에는 국가에서 설치한 역이 등장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원도 늘어나면서 기간교통로가 정비되었다. 고려의 역제는 고려 성종 때 12목이 설치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비되면서 시작되었다. 개경을 중심으로 한 전국에 걸쳐 방사선 형태의 역도망을 형성하였는데, 총 22역도 525역이라는 방대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²²⁾ 조선은 고려시대의 역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활용하였다. 전국에 500여 개소의 역이 있었는데, 주요 도로에 대

22) 『고려사』 지 병2 참역조.

략 30리마다 역을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²³⁾

고려시대 임진강 유역의 역로는 도원도, 청교도 등과 관련이 되어 있다. 각 역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비정이 어려운 곳이 많다. 남북 분단으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크고 현지 조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원도에는 21개의 역이 소속되어 있었다. 도원역(개성), 백령역(장단), 옥계역(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용담역(강원도 철원), 입단역(강원도 평강), 송간역, 단립역, 은계역(강원도 회양군), 임강역(장단군 강상면?), 전원역(철원?), 도창역·남역·단암역(김화), 동음역·삭녕역·봉곡역(삭령 및 연천), 통원역(철원?), 이령역·직목역(금성), 웅양역(철원?) 등이 있었다. 대략적인 위치로 짐작하면 대부분 임진강 유역 교통로와 관련된다. 개경에서 장단-연천-철원-평강-회양 방향으로 연결되는 역로와 관련된 역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철원에서 김화나 금성 등으로 연결되는 역로나 장단에서 삭녕-안협-이천으로 연결되는 역로도 추정된다. 삼국시대 교통로와 태봉의 역로를 개경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청교도 관할 역에는 청교역(개성), 통과역(장단 임진나루 북안), 마산역(파주시 파주읍), 벽지역(고양시 고양동), 영서역(서울 홍제동), 평리역(개풍), 상립역·단조역(적성(積城), 청파역(서울 용산구 청파동), 노원역(서울 노원구 상계동), 행주역(행주), 종승역(김포 수안), 금륜역(부평), 중립역(인천), 녹양역(양주) 등의 역들이 있었다. 역의 위치로 보아 당시 교통로는 장단에서 파주-고양-서울이나 장단-적성-양주-서울 등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역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개풍에서 한강 하구(조강)를 도강하여 김포-부평-인천이나 김포-수안 등으로 가는 교통로가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역로는 고려시대의 것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도성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바뀌면서 노선이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일부 역의 신설과 폐지 등 약간의 변화도 있었다. 특히 고려시대 임진강 유역의 역들은 동서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노선이 편성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한양이 중심이 되면서 남북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교통로 노선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다.

23) 하지만 지역에 따라 역간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 역의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지형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V. 맺는말

임진강 유역은 한강 유역과 대동강 유역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며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해당되었다. 그러한 교량적 위치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교통로가 군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산성이 교통로를 따라서 이어졌던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려시대 이후에도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과 관련되어 군사적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여기에 고려시대 이후 역로체계가 정비되면서 지방 행정과 조세수취 등의 기능이 더하여져 교통로의 활용 폭이 더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전근대시대 교통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해당된다. 노선에 대한 파악이 막 진행되는 단계로 교통시설, 교통양식 등 교통로의 활용 방식 및 기능이나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임진강 유역 일대의 전근대 교통로 연구는 더 열악한 실정이다. 임진강 일대가 대부분 군사 지역이거나 북한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교통로 연구를 위한 현장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고고학 자료도 확보하기 어렵다. 문헌이나 지도 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구의 장애가 많다. 이 글 역시 이런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간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이런 문제를 넘어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고학이나 역사 교류에 남북 공동으로 전근대 교통로를 답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중 부 고 고 학 회
학 술 대 회



토 론 문

「韓濊之地」의 형성과 임진강 유역」에 대한 토론문

김 창 석

(강원대 역사교육과)

발표자는 그간 문헌자료, 특히 『삼국지』 『후한서』 동이전 등을 대상으로 편찬 과정과 板本 비교를 통해 三韓의 대중국 관계, 백제의 성립 문제를 천착해왔고, 「초원4년명 낙랑군 현별호구부」 「집안 고구려비」와 같은 출토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고 기초 연구를 선도하여 한국고대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발표는 『삼국지』 한전과 「광개토왕릉비문」, 그리고 『隋書』 신라전에 나오는 ‘韓濊’ 기록을 집중 분석하여 그 실체와 의미의 변천 과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그간 여러 견해가 제시된 바 있고 토론자 역시 이에 관한 소론을 밝힌 바 있으므로 발표자와의 이견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삼국지』 한전에 나오는 桓靈之末(2세기 후반)에 강성한 ‘韓濊’를 ‘韓地 內의 濊’라고 보았다. 그리고 3세기 경기 북부(임진강 유역)와 북한강 상류(강원 영서 북부)의 주민집단이 바로 이들이라고 이해했다.

- 韓濊가 韓地의 예족이라면 환령지말의 상황에서 정작 한지의 韓은 증발되어 나타나지 않은 셈이 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경기 북부, 북한강 상류의 韓濊와 마한의 관계가 궁금하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마한의 北限界가 어디인지, 종래 경기 북부 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했던 臣瀆沽國은 마한인지 아니면 한예인지?

* 이에 관한 토론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환령지말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민이 ‘韓國’으로 유출되었다면, 韓國에 한족과 예족이 같이 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예국’(영서예의 정치체)은 군현민의 유입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뒤에 대방군이 설치되고 한·예를 쳐서 군현민이 돌아왔다는 기록도 韓國의 강성해진 한족과 예족을 친 것이라고 보면 이러한 상황과 부합한다.

뒤에 대방군에 속했다는 倭, 韓은 종족명이 아니라 대방군과 정치적 관계를 맺은 정치체, 즉 왜와 한의 여러 소국을 의미한다.

2. 광개토대왕의 396년 남정 지역을 남한강 상류 유역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능비」의 新來韓穢는 고구려의 天下觀에 따른 표현으로 보았다.

- 강원 영서를 남정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 400년 庚子年에 신라로 5만 步騎를 보낸 경로가 영서 교통로를 통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영서에의 주 분포 지역이다.

신라한예의 한예가 경기 북부, 북·남한강 유역에 걸쳐있다면, 발표자가 생각하는 4세기 말~5세기 초의 韓穢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삼국지』에 나오는 韓濊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 고구려인은 늦어도 5세기 초부터 동부여, 백제, 신라까지 東夷, 奴客으로 보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백제는 3세기 중엽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을 잠식했고, 특히 낙랑군, 대방군 소멸 후 양 방향으로 영역을 넓혀나갔다고 보인다. 이렇게 성장하던 백제를 고구려는 속국으로 보았는데 굳이 그 안에 포섭된 한, 예를 특정하여 천하관에 따라 재언할 필요가 있었을까?

* '신라한예'는 수묘역을 차정할 때 舊民과 대비하여 사용되었다(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教言 祖王先王 但教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고국양왕 이전의 고구려 주민이 구민이라면, 광개토왕대 복속된 신주민이 新民이고 그 중에 '한예'가 있었던 것이다.

광개토대왕이 공략한 지역과 종족은 穉麗(거란), 백제, 息慎, 임나가야, 왜군, 동부여, 後燕이었고, 영역을 지배하여 인력 차출, 徙民이 가능했던 지역은 비려, 백제, 동부여였다. 이 가운데 韓, 穢가 살던 지역은 백제, 동부여(예족)밖에 없다. 즉 396년 丙申年에 백제를 공략하여 빼앗은 58성 700촌의 주민이 '신라한예'의 주된 실체이고 이들 가운데 수묘인을 차출토록 教를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守墓人烟戶 조에 나오는 신라한예의 내역은 우선 백제 동·북부의 주민집단을 대상으로 찾는 것이 상식이다.

이 가운데 豆比鴨峇韓 등 韓이 붙은 5개 지역은 한족, 舍蔦城韓穢는 한과 예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沙水城 등 30 지역은 뒤에 종족을 붙이지 않았으나 예족 거주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라한예'라는 광개토대왕, 장수왕대의 인식과 부합한다.

3. 『隋書』 신라전이 6세기 말~7세기 초 신라인의 인식을 전하고, “兼有沃沮而不稱韓濊之地”는 진흥왕이 확보한 신영토이며 韓濊之地는 한강 유역을 말한다고 보았다.
- 이것이 신라인의 인식이라면 남한강, 북한강 유역의 주민집단을 韓, 濊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과연 당시 신라인들이 옥저, 불내에 관해 얼마나 정보를 갖고 있었을까? 진흥왕 때 진출한 이후 50년 남짓 지난 뒤이며 함남 동해안, 강원 북부 지역은 신라가 진출 한 뒤 고구려의 수복과 신라의 재진출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옥저, 불내는 역대 중국 정사에 보이듯이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중국인의 인식을 반영한 서술일 가능성이 높다. ‘韓濊之地’도 그렇거나 고구려인의 관념, 표현을 차용하지 않았을까?
 - “신라는 7세기 중엽 韓濊之地에 대한 확고한 지배를 바탕으로 ... 강원도 영서지역과 동해안의 영동지역을 합쳐, 圖上 ‘穢貊國’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보충 설명을 부탁한다.
4. 발표문에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대방군(204?~314) 설치 전, 즉 眞番郡(BCE 108~75), 낙랑군 南部堵尉(BCE 75~CE 30) 시기 임진강 유역의 상황이 궁금하다. 진번군의 폐지와 낙랑군으로의 이관, 남부도위의 폐지, 권력 공백기(荒地化), 그리고 다시 대방군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황해도~경기 북부에 이르는 지역은 격변을 겪었을 것이다. 이 시기 韓濊의 동향, 伯濟國의 성립과 성장에 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임진강 유역 적석총의 재검토」에 대한 토론편

심재연

(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토론자는 2017년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에서 개최한 “백제 초기 고분의 기원과 계통” 학술회의에서 한강유역에 분포하는 적석총의 현황과 조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과거 조사된 적석총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남아 있는 적석총에 대한 재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 배경에는 정선 아우라지에서 연속해서 매장주체부가 연결하여 조성된 무덤이 확인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이후, 광주 곤지암리에서 이와 유사한 유구가 확인되고 용인 마평동에서도 성격 미상의 적석무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에서 재조사중인 석촌동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양상은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한강유역의 적석총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표자께서는 과거 발굴 조사에 직접 관여하신 연천 삼곶리, 학곡리 적석총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견해를 견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자료로 정선 아우라지, 광주 곤지암리를 대상으로 이야기 하셨지만 정식보고서가 간행되지 않거나 조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최근 초기고구려 적석총의 기원 문제와 발표자의 논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발표자께서는 연천 삼곶리 적석총의 구조 문제를 정선 아우라지 적석무지, 광주 곤지암 적석총과 비교를 통하여 임진강유역의 적석총은 전면에 걸쳐 묘역을 시설하지 않았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유역의 적석총의 모본인 집안 양민 168호분, 자강도 초산군 운평리 4지구 8호분,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99호분, 자강도 자성군 송암리 23호분의 비교를 통하여 삼곶리 적석총이 다곽식일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을 강상, 루상 무덤에서 보는 것은 이미 정찬영(1973)이 묵방리고인 돌이나 강상 루상에서 보는 것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증가를 통하여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무덤(집안현문물보관소 1981 ; 장설암 1993 ; 지병목 1997), 환인 대전자와 망

강루 등지에서 보이는 적석무덤(양지룡 외 1994 ; 이신진 2005) 또는 압록강 상류의 간구자에서 보이는 적석무덤(박윤식 1990 ;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2003)을 통하여 기원을 살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인 풍가보자촌(馮家堡子村)에서 확인된 적석묘(중국고고학회 편 2009 ;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외 2016)의 분석을 통하여 4호분이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의 출현(오강원 2012)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견해는 모두 초기고구려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요동반도 남단에서 보이는 일련의 적석 무덤들은 산지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강상무덤은 중심묘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기원으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간구자 무덤의 경우는 고구려의 부여 출자설과 관련하여 부여 서단산문화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에 있어서도 하천변에 입지하는 것도 있지만 요동반도 남단 적석 무덤 이외에도 망강루 무덤의 경우에는 산지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제기된 고구려 적석총 기원 문제는 신출 자료를 통하여 요동반도 남단설, 초기철기시대 적석무덤기원설, 서단산 문화와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설 등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의 입지도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자가 이야기하는 고구려 적석총의 전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강유역의 적석총은 대부분이 강변충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철기시대 마을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적석총은 가장 탁월한 위치에 조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생활유적과 매장유적은 하천변에 위치하지만 임진강의 하천 활동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방지용 적석이라는 점에는 선 듯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삼꽃리적석총의 경우는 삼꽃리마을(김기룡 외 2011 ; 배기동 외 2012)이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2. 최근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연천 황산리 적석총,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 곤지암리 적석총, 용인 마평동 적석총(!)이 발굴 조사되었거나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아우라지와 곤지암리에서 확인된 것은 지속적으로 매장주체부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장주체부 내부에서 동반되는 유물이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곤지암리유적에서는 구슬, 동탁, 한성백제기 토기 등이 동반되고 있어 그 중심연대는 삼국시대로 추정됩니다. 아우라지유적도 내부 동반 유물은 매우 희소한 상태입니다. 다만, 매장주체부 적석총진용 점토에서 보이는 타날문토기 편 등으로 볼 때 대부분이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외곽부에서

는 신라토기가 일괄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상은 임진강유역에서 보이는 유물의 동반 양상과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평동유적은 매장주체부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수점의 철모가 동반되고 있어 그 시기 또한 한성백제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장주체부의 조성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일부 동반유물의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한강유역의 것을 동일한 백제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북한강유역에서는 최근 화천 하남면 서오지리에서 2기의 적석총이 추가로 확인된 바 있으며 중도동유적의 발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거지가 4~5세기에 영위된 것으로 보이고 적석총에서는 한성 중앙양식인 직구호가 동반되고 있어 한강유역의 적석총의 조성이 백제의 성장과 연동하여 일원적으로 조성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일부 매장주체부의 조성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연천 삼꽃리와 학곡리의 매장주체부 조성 방식에서 보고자가 기술한 “입석”의 유무 차이가 확인됩니다. 학곡리에서 확인된 “입석”은 매장주체부의 붕괴 방지용일 가능성을 보고하였으나 이야기하는 남벽에만 조성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우라지나 곤지암리의 경우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입석”이라는 공통점은 확인되나 조성 방향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진강유역은 “입석”의 유무로 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장주체부 조성 방식에서 보이는 차이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연구소의 발굴 조사를 통하여 임진강유역의 적석총이 조성된 무렵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일제 강점기에 확인된 것보다는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고구려 이주민의 묘제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구려계 적석총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재 석촌동 고분군에 정비된 것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석촌동 발굴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임진강유역의 적석총 조성 집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개성 장학리 적석총을 4세기대로 보고 계시는데 현재 재발굴조사가 진행되는 석촌동 고분군도 4세기를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임진강유역의 적석총 조성을 백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고 개성 장학리유적의 것을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성백제의 중앙집권화는 최근 보고서가 발간된 화성 요리 고분군(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8)의 1지점 1호 목곽묘의 4세기 후반대에

해당하는 위세품을 보면 백제 중앙의 정치력이 완전히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진강유역과 한성 남쪽의 양상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발표자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긍정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온조왕 13년 기사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임진강유역에서 발굴 조사된 적석총에서는 대부분이 낙랑계 유물이 동반되는 양상이고 북한강유역의 중도 적석총, 남한강 최상류의 아우라지 적석총, 곤지암천의 곤지암 적석총 또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의 평면 형태가 여·철자형인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백제계 주거지를 모두 이 여·철자형으로 본다면 강원 영동지역의 마을유적이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영동지역의 적석총 부재를 언급하고 계신데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강유역의 하천변에서 적석총을 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석재가 많다는 특징이 보이고 있지만 강원 영동지역은 해안 사구에 입지하고 있어 적석총을 축조할 수 있는 석재의 반입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철자형 주거지를 상용하던 집단의 일반 모제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강원 영동지역과 한강유역의 집단을 종족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적석총의 축조양상만을 가지고 고구려에 출자를 둔다면 고구려와 관련된 유물의 부재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7. 발표자께서는 문헌의 기록을 근거로 종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의 마한 소국에 대하여 대석색국(大石索國)으로 비정하고 춘천의 “맥국”과 강릉의 “예국”을 긍정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문헌에 근거한 마한 소국의 비정 문제와 “춘천 맥국설”에 대하여는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이신 윤용구선생님과 토론자이신 김창석선생님의 견해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 김기룡·장인경·배기동, 2011, 「연천 삼곶리유적의 철기생산 관련 유구와 유물」, 『제7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한국철문화연구회.
- 배기동 외, 2012, 『연천 삼곶리 유적-군남 홍수조절지건설사업 문화재 사발굴조사(D·F 구역)보고서-』.
- 吳江原,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性 過程」, 『高句麗渤海研究』 第43號, 고구려발해학회.
- 이신진, 2005, 「오녀산 산성과 주변의 고구려 초기 유적」,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역사재단.
- 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모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5.
- 池炳穆, 1997, 「遼東半島와 鴨綠江 中下流地域 積石墓의 關係-高句麗積石墓의 起源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53.
- 韓國文化遺產研究院, 2018, 『華城 料里 古墳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吉林長白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8.

朴潤武, 1991, 「長白縣干溝子遺蹟調查」, 『博物館研究』 3.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4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16, 「遼寧桓仁縣馮家堡子積石墓群的發掘」, 『考古』 9.

張雪岩, 1993, 「集安青銅短劍墓及相關問題」, 『高句麗研究論集』上, 延邊大出版部.

中國考古學會 編, 2009, 「桓仁縣馮家堡子高句麗墓群」, 『中國考古學年鑒 2008』, 文物出版社.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5.

「임진강 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과 지역 정치체의 동향」에 대한 토론문

박 경 신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한지선 선생님은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 취락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연구성과물을 다수 제출한 전문 연구자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 논문은 임진강 유역의 취락을 집성하여 편년, 주거 구조의 변화, 지역 정치체의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논문의 방향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우문을 던짐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임진강 상류 취락군의 사회·경제적 관계

연천 삼꽃리와 강내리 취락 간 관련성에 대하여 발표자는 생산중심취락(삼꽃리)과 소비취락(강내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임진강 상류에는 다수의 취락과 적석분구묘가 셋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편년적으로 동시기 유적군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수의 취락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보입니다. 북한강유역의 경우 상류의 우두동, 하류의 양수리로 대표되는 거점취락을 중심으로 사이의 중소규모 취락이 경제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대성리는 철기를 생산하는 목적취락으로서 거점취락과 중소규모 취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강내리 취락을 거점취락, 삼꽃리 취락을 목적취락으로 이해하여 하나의 구조화된 취락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락의 경제적 네트워크 구조가 선사시대 취락과 차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단순 생산(삼꽃리)과 소비(강내리) 구조로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유기적으로 조직된 취락군 단위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임진강 유역권에서 중도유형권과 마한계문화권의 경계

토론자는 임진강 유역권은 중상류의 중도유형권과 하구의 마한계문화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동리, 동패리의 경우 주거 구조, 출토 유물의 양상에서 뚜렷

한 마한계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접한 선유리는 분명한 중도유형권의 주거, 출토유물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발표자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유역권에 포함되는 개성 봉동 유적도 중도유형권의 취락으로서 중도유형권의 북서쪽 경계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중도유형권의 북서쪽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3. 임진강 유역 정치체의 동향

발표자는 임진강 유역 중심세력의 변화를 강내리 → 주월리 → 자작리로 보고 있습니다. 강내리 취락이 중심취락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북한지역과의 교역을 매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월리와 자작리 취락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중심취락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월리 취락은 최대 16기(이 가운데에는 주거지가 아닌 것도 있음)의 주거지가 조사된 점에서 선유리(21기)와 당동리(15기) 취락과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주월리 취락이 이 시기 중심취락으로 보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주월리와 자작리 취락, 신흥취락의 등장을 백제의 세력 확산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의 중심기종인 합과 기대 등 백제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타 다른 물질자료의 양상은 기존의 중도유형권 물질자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일부 백제토기 기종의 확산 결과를 백제의 세력 확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임진·한탄강 유역 원삼국 초현기 취락의 성격

발표문은 주로 원삼국Ⅲ기에 해당하는 취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원삼국Ⅰ기에 해당하는 취락과 물질자료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진강 유역에서 원삼국Ⅰ기 취락이 원삼국Ⅲ기 취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충 듣고 싶습니다.

5. 양주 옥정동 취락의 성격

양주 옥정동 취락은 마한계문화권 성격을 띠는 취락으로서 성격이 매우 이질적입니다. 토론자는 주거의 구조, 출토 유물상으로 볼 때 마한계문화권이 중심이고, 일부 중도유형권의 물질자료 양상이 확인되는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옥정동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마한계와 중도유형권 문화가 공존하는 취락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두 세

력권이 중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 공존했다는 의미인지 부연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양주 옥정동이 위치한 지역은 중도유형권의 중심 분포권 내륙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서 임진강 하류의 파주, 문산 지역의 접이지 대적 성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와동리, 동패리, 옥정동 취락의 원삼국시대 존재 여부

발표자는 와동리, 동패리, 옥정동 유적을 한성백제 이후로 편년하고 있으며, “원삼국시대에 없었거나 매우 소형급의 취락”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자료들은 원삼국Ⅲ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충분합니다. 결국 위의 취락들은 편년적으로 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화권(마한계문화권)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7. 포천 사정리 모래내 취락의 편년적 위치

발표자는 포천 사정리 모래내 취락의 측벽부외줄구들 가운데 후벽쪽으로 배연되는 주거지(21호)에서 출토된 삼각공(도려내기식) 시루에 근거하여 취락의 연대를 ‘한성백제기에 들어선’ 시기로 편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루는 니질계로 제작된 낙랑계토기 시루로서 낙랑계토기 시루의 가장 늦은 단계(AD 3C 전반)에 해당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타날문토기 시루는 이 기형을 모방하여 타날을 베푼 형태로 등장하는데 향사리 나-17호 주거지, 단양 수양개 시루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 시루를 근거로 취락이 한성백제기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천 사정리 모래내 취락을 한성백제기 이후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진강 유역 삼국의 성곽과 관방체계」에 대한 토론문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본 발표문은 임진강 유역의 삼국시대 성곽과 관방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그간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성곽으로 나누어 각 시대별 성곽의 축조방법과 기술체계를 살펴본 것이다. 논지는 문헌기록과 발굴유적의 현황을 나열식으로 정리한 후 해당국의 시기별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발표자의 既 조사 경험과 연구 성과를 금번 발표문을 통해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발표자는 기술체계에 의한 접근을 통해 기존 성곽의 축조 및 활용 국가를 비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백제는 토축, 신라는 석축, 고구려는 土芯石築 등 축성법과 재료, 석재 가공술 등에 따라 축조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체적인 傾向性에 대해서는 토론자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성곽의 특성인 關防體系(defense system), 連用(continuous use)과 原型모델(prototype model) 등 문제에 관해서는 간과하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궁금한 사항과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高句麗 성곽 관련 질의

1)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關防은 “변방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요새”이고 體系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關防體系(defense system)란, 성곽의 분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배치되었느냐를 살피는 작업이다. 즉 성곽의 배치가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체계화 되었는지 그 기본적인 틀을 말한다. 관방체계는 일차적으로 하천이나 교통로를 중심으로 성곽의 분포가 어떠한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결합되었는가를 밝혀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경이나 교통로를 따라서 분포된 성곽이 點의 線上 連結이라는 막연한 추론보다는 치밀한 계획하에 어

떠한 공간적인 평면 구도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서로 어떠한 유기적인 복합관계를 가지며 방어체계를 이루었는지 등의 문제가 성곽 분포와 구조를 통해 선결되어야 만이 영역변화와 지방통치방식의 고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¹⁾ 이에 문헌과 역사지리적 연구 성과를 결부하면 국가별이나 시기별로 관방체계의 변화를 추찰할 수 있다.²⁾ 물론 고고학적 발굴 결과가 뒷받침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관방체계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발표문의 주제와 달리 삼국의 관방체계에 대해서는 너무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을 3기로 정리한 것과 같이 삼국의 각 시기별 관방체계의 특징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부탁한다.

아래의 표 1·2는 임진강유역 고구려 관방체계 현황표와 그 계통도이다. 참고 바란다.

유역	한탄강	임진강 상류	임진강 중·하류		
거점성	은대리성	무등리보루	당포성	호로고루	덕진산성 (동파리보루)
위성보루	-	고성산보루	아미리보루	두루봉보루	-
하천로	신천로	-	간파천로	설마천로	문산천로
출토유물	고구려 토기류	고구려 기와/곡물류	고구려 기와/토기류	고구려 기와/토기류	고구려 기와/곡물류
비고	강안 평지성	-	강안 평지성	강안 평지성	-



〈표 1〉 임진강유역 고구려 관방체계 현황표

〈표 2〉 임진강유역~한강유역 고구려 관방체계 계통도

2) 중부지방은 삼국의 角逐場이었던 만큼 물질유산에도 삼국의 특징이 공유되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임진강유역에서 한강유역에 이르는 지역은 그러한 영향이 농후하게 배어있다. 다른 유적에 비해 성곽유적의 경우 그러한 면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삼국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등을 거치는 連用 (continuous use) 문제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다.

1) 白種伍, 1999,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 2002, 「임진강유역의 고구려 관방체계」,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인하대학교박물관.

2) 徐榮一,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17, 한국문화사학회.
권순진, 2012,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 『軍史』83, 군사편찬연구소.

발표자가 언급한 ㉠ 연천 호로고루와 당포성·대전리산성, 파주 칠중성, 포천 반월산성, 안성 망이산성, 서울 아차산성, 하남 이성산성 등은 삼국시대~고려시대, ㉡ 파주 덕진산성, 인천 계양산성, 남한산성 등은 삼국시대(통일신라)~조선시대, ㉢ 고양 벽절산유적, 안성 도기동유적, 청원 남성골유적은 백제와 고구려³⁾ 등 각 시대별 유구와 유물이 함께 확인되는 양상이다.

예컨대 서울 아차산성과 인천 계양산성 등에서도 고구려 기와류가 보고된 바 있다. 2016년 서울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는 흥련봉1보루 출토품과 같은 동범외이다. 이와 함께 고구려 평기와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유물과 고구려 보루군은 어떠한 관계로 보아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산성 4차 발굴조사시 동측 평탄지의 Tr.5와 Tr.7에서 출토된 평기와류가 주목되는데 최근 이들 유물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⁴⁾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A群의 기와 : 통쪽와동(無연결흔) 암키와의 존재

제작기술적 특성에 있어 눈에 띄게 구분 가능한 一群의 평기와로, 통쪽와동의 성형틀로 제작한 암키와와 원통와동의 성형틀로 제작된 토수기와의 셋트로 상정된다.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띠며…… (중략) ……암키와는 통쪽의 앞뒤로 구멍을 낸 뒤 끈을 끼운 규칙적 연결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양상은 고구려 造瓦技術에 가깝다. 특히 凹面에 규칙적인 연결흔 없이 통쪽흔만 남게 되는 암키와 성형틀의 구조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고구려적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 (중략) …… A群의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구역에서 표면에 흑색의 슬립을 입히고 중형으로 마연하여 격자문의 효과를 낸 暗文土器 제작기법의 추정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제작방법의 특성에 있어 확연히 구분되는 속성을 가지고 기술적 계보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고구려 토기류들도 공반되고 있다. 이외 既 발굴된 성곽 출토유물들의 재검토 작업이 진행된다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통시적인 연용은 且置하

3) 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변천」, 『역사와 현실』84, 한국역사연구회 ;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변천」, 『百濟文化』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4) 최영희, 2018, 「계양산성 출토 기와에 대한 검토」,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쟁점에 대한 검토』, 계양구·겨레문화유산연구원, 57~58쪽.

더라도, 삼국시대 내에서의 보다 많은 연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고견을 구한다.

3) 고구려는 ‘最高의 築城術’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성인 국내성과 환도산성, 대성산성, 평양성 등은 그 위상에 걸맞게 ‘최고의 축성술’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막연히 최고의 축성술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뿐 실제로 어떠한 성곽의 입지와 환경, 현황과 구조, 시설물 등이 당대 최고의 축성 기술력을 보여주는지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즉 고구려 성곽은 입지 환경과 평면 플랜, 성벽과 여장, 성문과 배수시설, 집수시설과 수구, 각종 건물지 등 개별 유구와 개별 지역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다보니 그 原型모델(prototype model)을 찾는 작업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 이는 성곽의 특성상 초축 이후 오래 동안 수·개축이 반복되기 때문에, 초축 당시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환인과 집안 등 도성유적을 중심으로 많은 고구려 유적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때 환인 오녀산성, 집안 국내성과 환도산성 등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환인 고검지산성, 봉성 봉황산성, 개주 고려성산성(청석령산성), 도문 성자산산성(마반촌산성) 등 10여 개소의 지방 거점성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되고 있다.⁵⁾ 그 결과 많은 고구려 산성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國內城 서단 북문의 城門 通過式 水口와 丸都山城 남벽의 城壁 通過式 水口(通化 自安山城과 瀋陽 石台子山城 수구), 國內城 서벽부 계단식 기단부 치성(瀋陽 石台子山城 1호 치성), 國內城 서남 각루(금산 백령산성 북치성), 丸都山城 다각형 건물지(용인 할미산성 다각형 건물지 병치양상), 瀋陽 石台子山城 원형집수지(청주 부모산성, 거제 폐왕성, 남해 대국산성 집수지 등) 등이 대표적인 원형모델과 관련된 유구이다.⁶⁾

또한 발표문에도 언급한 신라 산성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되어 온 현문식 구조 성문은 通化 自安山城의 서벽 3호문지, 鳳城 鳳凰山城의 북서문지, 庄河 魏霸山城 등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금산 백령산성 남문지와 북문지에서도 발굴된 바 있다. 이 백령산성 출토유물 중에는 고구려 기와도 포함하고 있어 6세기말(‘丁巳’, ‘丙辰’, ‘戊午’銘 인각와)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살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고구려와 백제의 현문식 구조 성문과 신라 현문식 구조 성문은 축조방법에 있어 시기와 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존재한다.

5) 백종오, 2017,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の 檢討-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53, 韓國古代學會.

6) 白種伍, 2017,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對한 豫備的 檢討」, 『高句麗渤海研究』59, 高句麗渤海學會.

그렇다면 앞의 첫 번째 질의와 연동하여, 이들 고구려 성곽의 유구만이 아니라 고구려 관방 체계 역시 그 원형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 발표문의 주제가 임진강 유역의 관방 체계이기에 드리는 질문이다.

2. 新羅 성곽 관련 질의

1) 발표자는 임진강 유역에 축조된 신라 성곽과 관방체계 및 축성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551년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에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부터 신라가 당나라 대군을 675년에 매초성에서 물리친 기간까지 역사적 사실과 정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적성의 칠중성과 관련하여 칠중성의 전략적 가치와 함께 현문성문과 보축성벽을 구비한 성벽을 통해 신라가 칠중성을 구축하고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유사시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신라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궁금하다. 예컨대 553년 신주를 설치한 때로 보고 있는지, 557년 북한산주로 치소를 옮긴 때인지 아니면 603년 북한산성 전투가 기점인지? 답변을 바란다. 그리고 북한산주로 치소를 옮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부탁한다.

칠중성은 현재까지 지표조사 이후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축조 및 변화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토론자가 판단하기에도 임진강을 도하하는 북쪽 고구려를 저지하기 유리한 지형에 아마도 신라가 축조했을 개연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발표문은 『三國史記』 필부전의 내용과 둘레 약 800m 정도 된다는 점을 갖고서 고구려군 1만명이 포위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칠중성은 발표문처럼 신라가 구축한 이후 신라-고구려-신라-고구려-신라-신라+고구려 부흥군-당나라-신라 등 점유한 국가는 다양하다. 부연 설명을 바란다.

2) 발표문에는 현존하는 경기도 지역의 성곽 중 대다수가 6세기 중반~7세기 중반(551~667년?)에 쌓은 성들이라고 하였다. 하남 이성산성을 비롯하여, 서울 아차산성과 양천 고성, 인천 계양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 이천 설성산성, 파주 오두산성, 고양 행주산성, 김포 수안산성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신라는 470년 三年山城 축성 시점을 전후한 시기에 완성된 형태의 새로운 축성공법을 도입하여, 신라 영역확장과 함께 6-7세기에 전국에 많은 비슷한 유형의 성곽을 축성하였다. 이 시기 신라의 축성기법은 고구려나 백제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라 석축산성에 대해 언급한 김호준의 견해⁷⁾는 경청할 만하다. 김호준은 충북지역과 경기지역의 5~6세기경, 6~7세기경에 축조된 신라 석축산성에 대해 ㉠ 5~6세기경에 축조된 신라 석축산성의 원형 부재한 점, ㉡ 대부분의 5~6세기경 신라 석축산성은 지속적인 수·개축한 점, ㉢ 5~6세기경 초축 후 내·외벽을 증축 및 이에 덧붙인 보축 사례 부족한 점, ㉣ 신라 5~6세기 성곽과 6~7세기 성곽(돌레 600m급의 단양 온달산성, 음성 수정산성, 용인 할미산성 등)의 축성법 비교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보은 삼년산성과 문경 고모산성, 영월 정양산성의 계곡부에 축조된 내벽과 성벽통과식 오각형 내지는 사다리꼴의 배수시설, 보축성벽은 초축 당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통일전쟁기 이후에 증축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고고학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영월 정양산성의 서벽의 배수시설 하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집수시설 등이 중복되어 출토되고 있다. 그림 1에서 정양산성의 내벽을 보면 성벽 상단에서 약 6m 하부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입수구와 그 아래로 약 4m 하부에서도 통일신라문화층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산성은 내벽 기저부까지 조사되지 않은 관계로 초축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재 이들 성곽의 현재 모습은 축조 후 지속적인 수·개축과정에서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영월 정양산성 내성 서쪽 성벽 (통일신라)



〈그림 2〉 용인 할미산성 성벽(6~7세기)

그림 2와 같이 용인 할미산성의 경우를 보면, 성벽은 이천 설봉산성의 편축식 성벽과 달리 내측의 토축부(일명 내탁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내·외벽과 뒷채움이 수평을 이루며 엇물리도록 장방형의 석재로 쌓아서 조성하였다. 6~7세기 경기남부지역 신라 성곽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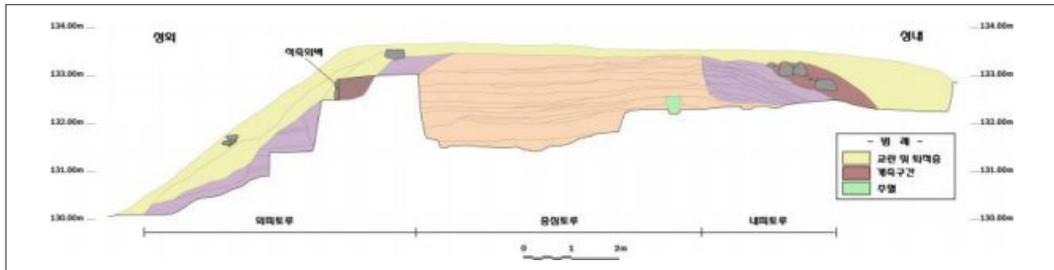
한편 신라가 토성으로 초축한 후 외면부에 석축을 덧붙여 개축한 옥천 이성산성⁸⁾(屈山城

7) 김호준, 2018, 「漢城期 百濟 石築山城에 대한 再論議」, 『文化史學』49, 韓國文化史學會.

8)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己城山城』.

비정 486), 초축은 토성이고 후대 석성으로 개축한 단양 적성⁹⁾ 등이 최근 발굴된 바 있다. 특히 옥천 이성산성은 강릉 강문동토성과 같은 5세기경의 토축 성벽이 축조되었고, 6세기말~7세기경 외벽에 석축으로 개축이 이루어졌다. 석축 외벽은 최대 11단 높이 2.1m 정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그림 3,4 참조)

성벽의 개축은 내·외피토루를 깎아내고 성외측으로는 석축 성벽을 2열 조성하였다. 그리고 성벽의 축조시기는 중심토루 내부에서 출토된 2단 투창 대각편 및 토기 등으로 볼 때 초축은 5세기경에 이루어 졌으며, 개축 과정에서 폐기된 수혈유구 내부에서 단각고배편과 인화문 토기 등이 수습되었기에 6세기말~7세기경에 성벽의 수·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 옥천 이성산성(굴산성) 성벽 단면 및 토층도



〈그림 4〉 옥천 이성산성 성벽 조사 전후 상태

상술한 바와 같이, 신라의 석축산성도 5~7세기에 걸친 축성방식에 대한 계보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축성한 석축산성은 현재 증축된 체성벽과 보축 성벽보다 먼저 축조된 성벽의 원형을 찾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6~7세기경에 축조된 신라 석축산성과 비교하여 성벽 축조방법에 대한 변화상과 시간적 차이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나름 생각을 바란다.

9) 한성문화재단연구원, 2017, 『단양적성 북문일원 보수공사 서벽구간 시굴조사보고서』.

3) 발표문을 보면 신라가 한강유역에 석축성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大匠尺幢 등의 숙련된 기술자집단인 공병부대가 존재했기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백제 한성기 영역에 분포한 70개소의 삼국시대 석축성곽이 모두 신라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경에 축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신라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수천명이나 되는 신라 石匠과 함께 축성에 동원된 수많은 인력이 존재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 한강유역에서 임진강유역에 이르는 지역은 소위 ‘角逐場’이라고 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필자의 주장대로 가공하기 힘든 화강석을 치석하여 운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축성하고, 성 내부의 각종 시설물 및 기와 건물지를 조성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축성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대부분 전쟁 기간이었다. 어째서 민간인 보다 군인들에 의해 축성이 이루어졌는지, 잦은 전투로 인해 포로와 노예 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공병부대만으로 한강 유역의 많은 성을 축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한다.

특히 이성산성(2차 화강암 축성 벽)이나 남한산성 같이 주변에 마땅한 석재가 부족하였던 곳은 어느 곳에서 석재를 운반해 왔는지, 이를 포로나 노예 등이 아닌 공병부대만으로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차라리 축성기술자가 포함된 공병부대가 거점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성의 축조를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석재를 가공하는 기술력은 후대로 갈수록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석재를 채석하고 가공하는 방식이 국가별 차이를 보여준다고 보기에는 성곽 주변의 토사와 석재를 고려하여 가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면서 성벽의 축조를 위해 반경 10km 이내의 화강석 등과 같이 가공이 용이한 석재를 운반한 사례는 음성 망이산성이 있다.

따라서 신라만이 한강유역과 임진강유역에 정형화된 석축 성곽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이 지역의 고구려의 축성기술이 6~7세기에 이르면서 퇴화된 것으로 파악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3. 統一新羅 성곽 관련 질의

1) 발표문에서 나당전쟁을 위하여 쌓은 신라의 석축 성곽 중 대표적인 晝長城(남한산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성에 대해서는 둘레, 입지조건의 변화, 채석장 범위, 채석 방식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정작 성벽의 규모 및 축성기법, 보축성벽 등에 대해서는 발굴된 지역이 협소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 연천 호로고루와 파주 덕진산성에서 확인되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에 구축된 신라

성벽의 축성기법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 경사면에 기대어 쌓는 편축식 석축 성벽으로 토성과 같은 내탁부에 석축을 쌓고 있는 양상, ㉡ 체성벽에 덧대어 장방형치를 설치, ㉢ 체성벽 기저부에 대형 지대석과 그 위에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석재를 올려놓는 방식 등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예시를 부탁한다.

그리고 말미에 9세기에 주로 축성되는 성곽들을 지방 호족 세력의 등장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과 성돌을 만드는 石材는 편암에서 화강암으로 바뀌며 성돌 하나 하나를 사각추 형태로 全面加功하여 성벽은 방어력과 견고함 보다는 아름답고 화려한 외관에 치중하는 형태로 축성기법이 변화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미적 외관의 축성기법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바란다.

4. 百濟 성곽 관련 질의

1) 발표문을 보면 백제 한성기는 城과 柵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柵은 산고개나 구릉, 하천, 해안 주변 등 지형적인 조건과 시간, 인력 동원 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활용되었으며 토성이나 석성의 보조적인 방어시설로도 이용되었다.¹⁰⁾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 책을 설치한 기록은 잘 알려져 있다. 발표문에서 예시한 柵은 화성 길성리토성, 천안 백석동토성, 청주 석화리유적, 안성 도기동산성, 대전 월평동유적, 완주 배매산 목책 등이다.

(1) 먼저 완주 배매산 목책에 대한 서술은 각주10)의 2002년 전북대박물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7년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¹¹⁾에 의하면, 2002년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것을 머리말에서 언급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성으로 보고하였으니 수정을 바란다.

(2) 각주 39)에서 대전 월평동 유적의 목책②를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또 성벽①과 성벽②를 신라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보았는데 역시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성 내에서는 신라 유구나 유물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드리는 질문이다.

(4) 안성 도기동산성의 경우 고구려가 1.4km(2km는 오기) 규모의 성을 축조할 수 있었을

10) 황보경, 2016,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考察」, 『白山學報』106, 백산학회, 183쪽.

11)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기존의 백제 목책성에 석축과 토축을 가미하여 수·개축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청주 석화리유적은 부모산성과 함께 백제 사비기 유물이 출토된 유적이다. 본문에서는 석화리유적 목책의 조성시기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백제는 한성기부터 사비기까지 목책을 조성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성¹²⁾의 발표 논고가 있기에 드리는 질문이다.

발표자는 백제 사비기의 부모산성 제1보루 및 학천산성의 ‘土芯石築’ 축성기법과 석화리유적의 목책 정도가 이 당시 백제의 축성기술력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三國史記』의 근초고왕대 청목령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과 수곡성이 고구려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백제가 관방체계를 확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¹³⁾

발표자는 백제 한성기 진사왕대에 청목령(개성 부근)에서 서해에 이르기까지 설치한 관방체계도 청주의 부모산성과 보루 그리고 석화리유적 목책의 배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2) 발표문에서 임진강 유역의 백제 성곽은 파주 육계토성과 월룡산성, 포천 고모리산성, 의왕 모락산성, 고양 떡절산유적, 화성 소근산성, 안성 망이산성 내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발굴된 떡절산유적, 소근산성 등을 통해 백제 한성기 성곽 대부분이 토성으로 구축되었거나 토성벽에 약간의 할석재 석축이 더해진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논지는 단편적인 조사 사례의 나열과 기술 계보, 계통적인 판단으로 축성의 기술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토목공학적인 일반적 공통성만 도출하는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의 각주21)에서 언급한 김호준¹⁴⁾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삼국의 성곽 축성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축성양상, 축성목적 및 성격, 주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등 다각도의 접근 방식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아래의 삽도는 서영일(그림 5左, 6, 7)¹⁵⁾과 강형웅(그림 5右)¹⁶⁾의 글에서 전제하였는데 대략적으로 백제 한성기의 대고구려 관방체계와 고구려의 침입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좀 더 상술

12) 심광주, 2013, 「淸州 父母山城과 周邊 堡壘의 築城技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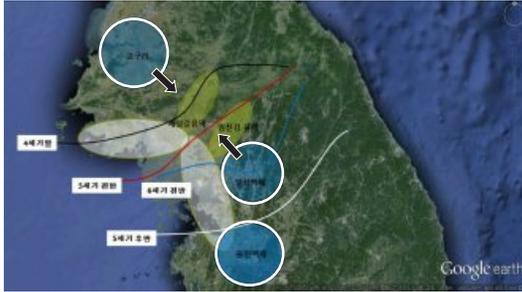
13) 문안식, 2016, 「백제의 평야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 『한국고대사탐구』2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4) 김호준, 2018, 앞의 글.

15) 서영일, 2017,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백제문화』 5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6) 강형웅, 2007, 「4세기 한성백제의 관방유적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하면 예성강과 임진강 이북의 관방체계에 따른 성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조사된 사례가 없다. 한편 백제의 한성 동쪽 일대의 고구려 혹은 이에 부용된 세력에 대한 관방체계, 그리고 4세기 중후반에 백제 한성기의 남방 경략과 관련한 거점성 및 축성 사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바란다.



〈그림 5〉 고구려-백제 전쟁과 세력권의 변화 및 백제의 4세기 관방체계



〈그림 6〉 고구려 남경의 변화(고구려의 공격방향)



〈그림 7〉 한강수로와 백제-신라의 방어선(백제 4세기말, 신라 7세기 중후반)

○ 파주 동파리보루(참고자료)



〈그림 8〉 파주 동파리보루 위치도



〈그림 9〉 파주 동파리보루 고구려 기와류

「임진강 유역 교통로」에 대한 토론문

김기섭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발표문의 주요 내용을 대체로 수긍한다. 논란의 여지도 그다지 없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논지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고 오해를 피하고 싶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백제 초기’를 언제쯤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는 “임진강 유역의 교통로는 백제 초기 군현세력과 군사적 충돌 과정이나 교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추정하였다. 그런데 1~3세기 백제의 중심지, 영역, 그리고 왕실계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다. 당시 백제의 중심지가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일대이며 『三國志』 韓傳 마한 50여개국 중 8번째로 실린 伯濟國과 같다는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3세기 까지도 백제 영역은 아직 임진강유역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임진강유역에는 臣瀆沽國, 優休牟涿國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혹여 백제건국세력이 북방에서 남하하던 중 잠시 임진강유역에서 머물렀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라면 더욱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삼국사기』에 실린 백제 초기의 지명과 각종 사건은 유물론적 실증이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유물에 기초하는 한 임진강유역에서의 백제 문물은 4세기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음, 발표자께서는 4세기 무렵 백제의 북방영토가 어디까지였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발표자는 369년 “이후 390년까지 예성강을 경계로 대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백제의 북방영토를 예성강 이남으로 추정하는 학계의 기존 통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조에 실린 기사(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域 北至溟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壤)에 근거한 것이다. 溟河를 신라 말 溟江鎭이 있었던 예성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근초고왕 26년(371)과 근구수왕 3년(377) 백제의 평양성 공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황해도 황주 출토 백제토기류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궁색해진다. 학계에는 한때 백제의 북방 경계였던 패하를 대동강 수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발표문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도 있다. 瓠瀘河는 『삼국사기』에 7세기 후반 고구

려와 신라-당 사이의 전쟁과 관련해 처음 나오는 지명이다. 호로하가 “적성지역의 임진강을 지칭”한다는 발표자의 추정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백제 때의 지명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백제 초기의 교통로와 관련해서는 쓰기 어려운 듯하다.

또, 산맥(mountain ranges)은 지반운동 또는 지질발달에 따라 띠를 이루게 된 산지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형구조의 역사성(시간성)에 주목한 용어이며, 산줄기(mountain ridges)는 지표면의 띠를 이루고 있는 산지를 가리키는 말로서 현상과 공간성에 주목한 용어이다. 流域分水界를 표현한 『山經表』의 山經은 산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발표자는 “지질 구조선에 의하여 분류된 산맥 체계는 실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산줄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여 용어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현재 지리학계에서 산맥체계에 산줄기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독자가 자칫 오해할 여지도 있다.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인 쇄 : 2018년 10월

발 행 : 2018년 10월

편집 겸 발행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중부고고학회

인 쇄 : 디자인 예담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031-231-8551

중부고고학회

(15888) 경기도 군포시 대야1로 7, 3층 301호(대야미동)

한양문화재단연구원 內

070-4286-9257

2 0 1 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중 부 고 고 학 회
학 술 대 회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우:16488
Tel : 031-231-8551 Fax : 031-898-7991
E-mail : onnea747@ggcf.or.kr
인터넷 주소 <http://www.ggcf.kr>(재단)
<http://www.gjicp.kr>(연구원)

중부고고학회

경기도 군포시 대야로 7, 3층 301호 한양문화재단연구원 內
우:15888
Tel : 070-4286-9257 Fax : 031-438-2778
E-mail : jbgogo@jbgogo.or.kr
인터넷 주소 <http://www.jbgogo.or.kr>